SDU

디지털문학

2013 / 제6호

| 교수문단

[시] 이재무/오봉옥

[소설] 이명랑

[동화] 임정진

| 학생문단

[시] 김삼주/김상률/김영길/김옥자/노정숙/박민서/
서보희/서진호/안진영/유원희/이인성/이일지/
이천호/정혜선/조인숙/최명희/최해자

[소설] 김설옥/김홍숙/박미진

[수필] 노정숙/유시경/이천호

[동화] 김린다/신나영/이명희/이원복

[사이버문학상] 정예림/노정숙 황은정/조윤진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SDU

•

문예창작학부

•

제6호

•

2013

백학기 시인 특강
김형수 소설가 특강
유성호 문학평론가 특강

우리가 있어 세상은 아름답다!!
SDU 문예창작학부
문예창작학부
사이버문학상 시상식
SDU
SEOUL DIGITAL UNIVERSITY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 차례 ‖

‖ 교수문단

| 시

이재무　갈퀴 • 11
　　신발을 잃다 • 12
오봉옥　詩 • 14

| 소설

이명랑　2011년, 서울 뒤죽박죽전 • 16

| 동화

임정진　찰칵총각네 구멍난 커튼 • 37

‖ 학생문단

| 시

김삼주　자반고등어 • 45
김상률　화평선 • 47 / 산다는 것 • 48

김영길 별 도둑 • 49 / 강구안 강 씨 • 50
김옥자 그녀의 방 • 52
노정숙 늑대, 제 피를 마시다 • 54 / 천년살이 • 55
박민서 물매를 맞다 • 56 / 불빛만 있어도 숨을 쉴 수 있다 • 57
서보희 범인의 고백 • 58
서진호 시간이 가고 또 한 구의 시신이 된 시간이 가고 • 60 /
Watching the movie Watching the music • 62
안진영 새 • 64 / 인생 • 65
유원희 올해의 레시피 • 66 / 땅의 귀 • 67
이인성 또 다른 가을 • 68 / 어느 날의 눈송이 • 69
이일지 산의 선물 • 70
이천호 그리움 • 71
정혜선 광주역 오비 아짐 • 72 / 창고 • 74
조인숙 붉은 피 • 75 / 그림자 놀이 • 76
최명희 초가집 이엉을 매만지는 여자 • 78
최해자 아버지 • 80 / 명지바람 • 81

| 소설

김설옥 슈게이징 • 85
김홍숙 어떤 귀향 • 100
박미진 한림도서관 • 119

| 수필

노정숙 치명적 사랑 • 135 / 나를 받아주세요 • 138
유시경 이카로스의 연인들 • 141
이천호 백운대는 향기로운 흰 백합꽃 • 146 /
수수밭과 충주호수 길 • 149

| 동화

김린다　주홍그림 • 155
신나영　고은이의 마음 길 여행 • 163
이명희　꼭두야 웃어봐 • 178
이원복　승후와 구름우산 • 185

| 사이버문학상

정예림　낙타의 별 • 195
바람의 말줄임표 • 196
말레이가비알 • 198
구세군 • 200
처녀자리의 계절 • 201
노정숙　외할머니의 왼손 • 202
해오라비난초 • 204
누운 자에게 말 걸기 • 206
패싸움 • 208
백구두 • 209
심 사 평 • 210
당선소감 • 212

황은정　아빠의 청춘 • 214
조윤진　뱀살에서 용살로 • 218
심 사 평 • 222
당선소감 • 224

교수문단

이재무 (시)

오봉옥 (시)

이명랑 (소설)

임정진 (동화)

教授
文壇

갈퀴 外 1편

이재무

흙도 가려울 때가 있다
싸앗이 썩어 싹이 되어 솟고
여린 뿌리 칭얼대며 품 속 파고들 때
흙은 못 견디게 가려워 실실 웃으며
떡고물 같은 먼지 피워올리는 것이다
눈밝은 농부라면 그걸 금세 알아차리고
헛청에서 낮잠이나 퍼질러 자는 갈퀴 깨워
흙의 등이고 겨드랑이고 아랫도리고 장딴지고
슬슬 제 살처럼 긁어 주고 있을 것이다
또 그걸 알고 으쓱으쓱 우쭐우쭐 맨머리 새싹은
갓 입학한 어린애들처럼 재잘대며 자랄 것이다
가려울 때를 알아 긁어주는 마음처럼
애틋한 사람 어디 있을까
갈퀴를 만나 진저리치는 저 살들의 환희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사는 동안 가려워 갈퀴를 부른다

신발을 잃다

소음 자욱한 술집에서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한참을 즐기다 나오니
아직 길도 들지 않은 새 신 종적이 없다
구멍난 양심에게 온갖 악담을 퍼붓다가
혈색 좋은 주인 허허허 웃으며 건네는
다 해진 신 신고 문밖으로 나오는 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찬바람,
바람에게도 화풀이를 하며 걷는데
문수 맞아 만만한 신
거짓말처럼 발에 가볍다
투덜대는 마음 읽어내고는 발이 시키는 대로
다소곳한 게 여간 신통하지 않다
그래, 생이란 본래
잠시 빌려쓰다 제자리에 놓고 가는 것

발과 신이 따로 놀다가
서로를 맞추고서야 신발이 되듯
불운도 마음 맞추면 때로 가벼워진다
나는 새로워진 헌 신발로 스스로의 다짐
때마침 내리기 시작한 눈에 도장 꾹꾹 찍으며
대취했으나 반듯하게 집으로 간다

이재무 : 시인, 1983년〈실천문학〉통해 작품활동시작
시집≪위대한 심사≫外 다수, 계간 시작 편집주간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詩

오봉옥

어느 날
피투성이로 누워
가쁜 숨
몰아쉬고 있을 때

이름도 모를
한 천사가
제 몸을
헐어주겠다고 사뿐,

사뿐,

사뿐, 그 벌건 입속으로
걸어 들어온 뒤
다시 하늘로
총총
사라져 간 것이었다

그 뒤 난
길에 침을 뱉거나
무단횡단을 하다가도
우뚝우뚝
걸음을 멈추곤 하였는데

그건 순전히
내 안의 천사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오봉옥 : 시인, 1985년 창비 신작시집으로 등단,
시집 ≪나 같은 것도 사랑을 한다≫와 다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2011년, 서울 뒤죽박죽전

이명랑

바야흐로 때는 2011년, 서울 한복판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으니, 형의 이름은 박놀부요, 동생의 이름은 박흥부라. 모름지기 형제란 한 가지에서 나와 평생토록 오순도순 우애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이나 이 형제는 오순도순은커녕 으르렁으르렁 대거리 한 번 해볼 수도 없는 것이, 아예 안 보고 안 만나니 서로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조차 몰랐다. 그건 또 왜 그런고 하니, 이 형제 서로 안 보고 사는 까닭을 알라치면, 그 부모 대에까지 올라가 연유를 찾아야 하겠다.

놀부, 흥부의 어미로 말할 것 같으면, 낫 놓고 기역자는커녕 두 눈 시퍼렇게 뜨고도 한 치 분간을 못하는 제 아비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수술비 3000만 원에 돈 많은 부잣집 외아들한테 시집온 효녀로 그 이름도 유명한 심청이었다. 그런데 이 심청이 막상 시집오니 고생, 고생, 생고생,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온갖 고생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고생을 하며 살게 되었으니 바로 부잣집 시집살이, 빛 좋은 개살구 노릇이었다. 어려서부터 몸에 익은 것이 가난이요, 배운 것이 몸 써서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라 이 심청이 처음엔 부잣집 며느리 노릇이 그거 무슨 누워서 식은 죽 먹기인가 했더니 이게, 이게, 월급 없는 머슴살이에 옥살이가 아닌가. 밖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고 칭송해마

지 않는 시부모는 어찌된 게 집 안에만 들어오면 소리 내서 웃지 말아라, 밥 먹을 때 떠들지 말아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온갖 일에 가정의 법도를 들이대며 눈을 부릅뜨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 접대는 왜 이리 많은지 허리 펴고 앉아볼 새도 없다. 게다가 남편이란 작자는 제 친구들 와이프들을 들먹이며 누구는 외국에서 악기 공부를 하고 와서 낭창낭창 흐드러지게 연주도 잘 하고, 또 누구는 딴 나라 말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다섯 개씩이나 한다는데, 너는 고작해야 서울말 하나를 제대로 못 배워서 아직까지도 사투리를 쓰냐며 남 앞에선 입도 벙긋 못하게 하니, 이건 뭐 나중에는 기가 죽어 밖에서건 안에서건 벙어리 노릇하기는 물론이거니와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큰 용무를 볼 때도 혹여 방귀 소리가 새어나갈까 가슴 졸이며 살아야했다나 뭐라나. 그래도 말년에는 복이 터져 그 무섭던 시부모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는 내 맘대로 할 말 못 할 말 맘껏 지껄이고, 눈치 볼 것 없이 방귀도 뽕뽕 내 맘대로 실컷 뀌며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구나 하면 좋으련만, 이 심청이 말년엔 또 막내 걱정에 눈도 감을 수가 없었다. 형인 놀부는 시부모와 남편을 꼭 닮아 밖에서는 호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한테 손해되는 짓은 일절 하지 않는 데다 남의 것도 내 것 만드는 잔머리는 어찌 그리 잘 돌아가는지 잠잘 때도 머리 굴리는 소리가 돌돌돌돌 하고 온 집안에 메아리칠 정도이니 어미가 아니라 세상이 없어져도 너끈히 살아남을 위인이었다. 그에 비해 동생인 흥부는 잔머리를 굴릴 줄을 아나 수완이 있기를 하나, 할 줄 아는 거라곤 그저 몸 써서 열심히 일하는 것 말고는 없으니 늙은 심청이 걱정도 태산이로다. 해서 금싸라기 땅은 수완 없는 흥부 몫으로 떼어 주고 수완 좋은 놀부에겐 갈대만 무성한 땅을 남기니, 꼴까닥 숨 넘어가는 순간에는 박복한 심청이도 뽕뽕뽕 평생 묵은 방귀 뀌어대며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여한 없이 죽었더랬다.

럴수 럴수 이럴 수가!

이 사실을 안 놀부, 돌돌돌돌 주야로 제 동생 땅 뺐을 잔머리만 굴려대다 옳거니! 좋은 수가 떠오르자 벙실벙실 사람 좋은 웃음 흘려가며 그 길로 곧장 갈대만 무성한 제 땅으로 흥부와 흥부 애인인 심순

애를 데려 갔다.

"흥부, 흥부, 이름만 들어도 얼쑤 좋은 내 동생 흥부야! 이 땅이 바로 어머니가 물려주신 내 땅이 아니더냐. 겉보기엔 흥부 네 땅이 그럴싸해 보여도 진짜 보물은 바로 이 갈대밭이지, 암 그렇고 말구."

"보물이면 그럼 이 갈대밭에 금은보화가 잔뜩 묻혀 있다는 소리네요?"

형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보는 흥부가 놀부 말에 맞장구를 쳤다.

"이놈! 보물이면 뭐 금은보화밖에 없다더냐? 이 갈대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기 저 끝에서 이 끝을 건너다볼라치면 눈 뜨고는 절대로 못 보는 진귀한 구경을 뵈어주는 신통방통한 땅이란 말이다!"

"에이, 무슨 농을 그리 잘하시우?"

놀부 말에 어려서부터 일편단심 알콩달콩 흥부랑만 사랑 쌓아온 심순애가 거짓부렁이라고 따지자 놀부는 놀부대로 길길이 화를 내지 뭔가.

"정 못 믿겠으면 가서 보면 될 것 아니냐! 내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두 눈으로 직접 보면 될 것 아니냐! 어머니가 물려주신 땅을 걸고 내기를 하자, 이놈! 만약 내 말이 참말이면 네 놈 금싸라기 땅하고 내 갈대밭을 맞바꿀 줄 알아라!"

그래, 형의 말이라면 무조건 고분고분 "네이!" 소리만 할 줄 아는 흥부가 또 얼른 "네이!" 하고 갈대밭 저 끝으로 뛰어갔지. 헌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눈 뜨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진귀한 구경을 시켜주는 땅이라더니 놀부 말이 정녕 참말일세그려! 갈대밭 너머에서 형 놀부와 이제 곧 내 각시가 될 심순애가 한 덩어리로 얽혀 있는데, 그 하는 짓이 분명 떡방아질이렸다!

쿵더쿵~~쿵더쿵~~쿵~더더더쿵쿵!

흥부가 두 눈 감았다 다시 떠보고, 도리도리 고개도 저어보고, 주먹으로 제 따귀를 갈겨 봐도 갈대밭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 저 소리, 떡방아 찧는 소리만 갈대밭을 그득 그득 메웠으니, 흥부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지.

졸지에 각시 삼을 뻔한 심순애마저 형에게 빼앗긴 흥부, 미련둘 게 무에 있나, 갈대밭을 뒤로 하고 걷는데, 주섬주섬 옷 찾아 입던 심순

애가 놀부 등짝에 바짝 붙어 서서 한다는 소리가,
"그럼 금싸라기 땅은 이제 우리 거 맞지요?"
하니, 흥부 입에서 절로 명시가 흘러나오는 구나!

이 내 각시 손은 문고리인가, 형도 잡고 나도 잡네.
이 내 각시 입은 술잔인가, 형도 빨고 나도 빠네,
이 내 각시 배는 나룻배인가, 형도 타고 나도 타네.

동생 몫의 금싸라기 땅을 빼앗은 그 날부터 놀부는 높아지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져서 바야흐로 이십년이 흐르니, 높은 빌딩에, 높은 자리에, 높아도 너무 높다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터를 짓고 살게 되었으며, 낮은 것은 거들떠도 안 보게 되었다. 놀부가 이리 높은 것만 좋아하니, 놀부네 문턱 넘어 찾아오는 자들마다 더 높은 것, 더 더 높은 것, 최고로 높은 것만 놀부 눈앞에 들이대는데, 어느 날은 말끔하게 차려입은 양복쟁이가 찾아와 높은 것으로 치자면 지금은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며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더니 "이게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올시다!" 하는데 놀부 눈이 번쩍 뜨인다.

천 원이 백만 원 되고 백만 원이 일억이 되고 일억이 십억도 되고 이십억도 되니 이 보다 높은 이율이 어디 있을 쏘냐!

놀부가 엉덩이를 번쩍 치켜들고 양복쟁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그래, 자네 이름이 뭔가?"
하니,
"자산관리사이옵니다!"

우렁차게 대답하는데, 이리 봐도 돈돈! 저리 봐도 돈돈! 돈 냄새가 진동하니 높은 빌딩들은 은행에 잡히고, 높은 자리는 신용대출하여 돈으로 맞바꾸고,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세로 내어주고 단박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주식투자에 전 재산을 몰아넣었다나 뭐라나.

허허, 헌데 이 놀부, 오늘은 얼굴 꼴이 말이 아니다. 아침부터 여기 저기 전화를 건다, 이 은행 저 은행 뛰어 다닌다 발바닥에 땀이 나더

니, 저녁 무렵에는 제 집이 분명한데도 함부로 드나들 수도 없게 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찾아가 띵똥!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예, 저 집주인인데요."

"집주인이요? 집주인이 왜요?"

"제발 부탁이니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십 분이면 됩니다!"

엉덩이는 뒤로 쑥 빼고 주둥이는 인터폰에 찰싹 붙이고 서 있는 꼴이 이건 뭐 집주인이 아니라 영락없는 잡상인 꼴이었다.

어찌저찌 놀부가 어렵사리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집 안에 감도는 것이 은은한 분내요, 눈앞에 앉은 여자는 천상의 선녀일세.

"저는 콩쥐라 하옵니다. 바깥양반은 나랏일이 급해 멀리 떠나시고 집 안엔 저 혼자이온데 집주인께서는 예까지 어인 일이신지요?"

놀부 집에 전세 사는 콩쥐가 낭창낭창 곱디고운 목소리로 제 이름 밝히며 커피를 내오는데 걸음새며 커피 따라주는 손놀림까지 무엇 하나 어여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콩쥐에게 넋이 나가 침을 질질 흘리던 놀부, 어인 일이냐는 말에 얼른 정신을 차리긴 차렸는데, 말 꺼내기가 이게, 이게, 쉽지가 않았다.

"어머머, 이마의 이 땀 좀 봐. 에어컨을 좀 틀까요?"

콩쥐가 옆으로 바짝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준다, 에어컨을 튼다, 이리 저리 부산을 떠는데 움직일 때마다 분내가 요동치니 놀부 정신이 아득해지고, 요 몇 년간 일없이 다리 사이에 매달려만 있던 거시기가 불끈 불끈 용트림을 해대는데 아주 죽을 맛이었다. 해서 이 놀부, 두 눈 질끈 감고 "여자저차 하여 사정이 급해졌으니 제발 내 집을 사주십시요!" 하는데, 콩쥐 대답이 아주 가관이다.

"세상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힘든 사정이야 제가 잘 압지요. 우리 집 바깥양반도 어찌나 머리가 좋고, 셈이 밝은지 벌써 집을 세 채나 사두었지 뭐예요. 이 넓은 집을 그리 헐값에 내놓으신다니 마음 같아서야 얼른 사드리고 싶지만 집이 많아 못 사는 그 힘든 사정이야 주인분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집이 많아 집은 못 사드리지만, 주인분께서 집을 내놓으시면 제가 찾아오는 사람마다 친절히 설명

하여 어떻게든 집 잘 팔리게 최선을 다할 터이니 너무 상심마셔요~”

두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글썽이며 콩쥐가 집 못 사주는 사정을 밝히는데 놀부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히었다.

‘역시 있는 놈 사정은 있는 년이 알아주는 구나!’

그리하여 놀부가 제 집이면서도 제 맘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뒤로 할 적에 올려다본 초저녁 달도 꼭 콩쥐 얼굴 같기만 했다지.

‘고년 참 곱기도 하지. 내 얼른 돈을 마련해 이 집 찾고 고년도 꿀꺽 삼키리라!’

이 놀부는 돈 독이 올라 벌개진 눈알을 뒤룩뒤룩 굴려가며 돈 구하러 뛰어갔다.

한편 놀부 배웅을 마친 콩쥐는 서둘러 곱게 화장을 하더니, 거울 앞에 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는 것이었다. 핸드백을 집어 들었다 내려놓았다 하던 콩쥐, 결심한 듯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혼자 꼭 장례식장에 가야 되느냐, 안 가면 안 되느냐, 통사정을 하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당장 가라! 불호령이 떨어진다.

“모르면 압구정 사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란 말이닷!”

남편 분부가 이건 뭐 염라대왕 명보다 지엄하니, 한숨 쉬던 콩쥐,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 가긴 갔으나, 콩쥐 마음이 심란하기 그지없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 일찍 여의고 계모 슬하에서 나무 호미 쥐고 밭 매고, 구멍 난 독에 물 붓기만 하다 어느 날인가 나랏일 하는 높은 분이 칠칠맞게 냇가에 흘리고 온 신발 한 짝을 주워 와서는 “이 신이 네 신이 맞느냐?” 하기에 그렇다 하니 “네가 정녕 내 짝이로다” 하기에 그날로 나랏일 하는 높은 분의 각시가 된 사람이 바로 콩쥐가 아니더냐. 배움이라고는 고작해야 밭 매고 물 긷는 것뿐이니, 이 콩쥐 묵념을 해야 하나, 절을 해야 하나, 묵념은 어찌하고, 절은 또 어찌하나, 온통 모르고 온통 헷갈리는 것뿐이로다.

하여 남편 분부대로 압구정 사모님은 언제 오시나,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데 과연 압구정 사모님이 이리 봐도 교양, 저리 봐도 품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저 사모님 하는 대로만 따라하여 내 오늘은 만천하에 나의 교양과 품위를 뽐내리라, 콩쥐가 얼른 압구정 사

모님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이 압구정 사모님 하는 짓이 암만 봐도 요상하다. 분향소로 들어서며 문설주에 이마를 부딪친다. 퍽, 소리가 나는 것이 무지 아프련만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콩쥐도 두 눈 질끈 감고 퍽, 소리 나게 문설주에 이마를 부딪치고 서둘러 압구정 사모님 뒤를 쫓아갔다. 이제 압구정 사모님이 상주에게 절을 할 차례인데 이 사모님 하는 짓이 점점 더 가관일세! 절을 하며 방귀를 뀌는 것이 아닌가! 드디어 콩쥐 차례가 되어 콩쥐도 상주와 절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디 방귀가 내 맘대로 뀌어지나? 이러다 절도 제대로 못하면 어쩌나, 급한 마음에 우지끈 지끈 지끈! 괄약근에 힘을 꽉 주자 뿌지직~ 소리와 함께 고약한 냄새가 천지에 진동하니, 콩쥐 앞에 있던 상주뿐만 아니라 모여 있던 사람들 모두 코를 싸쥐며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다.

교양을 뽐내기는커녕 망신, 망신, 개망신만 당한 콩쥐, 그래도 하소연할 데라고는 미우나 고우나 이복동생밖에 없으니 똥 싸지른 옷을 입고 팥쥐한테로 달려갔다.

팥쥐란 년은 언니를 위하는 척, 똥 싸지른 옷도 빨아 널고 따끈따끈 김나는 쌍화차도 건네주지만 이게 다 겉으로만 베푸는 친절이요, 속으로는 이 바보가 오늘은 또 어떤 얼치기짓을 하고 다녔나, 비웃어줄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났지.

미주알고주알, 콩쥐가 망신, 망신, 개망신 당한 일을 털어놓으니 팥쥐란 년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다못해 오금이 다 저릴 정도인데, 콩쥐 입에서 별안간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흘러나오지 뭔가.

“그 말이 참말이유? 그래, 언니네 집주인이 그리 헐값에 그 큰 집을 판다는 말이지?”

콩쥐네 집주인이 헐값에 집을 팔려한다는 걸 알자마자 팥쥐 가슴이 두근두근, 콧구멍은 벌렁벌렁! 그래, 콩쥐를 서둘러 쫓아 보내고는 이 팥쥐, 온 집안을 들쑤셔 통장이며 금목걸이 금팔찌에 금이빨까지, 돈 되는 건 죄다 모아놓고 계산기를 두드려댔다. 허나 나오는 건 한숨뿐이로다. 아무리 헐값이라지만 팥쥐 재간으로는 어림없는 금액일세.

“돈아! 돈아! 돈아! 그 흔한 돈아! 권세 있는 집과 부잣집만 기어이 찾아가서 쓰다 쓰다 다 못 써서 은행에 넣어둔다 빌딩을 세운다, 자식

들 유학 보낸다, 그러고도 많이 남아 어디 돈 쓸 데 없나, 룸살롱이다 계집관광이다 부적절한 관계까지, 남아돌아 지랄인데 나하고는 무슨 원수가 졌느냐!"

이리 슬퍼하며 팥쥐가 무슨 수가 없나, 돌돌돌돌 잔머리를 굴려대는데, 켜놓은 컴퓨터 모니터가 깜빡깜빡, 팥쥐 맘을 아는 듯이 신호를 보내오는 것이었다.

맞다! 맞어! 네이버 지식인이 있었구나아~!

팥쥐란 년 얼른 컴퓨터 앞으로 뛰어가 네이버 지식인에 대고 물었다. 집을 사야하는데 급히 돈 구할 무슨 좋은 수가 없느냐는 팥쥐 질문에 참 얼토당토않은 멍멍이 소리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들만 시끄러운데, 그 중에서도 으뜸 멍멍이 소리에 으뜸 헛소리가 자꾸 자꾸 팥쥐 머릿속을 맴도는 건 또 어인 일인지.

팥쥐도 처음엔 무슨 미친 소리인가 싶었지만 댓글 읽고, 관련 기사 찾아보고, 한 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니, 멍멍이 소리가 이게, 이게 세상에 듣기 힘든 귀한 소리요, 돈 될 소리가 아닌가!

은행에 넣어둔 재산이 50억! 한 달 이자만 1400만원!

그런데도 서울역 노숙자들 사이에서 노숙을 하는 거지 부자라니!

부모 형제한테도 관심 없고, 여자한테도 흥미 없고, 세상 일에 아무 흥미가 없어 돈 가방 들쳐 메고 노숙하며 산다는 부자 거지라니!
옳거니, 바로 이거다!

그 길로 팥쥐, 돈 가방 든 돈 많은 거지 부자, 아니 부자 거지를 찾아 삶의 흥미 일깨워주고 돈 받아내겠다고 벼르며 한 달음에 서울역으로 달려갔다.

헐레벌떡, 팥쥐 뛰어가는데, 팥쥐처럼 헐레벌떡 뛰다 하루 아침에 인생이 바뀐 사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흥부가 아니렸다!

흥부로 말할 것 같으면, 형에게 금싸라기 땅 빼앗기고 여자까지 뺏긴 뒤에 전국을 떠돌며 노가다에 몸 쓰는 일만 하고 살다 불경기가 불어 닥치자 그나마도 못 해먹고 서울역으로 쫓겨와 노숙자들 틈에 끼여 겨우 겨우 밥이나 얻어 먹는 처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그 날도 흥부는 노숙자들 틈에 끼여 무료급

식을 받아와 찬밥 한 덩어리를 꾸역꾸역 목구멍에 밀어 넣고 있는데, 팔다리는 짧고 목만 긴 게 영락없이 자라마냥 생긴 양복쟁이가 와서는 이 놈 저 놈한테 한다는 말이,

"생명공학을 아시오?"

하니, 이 놈이 대꾸하는 소리가,

"그거 처음 듣는 소리인데 뭐 맛있는 음식이유?"

하니, 자라마냥 생긴 양복쟁이가 혀를 끌끌 차며,

"허허. 생명공학도 모른다면 현대인이 아니시구려. 그럼 생명연장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하니, 저 놈이 대꾸하는 소리가,

"그건 더 모르겠는데, 그거 대체 어디에 써 먹는 거유?"

하니, 자라마냥 생긴 양복쟁이 말이,

"허허. 이렇게 무식해서야 어디 오래 살 수나 있겠소?"

하니, 이 놈이 벌떡 일어서고, 저 놈이 주먹을 불끈 쥐며 자라마냥 생긴 양복쟁이를 둘러싸는데, 자칫하면 사람 죽일 판이었다. 그래, 흥부가 어떻게든 말려보겠다고 꾸역꾸역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니, 조금 전만해도 생명공학이 어쩌고 생명연장이 저쩌고 거들먹거리던 양복쟁이가 벌벌 떨며 "아이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요 앞 금칠한 빌딩 높은 곳에 살며 아침으로는 백두산에서 가져온 이슬만 마시고 저녁으로는 한라산에서 잡아온 싱싱한 토끼 간만 안주 삼아 술 드시는 우리 회장님 비서이온데, 우리 회장님 간이 나빠져서 오늘 내일 하는 판국이라 이렇게 간을 구하러 왔습지요. 제가 좀 유식하다하여 멀리하지 마시고 부디 불쌍히 여겨 간을 떼어주시면 평생 써도 써도 못 다 쓰고 죽을 돈으로 보상합지요." 두 손을 싹싹 비니, 이 놈도 내 간을 떼어가라, 저 놈도 내 간을 떼어가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다. 그 와중에 가장 나이 많고 가장 불쌍해 뵈는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벼락같이 외치는데, 그 말이 과연 들어줄 만하였다.

"뒤룩뒤룩 살찐 간, 부어터진 간, 구멍난 간, 씨커멓게 타들어 간, 온갖 간이 있지만은 딱 하나만 산다하니,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딱한 처지를 밝혀 제일 딱한 사람에게 간 떼어주고 횡재할 기회를 주세나!"

하여, 빌어먹고 한 데 자고, 쓰레기통 뒤지고, 자다 죽고 상한 밥 먹다 죽는 노숙자들이 서로 딱한 처지를 앞 다투어 밝히기 시작했다.

"여보시오, 세상 사람들! 이 내 딱한 사정 들어보게. 내 일찍부터 노름을 좋아하여 물려받은 땅 다 날리고 남은 거라고는 마누라 하나 남았는데, 하루는 노름판의 내 동무한테 마누라 팔고 노름 밑천 마련하려 했더니, 이 동무가 하는 말이 처녀도 아닌 남의 마누라를 사서 무엇하나 하기에, 백년가약을 맺기는 맺었으되 노름하느라 너무 바빠 단 한 번도 일을 치르지 못해 숫처녀로 남아있는 여자가 바로 내 마누라일세 하였지. 그랬더니 이 동무가 하는 말이 그 말을 어찌 믿누, 내 직접 확인해보고 돈을 줘도 준다기에 내 얼른 그러라고 했다가 마누라 잃고 노름판에서까지 쫓겨나 여기까지 흘러왔으니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딱한 처지가 있을까!"

"예끼, 이 사람아! 마누라 바람나 신세 망친 얘기라면 이 내 사연만큼 기구할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누라 얼굴이 어른어른 회사에서도 일이 안 잡히는 게 이거 무슨 큰일인가, 점심시간 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더니 다리가 넷인데 두 다리는 내 다리가 아니더라, 가슴이 뛰고 콧구멍이 막히는데 이 년놈들을 당장! 칼 들고 안방으로 달려가 아구구구- 휘둘렀지.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남자를 안 찌르고 내 마누라를 찔렀으니 망정이지 까딱 잘못해서 남자를 찔렀으면 지금까지 날마다 이놈 죽이고 저놈도 죽였을 것이니 그나마 위로를 삼지마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바람기 많은 아내 덕에 살인자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이보다 더 기구할까!"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저 놈이 사람 죽였다!"

"저 놈 잡아라!"

살인자를 잡겠다고 이놈 저놈 다 같이 뛰어가니 가뜩이나 난장판이 개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그래,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는 밟혀 죽을 판이어서 흥부도 덩달아 뛰었지. 한 놈이 뛰고 두 놈이 뛰고 열 명 스무 명이 뛰니까 나중에는 빌어먹고 한 데 자던 놈, 쓰레기통 뒤지던 놈, 상한 밥 먹다 죽을 놈, 모두 영문도 모르면서 덩달아 일어나 뛰기 시작하니 달리던 차들이 서고, 삽시간에 교통이 마비되니

"삐용~ 삐용~ 삐용~" 싸이렌이 울리고 경찰들이 튀어나왔지. 그 바람에 뛰던 사람들은 더 뛰고, 안 뛰던 사람들마저 헐레벌떡! 경찰한테 잡히면 안 되는 무슨 큰 죄 지은 죄인들마냥 뛰는데 흥부도 죽기 살기로 헐레벌떡!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왜 뛰어다녀? 그건 그렇고 네 놈 이름이 정녕 박흥부이더냐?"

"네이~!"

"참말 박흥부이더냐?"

"네이~!"

헐레벌떡 뛴다고 뛰었으나 원체 못 먹고 못 살아 저질체력인 까닭에 남들 안 잡힐 때 혼자 경찰한테 붙잡힌 흥부, 죄지은 것도 없으면서 파출소로 끌려오니 어찌나 무섭던지, 묻는 말에 그저 "네이!" 고개만 끄덕거렸으나 머리 허옇지 수염까지 허옇지 꼭 산신령같이 생긴 경찰이 자꾸 같은 말만 되풀이네그려.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이 정녕 네 땅이더냐?"

흥부 앞의 경찰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는 무슨 땅인지 흥부는 알지도 못하는 땅의 지번을 읊조리며 "땅도 많은 인간이 왜 이리 오래도록 세금을 내지 않았느냐!" 벼락같이 꾸중을 내리었다. 깜짝 놀란 흥부, 두 눈만 꿈뻑꿈뻑 했지. 그랬더니 이 경찰이 또 벼락같이 소리치며 흥부가 나라에 낼 세금을 안내도 너무 많이 안 냈다는 것이 아닌가? 당최 땅이란 것이 있기는 있으되 돈 나가는 땅이 아니고 못 볼 것만 보여주는 갈대밭일 뿐이건만 그 땅 때문에 못낸 재산세가 그리 많다니 이게 다 무슨 멍멍이 소리인가?

흥부는 눈만 꿈뻑이고, 산신령 같은 경찰은 이 땅이 네 땅이냐? 저 땅이 네 땅이냐? 묻고 묻고 또 묻더니 급기야는 흥부를 순찰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지.

"이 땅이 네 땅이냐?"

산신령 같은 경찰이 드디어 차를 세우고 흥부를 갈대만 무성한 곳으로 데려가는데, 가물가물, 뿌옇기만한 기억 속으로 쿵더쿵~~쿵더쿵~~쿵~더더더쿵쿵! 떡방아질 소리 들려왔다.

"맞소이다, 맞소이다! 이 땅이 바로 그 땅, 신통방통한 내 땅이 맞소

이다!"

흥부가 얼른 대답하니, 산신령 같은 경찰이,

"허허, 참으로 정직하도다! 자네처럼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아 마땅함이니라."

하며, 흥부를 바삐 차에 태우고 서둘러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달려가니 "돈방석 부동산"이 점점 가까워졌다. "돈방석 부동산"에 간 흥부, 그 길로 내미는 종이마다 이름 석 자를 휘갈겨 써주었더니, 그 득그득 돈다발이 가득 찬 가방들을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자네처럼 정직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한다면서 그 동안 몰라서 밀린 재산세까지 모두 내준다는 것이 아닌가!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더냐?"

산신령 같은 경찰이 묻는데, 이 많은 돈 가방들을 들고 다닐 생각을 하니 흥부 숨이 컥컥, 막혀왔다. 흥부가 눈만 꿈뻑꿈뻑, 어벙하게 서 있자니,

"허허, 순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도다. 자네처럼 순박한 사람은 복을 받아 마땅함이니라."

산신령 같은 경찰이 다시 순찰차에 흥부를 태우고는 "삐용~ 삐용~ 삐용~" 싸이렌 소리 요란히 울리며 "돈방석 저축은행"으로 달려갔지. 이게 이게 은행인가, 궁전인가? 흥부가 산신령 같은 경찰 앞세우고 "돈방석 저축은행"으로 들어가니 금테 두른 책상에 금테 두른 의자에 앉아 있던 지점장이 금테 두른 안경을 위로 추켜 올리며 뛰어와서는 흥부 앞에 얼른 금테 두른 종이들을 내밀었다. 흥부가 또 얼른 종이 몇 장에 이름 석 자 휘갈겨 써주고 돈 가방들을 넘겨주니, 여기서 "귀빈이시여!" 칭송하고, 저기서 "VVIP여!" 우러르며 극진히 대접하였다. 그날부터 흥부는 "돈방석 저축은행"의 귀빈이 되어 그저 한 달에 한 번 은행에 가서 돈 가방에 이자만 챙겨오면 되었는데, 한 달 이자만 1400만원이었다지, 아마.

그 뒤로 흥부는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 좋으련만 문제는 그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 이 말이다. 으리으리한 호텔에도 들어가 보고 야시시한 모텔에도 들어가 봤으나 워낙 한 데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반듯반듯 네모 반듯하고 향내 나는 방에서는 숨이 컥컥 막히고 잠이 오질

않았다. 할 수 없이 돈가방 들쳐 메고 다시 서울역으로 노숙자들 틈으로 잠을 자러 가지 않았더냐. 그래 부자가 된 뒤에도 언제나처럼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서울역에서 잠을 잤는데, 하루는 머리에 베고 잔 돈가방이 감쪽같이 사라졌구나!

돈이야 한 달 되면 자연히 또 생기지만은 사라진 돈 가방이 영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등짝에도 끈이 달리고 옆구리에도 끈이 달려 등에 매고 어깨에 걸기도 좋으려니와 베고 자기에는 아주 그만인 가방인지라 안 찾을 수가 없었다. 흥부는 곧장 산신령 같은 경찰에게 달려갔다. 과연 그냥 경찰이 아니라 산신령 같은 경찰이었다. 잠깐 자리를 비우는가 싶더니 어느새 산적 같이 생긴 놈을 잡아와 흥부 앞에 대령하며,

"이 가방이 정녕 네 가방이더냐?"

하니, 흥부가 얼른

"네이~!" 고개를 주억거렸지. 그랬더니 이 산신령 같은 경찰이 하는 말이,

"허허, 참으로 정직하도다! 복을 받아 마땅하도다!"

하며 흥부에게 돈 가방을 돌려주었는데 일이 그렇게 되려고 해서 그랬는지, 마침 전날 밤부터 파출소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던 취객이 번쩍 눈을 뜨고 아~ 돈다~ 돈다~ 머리가 돌고 세상이 돈다~ 머리를 휘저으며 제정신을 차리려 애쓰다가 돈 가방 들고 나가는 노숙자 사연을 듣게 되었지. 헌데 이 취객이 하필이면 기자였다나 뭐라나. 이 기자 득달같이 산신령 같은 경찰에게 달려들어 흥부 사연을 캐묻더니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냈지. 이리하여 흥부는 별안간 유명인사가 되었네그려!

헐레벌떡, 팥쥐가 찾아 가는 유명인사가 바로 이 흥부이니, 흥부는 오늘도 노숙자들 틈에 끼여 앉아 찬밥 한 덩어리에 세상 시름 모두 내려 놓고 있었지

"혹시 돈 가방 든 부자 거지, 아니, 거지 부자를 보셨소?"

급한 마음에 콧구멍 벌름벌름 입내 나는 날숨 쉬며 팥쥐가 만나는 노숙자마다 차례차례 물었더니, 앞에 접시 놓고 앉아있던 노숙자 왈,

"나는 눈이 뵈지 않는 봉사이니 부자 거지 아니라 대통령 거지가

와도 볼 줄 모르오.”

하는데, 쨍그랑~ 길 가던 행인이 동전 하나 던졌더라. 헌데 접시 밖으로 굴러 나온 그 동전을 이 봉사가 얼른 집어 들잖아?

“봉사라더니 동전은 어찌 그리 잘 보는가?”

“내가 봉사는 봉사이나 어디까지나 자원봉사로다가 대신 자리를 봐주고 있을 뿐이오. 진짜 봉사는 요 앞 번화가로 돈 긁으러 갔지.”

하니, 팥쥐가 귀가 막히고 코가 막혀 얼른 자리를 피하며 이번엔 옆 자리에 앉은 노숙자에게, “혹시 돈 가방 든 부자 거지, 아니 거지 부자를 보셨소?“ 라고 다시 물었지.

“뭐라구요? 잘 안 들리오.”

되레 소리치니 이번엔 귀머거리라

“돈 가방든 부자 거지를 보셨냐구요!”

“뭐라구요? 부자가 거지 돈 가방을 들고 튀었다구요? 거 참 거지같은 부자일세!”

딴소리만 해대는데 이 놈 저 놈이 다 딴소리에 능청이라, 어디 가서 돈 가방 든 부자 거지, 거지 부자를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이니라. 밤은 깊어 어두운데 성한 놈은 하나 없고 벙어리에 귀머거리에 노름꾼에 살인자에 냄새는 또 왜 이리 고약한지, 아무리 욕심 많은 팥쥐라지만 이제는 돈도 싫고 집도 싫고 다 싫다! 터벅터벅 왔던 길 돌아가는데,

“돈이라면 나도 써도 써도 다 못 쓸 만큼 많은 사람이니 그 돈은 저 귀머거리 주시고, 그 빵은 저 눈먼 봉사에게 주시구려.”

쨍~ 하고 어둠을 가르며 들리는 소리, 저 소리, 필시 돈 많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래 팥쥐가, 돈돈돈! 돈돈돈! 돈 소리 나는 곳으로 뛰어갔지.

과연 이리 봐도 돈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저리 봐도 돈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지꼴이나 정중앙에 “돈방석저축은행”이란 일곱 글자를 금박으로 박아 넣은 돈 가방을 가로로 베고 누워 이 곳이 천국이니 이보다 더 좋을 쏘냐!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는 사내가 있으니 정녕 팥쥐가 찾던 그 부자 거지요, 거지 부자로다.

“허허, 집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은 집 그거 어디다 쓰

는 거요? 집이란 무엇이냐? 부모 형제 함께 살며 내 새끼 웃음소리 흘러넘치는 곳일진대 내게 부모가 있나, 우애할 형제가 있나, 자식이 있나! 밥 세끼에 옷에 잠까지 해결하고 외로울 때 슬픔 나누는 벗까지 있으니 여기가 바로 내 집이요, 보금자리이지요."

"그래도 잠은 내 집에서 자야한다고 옛말에도 이르지 않습니까?" 팥쥐가 이 말 저 말 나중에는 옛말까지 갖다 대며 꼬여도 부자 거지, 아니 거지 부자 흥부는 집이라면 진저리를 치며 상대조차 안 해주니 팥쥐 애간장이 타들어갔다.

"부자 거지, 거지 부자, 천하에 그 이름 유명한 노숙자야! 그래, 겉보기엔 여기가 천하명당이요,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천국처럼 보이지만 진짜 보물은 내가 말하는 바로 그 높은 집이지! 진짜 보물을 대령해도 못 알아보니 이젠 나도 모르겠소!"

팥쥐가 길길이 화를 내니, 돈 가방 가로로 베고 누워 있던 흥부가 그 "진짜 보물" 소리에 벌떡 일어나 앉았지.

"보물이면 그럼 그 집에 금은보화라도 잔뜩 묻혀 있다는 소리요?"

"보물이면 뭐 금은보화밖에 없답니까? 그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집 꼭대기에 누워 사방을 둘러보면 어디서도 못 보는 진귀한 구경을 뵈어주는 신통방통한 집이란 말이다!"

진짜 보물에 신통방통하단 말을 들으니, 별안간 흥부 가슴이 두 쪽으로 쩍쩍~ 금이 갔다. 지난 날 갈대밭의 그 진귀한 구경이 떠올라 칼로 도려내듯 흥부 가슴이 쑤셔오는데, 이 팥쥐 왈,

"정 못 믿겠으면 가서 보면 될 것 아니유? 내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두 눈으로 직접 한 번 보란 말이외다. 만약 내 말이 참말이면, 부자 거지, 거지 부자, 세상에 유명한 당신이 그 집을 사서 나 살게 해주고, 만약 내 말이 거짓이면 내가 당신 마누라가 되겠소!"

내기를 하자는데, 흥부도 더는 거절 못하고 팥쥐를 따라 갔다.

그런데 이 팥쥐가 누군가? 내 것도 내 것이요,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여기는 욕심쟁이에 돌돌돌돌 잔머리 굴리는 데는 이골이 난 위인이라 가는 길에 얼른 콩쥐에게 전화를 걸어 "콩쥐, 콩쥐, 콩쥐, 이름만 들어도 얼쑤 좋은 우리 언니야! 중하고도 급한 일이 있으니 어여 내 집으로 건너 오시오!" 콩쥐를 집밖으로 꼬여 내니, 콩쥐 집엔 주인보다

팥쥐를 더 무서워하는 가사도우미밖에 안 남았지.

"이 집이 바로 그 집이요."

팥쥐가 콩쥐네로 흥부를 들이며 금칠한 방, 대리석 붙인 방, 꽃으로 꾸민 방 온갖 방을 보여준다, 가사도우미가 쌍화차, 우롱차, 홍차에 있는 놈만 마신다는 고양이똥 커피까지 대령하니, 한 데 자고 찬밥 먹다 죽고 서서 죽고 앉아 죽는 노숙자가 깜빡 넘어갈 만도 하련만, 어째 이 흥부는,

"그래, 진짜 보물은 언제 뵈어주는 것이요? 어디서도 못 보는 진귀한 구경을 뵈어주는 신통방통한 집이라더니 그 진귀한 구경은 어디 숨겨 놓았소?"

따지고, 조르고, 하품만 해대니, 팥쥐 발을 동동 구르다가 옳거니! 좋은 수가 있구나! 흥부 팔을 붙잡고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옥상으로 올라갔다. 높아도 너무 높다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꼭대기에 올라서니, 과연 진귀한 구경일세그려! 사방에서 바람은 불어오고, 권세 있는 놈이며 권세 있는 놈들만 모여 저희들끼리 세상을 들었다 놨다한다는 그 높은 빌딩까지 모두 발 아래 납작 엎드린 형상인데다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서울의 삼각산이 호위하듯 에워싸고 있으니 내가 바로 황제이니라! 할 만하나, 흥부는 모르는 세상이요, 알고 싶지도 않은 세상이라, 허허, 헛웃음 한 번 웃고 내려가려는데, 이 팥쥐 급한 전화를 받더니 흥부만 남겨놓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더랬지.
이거 이거 뭔 일이라냐? 흥부가 사방을 둘러보는데, 꿈이라면 제발 깨지 말아라! 꿈인지 생시인지, 꿈에 그리던 어머니가 눈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어머니!"

흥부 급히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흘리니, "까악!" 소리와 함께 번쩍하며 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그냥 정신이 없다.

"꺄악! 왜 이러세요? 놔주세요~!"

어머니인줄로만 알고 달려가 손을 잡았는데, 아 글쎄,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인이라. 흥부가 깜짝 놀라 뒤로 한 발 물러서며, 그 얼굴을 다시 살펴보니, 낯선 여인임엔 틀림없으나 그 이목구비며 풍기는 분위

기가 영락없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닮았지 뭔가.

"대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이름 석 자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되겠소?"

흥부가 넋이 나가 묻는데, 이 여인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걸음아 나 살려라, 줄행랑을 쳐버렸다.

"어머니이~!"

상심한 흥부, 털퍼덕 주저 앉아 목 놓아 어머니를 불러보나 어머니 닮은 여인은 간데없고 은은한 향내 속에 알알이 진주 구슬 박힌 구두 한 짝만이 외로이 누워 반짝반짝 눈 빛내며 흥부를 올려다보고 있었지.

"어머니이~!"

이 흥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구두 한 짝을 주워 어머니인듯 애지중지 만지다가 잠잘 때도 몸에서 떼지 않는 돈 가방에 고이 간수하였다.

"아니, 언니는 집에 왔다면서 또 어딜 갔다 오는 거유?"

콩쥐가 집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팥쥐가 눈 흘기며 쏘아붙였다. 그도 그럴 것이 금칠한 방, 대리석 붙인 방, 꽃으로 꾸민 방 온갖 방을 보여줘도 시큰둥하던 부자 거지, 아니 거지 부자가 옥상에선 그나마 하품이라도 안 하는 것이 마음이 동하는 것도 같았는데 콩쥐가 돌아 왔다는 가사도우미 전화 받고 급히 내려왔더니, 왔다는 콩쥐는 안 보이고 이거 괜히 일만 그르치는 것이 아닌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참이라, 콩쥐가 쌔근쌔근 날숨 내쉬며,

"아이고, 팥쥐야! 내가 너 있다는 소리 듣고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웬 거지인지 도사인지 부랑자인지가 내 손을 덥석 잡지 않겠니? 내가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따귀를 후려갈겼더니 어머니! 하며 달려드는데 어찌나 무섭고 두렵던지....."

하는데, 우르릉쾅쾅, 팥쥐 귀에 세상 무너지는 소리, 돈 달아나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이런 괘씸한 년! 저는 원님 꿰차고 높은 집에 높은 자리에서 호위호식하며 부러울 것 없이 살면서도 하나 있는 이복동생 재산 떼어줄 생각은 안 하는 위인이 이제는 내가 펴놓은 밥상에 침을 뱉는 구나!"

혹여 땀 뺌은 부자 거지, 거지 부자가 홧김에 침이나 뱉고 도망갔으면

어쩌나, 이 팥쥐 길길이 화를 내고는 발에 날개 달린 듯이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눈 뜨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진귀한 구경을 시켜주는 땅이라더니 그 말이 정녕 참말일세그려!"

허겁지겁 팥쥐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꼭대기로 달려 올라가니, 어찌된 일인지, 돈 가방 둘러멘 부자 거지, 아니 거지 부자가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에 둘러 싸여 허허허, 껄껄껄, 웃으며 팥쥐를 반기니, 으쓱으쓱, 팥쥐 어깨 절로 들썩이는구나!

"허허. 그렇다니까요. 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그러면 내 집에선 아줌마가 거저로 살고 대신 나는 이 옥상에서 살면 안 되겠소?"

이제는 팥쥐보다도 흥부가 더 몸이 달아올라서는 당장 콩쥐가 전세 들어 사는 집을 사겠다고 난리였다. 그래, 팥쥐가 "네이!" 고분고분 답하며 옥상에 텐트도 쳐주고, 밥 세끼도 실어 날라주고, 외로울 적에는 벗도 되어주겠다고 약조하니, 흥부가 그 길로 정중앙에 "돈방석저축은행"이란 일곱 자를 금박으로 박아 넣은 돈 가방을 보물인 듯 애지중지 껴안고는 돈 찾으러 뛰어갔다.

그 때부터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팥쥐가 놀부에게 전화 걸고, 집 살 테니 날 잡자 재촉하여 몇 날 몇 시에 흥부가 이르는 대로 "돈방석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지.

럴수 럴수 이럴 수가!

"아니 너는 흥부 아니냐?"

"아니 형님이 여긴 어인 일이요?"

놀부가 제 집 사겠다고 나선 팥쥐와 "돈방석 부동산"에 앉아 있는데, 흥부가 "삐용~ 삐용~삐용~" 싸이렌 소리 요란하게 울리며 허연 수염 길게 늘어뜨린 산신령 같은 경찰 앞세우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럼 형님이 바로 그 집 주인이었단 말이지요?"

"그렇다는데도 이놈이! 내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네 놈 두 눈으로 직접 보면 될 것 아니냐! 네 놈 들고 있는 그 돈 가방을 들고 내기를 하자, 이놈! 만약 내 말이 참말이면 네 놈 그 돈 가방을 내어놓아라!" 놀부가 이십년 전에 갈대밭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처럼 길길이 날뛰

며 내기를 하자 하나, 형의 말이라면 무조건 "네이~!" 소리만 할 줄 아는 흥부가 어인 일인지 팽, 하고 돌아앉았다.

"흥부, 흥부, 이름만 들어도 얼쑤 좋은 내 동생 흥부야! 아직도 예전 일로 내게 삐져 있는 것이냐? 형을 보고 돌아앉기는 어인 일이며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놀부가 어르고 달래어도 흥부가 벙어리 흉내만 내니, 이건 뭐 놀부보다 팥쥐가 더 애간장이 타들어갔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계약이고 뭐고 다 틀어질 판이라, 이 팥쥐 놀부만 따로 불러내어 요러쿵저러쿵, 속닥속닥, 있는 꾀, 없는 잔머리 다 끌어내어 일단 계약부터 하고, 돈 먼저 받아 챙기라고 놀부를 꼬드겼지. 듣고 보니, 급한 놈이 우물 판다고 팥쥐 말이 그거 틀린 말 하나 없지 않은가?

바삐 제 자리로 돌아가 놀부가 땅문서다 계약서다 종이 몇 장 건네주고, 흥부가 제 이름 석자 휘갈겨 쓰니, 그 때부터 놀부 집은 흥부 집이 되고, 흥부 집엔 콩쥐 대신 팥쥐가 공짜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삐용~ 삐용~ 삐용~"

흥부에게 집 값 받은 놀부는 허옇게 수염 늘어뜨린 산신령 같은 경찰이 타고 온 순찰차 트렁크에 그득그득 돈 실고는 빚 갚으러 달려가는데, 이 산신령 같은 경찰이 자꾸 놀부 귀에 대고 설탕보다 더 단내 나는 말을 늘어놓았다.

"이 돈으로 은행 빚이다 대출금이다 갚아봤자, 갚고 나면 땡전 한 푼 안 남을 터이니 그 땐 집도 없이 어디 가서 살며 무엇으로 먹고 살겠소?"

과연 틀린 말은 아닌 지라, 이 놀부 산신령 같은 경찰이 하자는 대로 "돈방석부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이 빚 저 빚 숨통 죄어오는 대출금 갚자고 제 동생한테 집 팔고 받은 돈을 또 몽땅 땅으로 바꿔버렸지.

"어머니~ 어머니~"

한편 형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주인이 된 흥부는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하고 눈높이 맞춘 옥상에서 틈만 나면 돈 가방 속에 고이 간직해두었던 콩쥐 신발 한 짝을 꺼내들고 "어머니~"를 부르며 딱 한 번 봤으나 꿈 속에까지 찾아오는 콩쥐를 그리워하는데, 팥쥐 년은

흥부가 “어머니~”를 찾을 때마다 이거, 이거, 이 부자 거지가 정에 굶주렸구나! 옳거니, 내 저 정에 굶주린 애정결핍 부자 거지, 아니 거지 부자에게 정을 듬뿍 주어 아직까지 “돈방석저축은행”에 남아 있는 그 많은 돈을 한 입에 삼키리라, 벼르며 아슬아슬해도 너무 아슬아슬하여 차마 눈길도 주고 싶지 않은 미니스커트에 축 늘어져 에잇! 욕이 나와도 예의상 쳐다봐주는 젖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푹 파인 쫄티를 입고 끼니 때마다 흥부 밥을 차려 날랐더라나 뭐라나.

지지배배~ 지지배배~

날이 가고 밤이 가고 꽃피는 춘삼월은 다가오니, 흥부 맘에 이제 오실까, 저제 나타날까, 꿈속에서도 찾아 헤매던 신발 주인이 오늘은 그 고운 얼굴 한 번 보여주실 것도 같더니만, 덜컥, 옥상 문이 열렸다.

“아이고, 어머니!”

흥부가 님이신줄 알고 달려갔더니,

“아이고, 흥부야!”

오시라는 님은 안 오고 놀부만 튀어나와 흥부를 얼싸 안으며,

“본시 땅은 나도 있고 너도 있었건만, 나는 다 날린 땅을 어찌하여 너는 아직까지 갖고 있으며 이리 부자로 살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래, 거짓말 할 줄도 모르고 잔머리 굴릴 줄도 모르는 이 흥부, 부자 된 사연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부자 된 사연을 말할 것 같으면, 서울역 노숙자들 틈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꼭 자라처럼 생긴 양복쟁이가 찾아와서 간 내놔라 하기에 어찌저찌 모두 달리기를 하게 되었는데 여차저차해서 수염 허옇게 늘어뜨린 산신령처럼 생긴 경찰이 와서는 이 땅이 정녕 네 땅이냐 하기에 고분고분 대답하니 한 달에 1400만원씩 꼬박 꼬박 생겨나는 요술 돈 가방을 주는데, 하루는 웬 여자가 찾아와 진귀한 구경을 뵈어주는 집이 있다기에 왔더니 참말로 곱디고운 꿈같은 구경을 뵈어주기에 그 진귀한 구경을 한 번이나마 더 보겠다고 내 아직까지 이곳에 살고 있습지요!”

하니, 이 놀부 산신령 같은 경찰이란 말에 귀가 번쩍 뜨이는 것이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산신령 같은 경찰 꼬임에 넘어가 “돈방석부동산”에 집 판 돈을 모두 땅으로 바꾸었다가 말만 재개발, 재건축이

지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땅 때문에 쫄딱 망해 당장 서울역 노숙자들 틈으로 기어들어가게 생겼으니, 산신령 같은 경찰이란 말에,

"내 이놈을 당장!"

이 놀부, 어금니를 득득 갈며 산신령 같은 경찰 잡으러 서울역으로 달려갔다. 헐레벌떡 놀부가 서울역으로 달려가니, 과연 흥부 말대로 벙어리 흉내 내는 귀머거리에, 귀머거리 흉내 내는 벙어리에 바람나 아내 버린 놈, 아내가 바람 피워 길바닥으로 쫓겨난 놈,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 뛰쳐나온 놈, 이 놈 저 놈이 모두 달리고 있지 뭔가. 하여 아무 놈이나 붙잡고 왜 뛰나? 하고 물었더니, 뛰기만 잘 뛰어 일등을 하기만 하면 자라같이 생긴 양복쟁이가 평생 쓰다 쓰다 못 쓰고 죽을 돈을 준단다!

이리하여 놀부는 오늘도 서울역 노숙자들 틈에 끼여 찬밥 한 덩이 목구멍에 밀어 넣고는 자라 닮은 양복쟁이만 나타났다하면 그저 죽어라 뛰고 뛰고 또 뛰고, 흥부는 오늘도 님 그리며 콩쥐가 남긴 신발 한 짝 애지중지할 적에 바쁜 이는 오직 하루 세 끼 흥부 밥 해다 나르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팥쥐뿐이니, 팥쥐 남편이 생각할 적에 한 집안의 가장인 자신은 출근할 때에도 아침밥은커녕 찬밥 한 덩어리 못 얻어먹는 판에 저 높은 옥상 꼭대기에 사는 저 거지는 무슨 상팔자인가, 세상 참 뒤죽박죽이더라!

이명랑 : 소설가, 1997년 ≪새로운≫ 제1호를 통해 등단
1998년 장편소설 〈꽃을 던지고 싶다〉 출간와 다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찰칵총각네 구멍난 커튼

임정진

1.

가위는 살짝 서랍 속에서 나왔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자랑하고 싶었지요. 두 날이 반짝반짝, 정말 멋져보였는데 그동안 통 자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철컥철컥 걸어가면서 무얼 잘라볼까 두리번거렸어요.

"뭐를 잘라볼까? 유리? 음 저건 너무 딱딱하겠지?"

가위는 드디어 맘에 딱 드는 길다란 헝겊을 발견했어요. 헝겊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은 붉고 한쪽은 까맸어요. 가위는 요리조리 헝겊을 잘라 멋진 구멍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암실 커튼에 하트무늬. 동그란 무늬, 가오리 무늬, 별 무늬로 구멍이 뻥뻥 뚫어진 걸 보고 찰칵총각은 기절할 뻔했어요.

"이거 누가 그런거야?"

방을 어둡게 만들고 일을 하려면 커튼은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찰칵 총각은 속상해서 커튼을 끌어안았어요.

"널 어쩌면 좋으냐. 다 망가졌잖아."

찰칵총각은 가난해서 새로운 커튼을 살 돈이 없었어요. 커튼을 창에서 떼려는데, 구름 속에 있던 해가 반짝 구멍 사이로 빛을 쏘아댔어

요. 커튼의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자 아주 멋진 그림처럼 보였어요.

"오오오, 이건 괜찮은데?"

찰칵총각은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구멍난 커튼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힘으로 커튼을 새로 달기로 마음 먹었어요.

"어딘가 오래된 헝겊이 있을 거야."

찰칵총각은 할머니가 쓰시던 창고를 뒤지고 또 뒤졌어요.

"이건 뭐야? 인두잖아? 어렵쇼? 다리미도 있고. 이 막대기는? 눈금이 있는데. 아아~알았다. 옛날 자."

찰칵총각은 헝겊을 찾는 것도 잊어버릴 뻔했어요. 재미난 물건들이 자꾸만 나왔어요. 실패 여러 개와 골무, 바늘쌈지와 골무, 뜨개바늘과 털실, 찌그러진 냄비와 연필깍기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어릴 적에 입었던 멜빵 바지도 찾아냈어요.

"앗, 찾았다. 먹물로 물들인 헝겊이다."

커튼을 수리하기에 딱 맞는 헝겊을 찾아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작은 바구니에는 바느질 도구들도 쑤셔 담았어요. 곧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창고 구석 바구니에서 찾아낸 헝겊은 더러웠어요. 찰칵총각은 헝겊에 앉은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레 빨았어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잘 헹구었어요. 옥상에 올라가 툭툭 턴 헝겊을 빨랫줄에 널어 잘 말렸어요. 바람에 잘 마른 헝겊에는 구깃구깃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다리미야. 이리 와 봐라."

찰칵총각은 다리미를 뜨겁게 달군 다음, 헝겊을 다리기 시작하였어요.

'띠링띠링 띠링띠링'

그 때 마침, 누군가 사진관에 찾아왔어요.

찰칵 총각은 손님과 이야기하느라 다리미는 잠시 잊어버렸어요. 뜨거워진 다리미는 신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기운이 났으니까요. 다리미는 슉슉 칙칙 수증기를 뿜으며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먹색 헝겊을 착착 접으면서 다림질 했어요.

헝겊에 반듯한 금을 여러 개 그어주었어요. 그러다가 헝겊 가운데서서 이리저리 구경도 했어요. 다리미가 너무 뜨거워 헝겊에서는 이상

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죠?”

“으악---다리미.”

두 사람은 허겁지겁 다리미를 헝겊에서 떼어냈어요. 헝겊에는 누렇게 다리미 자국이 나버렸어요.

“이 헝겊으로 커튼을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찰칵총각이 헝겊을 펼치자 그만 헝겊은 찌익 찢어졌어요. 찰칵총각 얼굴은 누렇게 변했어요. 곱슬머리 아가씨도 찢어진 헝겊을 보고 같이 한숨을 쉬었어요.

“커튼 만들려면 좀 복잡하겠는걸요. 바느질 잘 하세요?”

“실하고 바늘은 있는데. 어휴. 일단 여권사진부터 찍어드릴게요.”

실과 바늘은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된 것을 알았어요. 찰칵총각이 고민하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재빨리 실은 바늘 구멍에 머리를 들이 밀었지요.

“기다릴 거 뭐 있어? 우리가 꿰매주자.”

“좋았어. 오랜만에 실력을 보여주자.”

실과 바늘은 힘을 합쳐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아주 재빠른 솜씨였어요. 드문드문 박다가 촘촘하게 박기도 하고 새발처럼 모양을 내기도 했어요. 찢어진 헝겊을 총총총 꿰매고 둘둘 말아서 또 꿰매어 방망이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꿰맬 것이 없는지 두리번거리다가 의자에 걸쳐져 있는 옷을 보았어요.

“이거 봐. 여기저기 구멍이 났다.”

“우리가 구멍을 다 막아주자.”

실과 바늘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목선과 소매부리를 꼼꼼하게 바느질해서 구멍을 없애 버렸어요.

2.

자와 골무는 바구니 안에서 기지개를 켰어요.

“쯧쯧쯧,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자는 몸을 꺼떡꺼떡거리면서 친구들을 흉보았어요. 키 작은 골무는

자 위에 간신히 올라앉아 친구들을 내려다보았어요.

3.

“저 친구들은 너무 어려서 그래.”

골무는 키는 제일 작았지만 제일 어른이었어요. 할 일이 없어진 다리미는 슬금슬금 움직여 그 무거운 몸으로 화분에 핀 작은 꽃 위에 올라앉았어요. 예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인두는 잠자코 있다가 궁금해서 바구니 틈새로 머리를 밀어냈어요. 다른 친구들이 창고에서 나온 후 말썽 부리는 것을 다 보았어요. 인두도 뭐든지 하고 싶었어요. 인두 역시 너무 오랫동안 창고에서 숨죽이고 있었으니까요.

‘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인두는 사진을 찍으려는 아가씨의 옷깃이 구겨진 것을 보았어요. 인두는 있는 힘을 다해서 구겨진 옷깃을 향해 콕콕콕 달려갔어요.

‘툭’

인두는 그만 책상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찰칵 아저씨와 손님 아가씨는 놀라서 인두를 바라보았어요. 찰칵아저씨와 곱슬머리 아가씨는 서로 먼저 인두를 집어올리려 했어요. 급하게 달려온 두 사람의 머리는 ‘쾅 하고 부딪혔어요.

“아야.”

곱슬머리 아가씨는 소리를 질렀어요.

“윽”

찰칵총각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인두는 찰칵아저씨의 허벅지를 콕 찔렀어요. 빨리 일어나라는 표시였어요. 바늘도 정신차리라고 찰칵아저씨의 새끼 손가락 끝을 폭 찔렀어요.

“으앗, 앗 따가. 으악. 피다. 피.”

찰칵총각은 펄떡 일어나 팔짝팔짝 뛰었어요.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에요.”

곱슬머리 아가씨는 헝겊 가장자리를 조금 잘라 피가 난 손가락 끝에 돌돌 감아주었어요. 그리고 실을 잘라 헝겊이 풀어지지 않게 잘 묶었어요. 찰칵총각은 손가락이 다 나은 듯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진은 내일 찾으러 오세요. 아, 아니다. 암실커튼을 다시 만들어

야 돼서요. 조금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곱슬머리 아가씨는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어요.

“커튼을 만들 줄 아세요? 헝겊도 다 찢어졌잖아요.”

“걱정이네요. 바느질 도구들이 다 말썽꾸러기라서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야 제 사진이 빨리 나올테니까요.”

곱슬머리 아가씨는 헝겊 뭉둥이에 꿰매진 실을 가위로 잘라냈어요. 자를 꺼내 창문 길이를 재었어요. 그리고 남은 헝겊의 길이도 재었어요. 구멍이 뚫린 커튼 길이도 재었어요. 찰칵총각은 옆에서 헝겊도 잡아주며 도왔어요.

“멋진 가위야. 이리 와 봐. 이걸 똑바로 잘 자를 수 있지?”

곱슬머리 아가씨가 시키는대로 가위는 헝겊을 멋지게 잘라냈어요.

“정말 훌륭한 가위네. 고마워.”

이제 다시 바느질을 할 차례가 되었어요.

4.

“야무진 골무야. 이리와. 내 손가락을 보호해줘.”

골무는 수줍어하면서 곱슬머리 아가씨의 둘째 손가락을 폭 껴안았어요.

“넌 윤기나고 튼튼한 실이지? 넌 매끄러운 똘똘한 바늘이고. 날 도와줘.”

실과 바늘은 곱슬머리 아가씨를 도와서 열심히 바느질을 했어요. 구멍난 커튼은 꼼꼼하게 다시 메꾸어졌어요.

“우와, 다 됐다. 정말 멋져요.”

찰칵총각은 매우 기뻐했어요.

암실커튼이 다시 빛을 막아 줄 수 있으니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친절한 곱슬머리 아가씨는 다리미를 달구었어요. 새로 만든 커튼을 살짝 다리자 커튼은 더 멋지게 보였어요. 구멍을 다시 살려낸 티셔츠 목선과 소매부리는 따근한 인두로 살짝 눌러주었어요. 티셔츠는 다시

말끔해졌어요.

찰칵총각네 사진관에서는 이제 곱슬머리 아가씨도 같이 일하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찢어진 옷이나 고치고 싶은 옷을 들고 찾아왔어요. 반짇고리 속의 바느질 친구들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일을 했어요. 곱슬머리 아가씨가 부탁하는 대로 움직이면 멋진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제일 멋지지," "아냐. 내가 더 멋지지."

말썽꾸러기들은 이제 서로서로 더 멋진 일을 해냈다고 자랑했어요. 곱슬머리 아가씨는 매일매일 바느질 친구들을 칭찬했어요.

"너희들 솜씨 덕에 바느질이 잘 되었어."

하지만 찰칵총각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바느질 솜씨는 세상에서 제일이에요."

임정진 : 동화작가, 〈해모수 파크를 탈출하라〉 外 다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학생문단 | 시

詩

김삼주
김상률
김영길
김옥자
노정숙
박민서
서보희
서진호
안진영
유원희
이인성
이일지
이천호
정혜선
조인숙
최명희
최해자

자반고등어

김삼주

매달아 놓을 수 없는 줄이 있다
그녀의 속살 열리면
말랑말랑 그리움
얼었던 냉동껍질도 철퍼덕 녹아
고드름 되어 처연하게 울부짖는 소리
냉장고 문짝이 삐걱거린다

비틀어진 손아귀 살살 애무하면
썰물처럼 시원하게 속을 다 내놓고
너는 푸른 바다로 빠지고 싶은 회귀를 꿈꾸는가
꽁꽁 동여맨 육신
흠씬 두드려 맞기나 하더라도
으깨어진 몸, 어긋난 말씨로
또 다른 생을 바라보며 춤을 춘다

밀물되어 돌아갈 곳이 없는데
섞이지 않은 회상은 투명하다
하늘의 밑바닥은 바다
비릿한 냄새가 흥건히 베어나면
황홀경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움직일 수 없다

뜨거워진 프라이팬에 철퍼덕 돌아앉은 자태
온몸에 오른 여드름 방울
지글지글 터트려보는 상차림이다
가끔 밀어붙이는 색소폰소리
토막 난 몸, 마지막 몸부림에 잔뼈가 굵다
뼛속까지 녹아내린 질긴 정
단꿈을 꾸고 난 후유증이다
좁은 길 따라 곱씹혀 낙루할 수 없는
젓가락 끝에서 외줄을 탄다

속살에 수포로 피어나는 안개꽃
순백의 사랑
마주보는 가슴으로 여로 다독거리며
간밤의 달빛, 달콤한 꿈
노랗게 잘 익었다

화평선 外 1편

김상률

갯벌은 갯지렁이 써레질 하는 몸짓으로 가득하다
갯벌 속에서 혀로 농을 치던 청둥오리
갯지렁이 등지고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규격화된 봉투를 찢고 나오는 가정의 패잔병들
쓰레기 실은 덤프트럭은
갯벌에 육중한 체중들을 내려놓는다
불도저 빳빳한 발자국이
그 패잔병 머리를 다시 덮는다
거기에서도 코스모스 씨앗들은 촉수를 내린다

채로 걸러놓은 듯 고슬한 흙살이
코스모스 여린 뿌리를 받쳐준다
쓰레기장이 된 뻘밭 일백만평 화평선을 이룬다
꽃 대궁이 따로 없다
허허,
꽃 벌판이다
난 쓰레기 매립지가 된 갯벌도 잠시 잊고
꽃멀미를 일으키며 팡팡 사진을 찍어댄다

‖ 시 ‖

산다는 것

폭염 한 섬 짊어지고 수로공사장을 간다
강물은 수장룡 등에 실려가 버렸나
물 한 방울 흔적도 없다
수도 배관 수평을 잡고 물길을 열면
콸콸 물 달리는 소리
잠든 여우를 깨운다
굴삭기와 불도저는 서로 눈짓하며
사막의 모래를 물어뜯는다
야행을 해체당한 여우가 기어나온다
꽁꽁 감춰 두었던 꼬리를
노출시키고야만 전갈도
전갈 새끼도 줄줄이 기어나온다
여우는 그 틈에도 두 귀를 쫑긋 세워
전갈 꼬리를 물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인다
전갈은 한사코 모래 틈으로 머리를 쳐박는다
여우는 한사코 꼬리를 물어 전갈을 꺼낸다
난 말없이 시동을 끈다

볕 도둑 外 1편

김영길

코스모스 두 번 피었다
억새와 갈대도
이름을 섞는다
수로에 핀 고마리꽃은
더더욱 소란스럽다
다 맺기 위한 설렘이다
산길을 걷다가
떨어지는 도토리 소리
가을 볕 도둑 같다
다 맺기 위한 반란이다
구절초, 개미취, 쑥부쟁이
다르다 할 수 없다
맺는 것이다
저녁노을은 한 술 더 뜬다
가을은 피는 게 아니고
맺는 것이다

‖ 시 ‖

강구안 강 씨

사십칠 년간 톱 만드는 강 씨
세찬 바닷바람 불어 닥쳐도
자리 떠나본 적 없다
통영이 아직 입에 설어
충무라 했다가 다시 통영이라 했다
도구라야 톱 만들고 칼 가는
덤으로 끼고 다니는 것은 장기판 하나
칼이나 가위 갈아주면 삼천 원
충무 나전칠기 소반 판 다듬이는
강 씨가 만든 톱이어야 했다
이쁜 색시는 지금 없다
무뎌진 톱날 윤기 더하듯
오늘은 한복집 여수 댁 가위 갈러왔다

충무김밥이 통영김밥이 될 수 없는
평생 톱날 칼날 고르기만 하는
세상이 변하고 봐 주는 이 없어도
김밥도 회도 그가 갈은 칼이어야 하는
거북선과 갈매기 있는 남해포구
파도는 무심히 강구안을 톱질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등대와 함께
공중변소 앞 쭈그리고 앉아있는
팔순의 강 씨

* 강구안 : 통영시 문화마당

그녀의 방

김옥자

날마다 한남자의 가슴에 총을 겨눈다

보름차이로 아빠와 상면도 못해본 갓난아이
파란입술이 문풍지처럼 파르르 떨린다
아기업고 일주일 째 발품 팔아 계약한 주인집 옆에 방 하나 달린 가게

이틀 후 ,
애들이 많아 시끄러울 것 같다는 이유로 해약을 요구해온 집주인
새 계약자란에서 발견한 낯익은 이름,
늙은 어미의 한숨 같은 안개가 그녀를 에워싼다
이제 한 발자욱도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
배불러 낳지도 않은 희망이란 놈을 찾기 위해
배아파 낳은 아이를 잠시 부려놓는다

그녀 천천히 벽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녀 벽이 된다
천정이 자꾸만 팽이처럼 뱅글뱅글 돈다
아찔하도록 높은 벽,
두려움에 눈물을 흘린다
비명도 없는 벽의 눈물, 날쌘 바람이 먹어치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귓가를 맴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살아 남기 위해 습기를 핥아먹는다

조금씩 배가 불러온다

툭, 녹슨 총이 아래로 떨어진다

마른 곰팡이 꽃 하나, 힘겹게 일어선다

‖ 시 ‖

늑대, 제 피를 마시다 外 1편

노정숙

에스키모인들이
피 묻은 얼음칼을 눈밭에 박아둔다
그러면
배고픈 늑대는 달콤한 피냄새에 이끌려
얼음칼을 핥는다
감질나게 맛있어 아,
날카로운 칼날이 드러날 때까지
죽어라 핥고
또 핥는다
어느새 따스한 피,
제 피가 목을 타고 넘어간다
목덜미가 축축해 오네
이제 멈춰야 해
열락을 끝내야 해
그러나
너덜너덜 뿌리를 드러낸 혀를
거두어들일 수 없네
기어이 제 피에 취하네
귓바퀴에 매달리던 달달한 목소리
뜨거워
삽시에 흥건해지던 그 눈빛
오래된 기억들이 가물거리네

천년살이

쇠기둥에 받힌 겨드랑이 쓰리고
주렁주렁 매달린 링거병 너무 무거워
비 바람 폭설 말없이 읽으며
천년을 훌쩍 살아낸 용문사 은행나무
살도 피고 다 버리고
이제는
아주 눕고 싶은데
천년을 산 노인에게
무엇을 더
어이 하라고,

‖ 시 ‖

물매를 맞다 外 1편

박민서

정도리 구계동에 가보니
해변엔 온통 까만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뒤도 없는 작고 단단한 갯돌들이
스스로 푸른 머리를 쳐들고
파도를 맞고 있었습니다.
기꺼이 물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구르고 밟힐수록 더 빛이 나는
갯돌들의 아우성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물매를 맞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독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진 머리가 둥근 모양이 될 때까지
둥근 머리가 등이 될 때까지
몇 만 번의 물매를 맞아야 저렇게 빛이 날까요
가만히 보니 갯벌들은 저마다 하나씩 안테나를 달고
별들과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몰매를 맞으며 귀가 열릴까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갯돌들의 높고 푸른 아우성을 밟고
한참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불빛만 있어도 숨을 쉴 수 있다

한낮의 무료함이 잠들어 있는 팩스를 깨운다
까만 제복 속에 잠적해있던 한 사내가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몸속에 들끓는 뜨거운 전류를 안고
사내는 저편에서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는 중이다
아주 뜨겁거나 때론 너무 차가워서
쉬이 접근할 수 없는 사내를
동공에 전원을 켜고 예의 주시한다
빛과 어둠을 한 몸에 지닌
저 사내에겐 0과1 두 개의 숫자만 있다
두 숫자 사이에 수없이 던져진 손바닥 지문을 찍어내어
몸 밖으로 쏟아내고 입술을 오물거린다
내장을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사내 곁을 떠날 수는 없다
순간 얼굴이 다 들어 있는 눈이 환하다
언제든 난 똑같이 쓸 수밖에 없다
푸른 메시지를 들고 질주해오는 사내의 체온
파랗게 눈을 뜬 전언에 귀를 기울이면
나는 어느새 사내에게 동화되어간다
누군가 저쪽에서 종료 버튼을 누른다 해도
사내와 나의 교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린 불빛만 있어도 숨을 쉴 수 있다

‖ 시 ‖

범인의 고백

서보희

동기는 새털처럼 가벼웠다
단순하게 즐거움을 찾아서
목표물을 향해 비웃음을 흘린다.
개 같은 하이에나 눈알이
침을 흘리며 먹잇감을 노려본다.
인간 거죽을 뒤집어쓰고
땡전 한 푼에 목숨 건 사냥
주동자는 기뻐하고
희생양은 숨죽여 고요하다
어둠속 울려 퍼진 자정 종소리
착각과 물욕에 눈먼 짐승 한 마리
시간을 내어 팔기 바쁘다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린
당신의 심장
두근대며 달음박치는
살아있는 고동소리가
인간으로써
그리해야 하는가?
그만 탈을 벗어 던져라!

자신을 타일러 보지만
시궁창에 빠져 버린 채
쳇바퀴 안에서 달음박친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애증의 씨앗
뒤돌아보면
한숨 뿐 ……
철 없는 한 생애(生涯).

‖ 시 ‖

시간이 가고 또 한 구의 시신이 된 시간이 가고 外 1편

서진호

나를 아나요?
미안해요. 제가 아는 누군가와 닮았네요. 착각했네요.
어디가 그렇게 닮았나요?
눈이 많이 닮았군요.
이 눈은 제 눈인걸요.
그래요. 그 눈 위의 눈꺼풀, 낯설군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모양으로 움직이지 않는군요.
그럼 나를 모르나요?
몰라요. 나는 당신을 몰라요. 당신은 그저, 그 사람과 목소리가 참 같군요. 그 사람의 말투로 말하지 않는 그 목소리가.
이 목소리는 제 목소리인걸요.
그래요. 그 목소리,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을 만들지 않는 목소리.
그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죽었어요.
정말요?
죽었어요.
확실한가요?
제가 시체를 확인했어요.

확실히 확인했나요?
그럼요. 여기 있잖아요. 낯선 눈꺼풀 아래에. 낯선 단어들 속에
죽어 있잖아요.
난 살아있는걸요.
그래요. 살아있네요.
그 사람은 살아있나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사람은 어디 있나요?
보고 싶어요.
보세요.
보고 싶어요.
보세요. 여길 보세요.
보고 싶어요.

너는 이제 없지
낯선 곡선으로 찡그리는 저 눈꺼풀 뒤로
낯선 글자들로 둘러싸인 저 말 속으로 도망가 버렸으니
그러지 말고 이리 나와
나야.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왜 나를 모른 척 하니

‖ 시 ‖

Watching the movie
Watching the music

문 닫힌 방에서 영화를 시청해요. 모건 프리먼이 어두운 대형도서관을 훑어보는 중이죠.
도서관은 고요하고 한 구석에서는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가 흘러나와 그곳 전체에 깔리고 있어요.
방 밖으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리네요.
그는 영화가 아닌, G선상의 아리아를 듣는다고 착각하며 이곳을 지나가겠죠.

레코드판에게 다가갈 때 멜로디는 이쪽으로 걸어와요.
레코드판을 지나칠 때 멜로디는 등 뒤로 떠나갑니다.
레코드판의 왼쪽으로 갈 때 멜로디는 오른쪽에 있고
레코드판의 오른쪽으로 갈 때 멜로디는 왼쪽에 있죠.

모건. 당신은 미로 같은 높은 책장을 이리저리 옮겨다녔고 사실은 아리아가 당신으로부터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를, 잘 들렸다가 들리지 않았다가를 반복했겠죠.
모건, 나는 William Somerset이라는 인물로 당신을 기억해요
William Somerset은 당신을 증명해주죠.

오직 박자만이 엇박자를 증명해주는 존재.
혹은 엇박자만이 박자를 증명해주는 존재.
William Somerset은 어디서나 음악을 잘 듣지만, 당신은 가끔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음악은 음악의 조형물에 지나지 않으니.

새 外 1편

안진영

황새 한 마리
한 열흘
퍼덕이고 있다
아루룩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주검 앞에서
두 눈만 벌건,
긴 목
뽑아놓고 있다

인생

밀물일 때가 있었다
마르고 갈라진 뻘 위로 스미는
아스라함이 있었다
무릎을 잠기우고
가슴을 채우는
온 마음
그대 손길 위에
드리워지던
그대 손길 위에
드러워지던
잔물결의 한때가 있었다
차례로 그대에게 짓들고
기대어
삶을 키우는 밀물일 때가 있었다

하지만 사랑은 출렁이다가
수도 없이 비우고 채워지다가
끝내는 맨발로 되돌아 간다
마르고 갈라진 썰물이 된다

‖ 시 ‖

올해의 레시피 外 1편

유원희

겨울 재료부터 준비할까요
거꾸로 요리한다고 해서 올해가 맛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봄부터 볶아내는 것 이젠 싫증나요
겨울 다음에 가을이 오는 것도 재미있잖아요
겨울 찬바람에 붉게 데인 뿌리들이 붉은 점을 잎사귀까지 밀어 올리면 가을 단풍이 되는 거구요
봄꽃은 낙엽의 그리움에 씨앗이 바람에 날려 피는 거래요
나의 겨울은 뒷산 할머니의 한쪽 젖가슴에서 꺼내요 막 쪄낸 가래떡처럼 항상 따뜻하니깐요
여우구름에 바람나 단풍 애간장 태우는 가을은 바삭바삭 튀겨줘요
바닷가에서 물장구치는 여름을 살살 달래 무쳐내요
아직 잠에서 덜 깬 봄은 볶아내요
포크와 나이프로 조금씩 잘라 먹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입맛이에요
입안에 침이 맴돌 때 천천히 먹어야 해요
체하면 무심하게 대했던 시간에 대한 반성까지 토해내야 하니깐요
코를 치켜세우고 혀끝을 입술까지 돌려줘요
물론 요리엔 향이 없어요 향은 매일 아침에 배달되죠
혹시 시장하세요
자, 그럼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봄부터 먹어볼까요?

땅의 귀

땅은,
귀가 필요 했어
그래서 사람의 두 귀를 꿰매 놓은
토란 잎 귀를 달게 된 거지
가랑비를 토란 잎 가운데로 모아
동그랗게 굴려가며 고문도하지
발가락 개구리들이 토란 잎 귀로 점프를 해
달팽이들도 뛰어들지
놀이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그들은 귀가 잠을 잘 때 세워둔 첩보원들이야
개구리들이 논두렁에서 우는 것은
죽은 엄마 때문은 아니야
귀에게 보내는 뉴스 타전이지
벌들이 장마에 실종되었다는 소문이야
쉬!
귀를 막아줘
꽃들이 한강으로 뛰어들려고 나서면 큰일이거든

‖ 시 ‖

또 다른 가을 外 1편

이인성

옥탑방 사내는 쓰레기통이 유서였다
마지막 남기는 글 하나 없이 깨끗했지
가을 하늘을 닮아가는 지천명 나이
천명을 잘 알아서였을까
제 목숨 스스로 거두면서
냉장고 안의 음식까지 말끔하게 치운 거다
옷가지 하나 보이지 않았지
길에서 주워온 작은 화분 하나만
방 안에서 울먹이는데
상주 노릇 해줄 인연일 줄이야
낡은 배낭에 가랑잎으로 쓸려 다녔던 남자
사람 참 조용했는데 수줍음도 많았는데
떼인 임금 낙엽처럼 쌓이면서
낮술에 불콰하던 봉천동 골목길을
말도 없이 잘도 지나다녔는데
소주병 몇 개쯤은 뒹굴고도 있을 법
방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던 거다
세상에

어느 날의 눈송이

수레를 끌고 갑니다.
삼재팔난 지나간 휘어진 몸
눈밭은 뼛가루처럼 흩날리고
명절이라 파지는 많습니다.
무순 준비라도 하는지
점점 굵어지는 눈송이
노안을 조금씩 지우고 있습니다.

‖ 시 ‖

산의 선물

이일지

산이 나를 불러 산에 올랐더니
왜 이제서야 왔느냐고 한다.
철쭉, 엉겅퀴, 구절초, 수선화
피었다 지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왜 이제서야 왔느냐고 한다.
피는 꽃 바라볼 여유가 없었고
피운 꽃 떠나 보내는 아픔 함께 해 줄 여유가 없어
이제서야 왔다고 속삭였더니
빨강 노랑 때때옷
임을 향한 잔치이니
발길마다 눈길마다 즐기다 가라하네
산이 나를 불러 산에 올랐더니
벌거벗은 아픔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며
내 모든 설움도 숲에 묻고 가라하네

그리움

이천호

문득문득
옛 생각
밀물되어 밀려온다
엄마치마 붙잡고
봄나물을 뜯었었지
햇살은 쏟아져 내리고
뻐꾸기 노랫소리 뻐꾹뻐꾹
꾀꼬리는 꾀꼴꾀꼴
게다가 쑥꾹새는 쑥 쑥꾹
그런 게 다 봄의 노래였지 뭐
그리움이 산처럼 쌓이네
아! 가고 싶다
그리고 안기고 싶다
엄마 품속
뒷산 양지바른 잔디에 누워
새소리
솔바람소리 들으며
스르르르 꽃잠에 잠기고 싶다

‖ 시 ‖

광주역 오비 아짐 外 1편

정혜선

아따 요것쪼깨 보씨요이
요로코롬 희뿌스름허니 푸지게 널린 것덜이
왜 그땐 씨알맨치도 웂었으까이
허기사 헬리콥터 왕왕거리고 총알 핑핑 날아댕기는 판에
워찌케 저런거이 다 보였겄소
나가 스물 다섯, 내 아덜이 두살 되았는디
멀쩡히 크던 아가 하필 고때 이질에 걸려부렀소
피똥질 몇 번 하더니 퍼렇게 까부러지등만
얼라를 들쳐업고 미친드끼 병원에 갔는디 받아주덜 않더랑게요
피범벅으로 실려온 사람덜이 좀 많았어야제
울며불며 철퍼덕 앙것는디 동네 할매가 그랍디다
죽을 목심이면 죽을 거이고 살 목심이면 살 거잉께
나가 말한 대로 손이나 한번 써보씨요이

역전 분수대며 화장실이며 사방에 시체가 수북수북
말도 못허게 쌓였더랑게요
넘들은 주먹밥에 김밥 말아 젊은 아그들 멕이느라 난린디
나는 내 새끼 살리겄다고 쑥만 찾으러 댕겼단 말이요
어디 하나 성한 거이 없었응게로 어델 가야쓸지도 모르겄습디다

어느 산자락에 앉아 무솨서 너-무 무솨서
바들바들 떨어감시롱 쑥 한 주먹 간신히 뜯었소이
할매 말로 치면 엿가락도 있어야는디 무신 수로 구한다요
절구에 콩콩 쑥을 조사서 물엿 넣고 한소끔 끓인 다음
아그 입에 흘려 넣었는디요,
거짓말처럼 피똥이 딱 그쳐뿔드랑게
낭중에 고기 서근 끊어 할매집 인사갔등만 그 할매
아들 손주 다 잃고 드러누웠드라고요.
울 아덜은 서른 넷이 되았고, 장개도 가고 혔는디
낸 시방도 저 뽀야난 쑥이 핏빛으로 보인당게요

창고

쟁여놓은 물건이 하도 많아서 와르르 날 덮칠 것 같아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어. 계 들어 장만한 다용도행거랑 거리에서 고른 500원 짜리 브래지어도 버리지 못했지.

최근에 집어넣은 물건은 정신병원에서 만난 서른 살짜리 계집애였을걸. 볕 좋은 날이면 어김없이 울던 이상한 애였어.

뇌를 꺼내 깨끗한 물로 헹궜으면 좋겠다던 그 애 앞에서 나는 내 가슴을 뜯어봤음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 가슴엔 분명 굳은살이 팍 박혀있을 거야.

당신은 여전히 문 밖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군요. 그 갈쿠리 같은 혀로 내 마음속 창고를 지었으니 이제 좀 부수어 주길.

아아, 한번만 더 저 바이올린 속에 턱 괴고 엎드렸음 좋겠네. 그러면 당신도 그때처럼 내 창고 속에서 잠시 머물다 갈런지.

붉은 피 外 1편

조인숙

철이 잔뜩 든 아들이
엄마는 황혼이란다
너는 매일 일출이더냐

그저께 신문에
황혼의 취업률이 증가한다는데
이 시대의 경제를 살린 붉은 피들이
흘가분히 누리기를 포기하고
너희들이
앳되어서 아직 일구지 못하는 나약함을
나무랄 수 없어

대신 거리로 나서
밤낮으로 경험을 팔아 노동을 사고있다
아직도 나는
황혼의 붉은 피!

‖ 시 ‖

그림자 놀이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는거야 해를 행해 소리치니
그림자는 민망해서 뒤로 숨는다

피이 대꾸도 안해주네
삐져서 돌아서니
그림자가 먼저 반긴다

산다는 힘겨움에 주저 앉으니
덩달아 주저앉아 고개 떨구고
이러지말자 일어서니 제가 먼저 벌떡한다
얼라려!
얼라려!

그림자
너는 어쩔 수 없이 나랑 하나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보자

때로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아

앞서거니 뒷서거니
너와 나
하나로 걸어보자

영원을 함께 할 그 무엇!
너 말고 누가 있겠니

‖ 시 ‖

초가집 이엉을 매만지는 여자

최명희

지붕이 낮은 집
그 여자의 남자가 서면
처마가 머리에 얹힌 모자처럼 얕았다
우리는 터울 먼 자매로 태어나
논 밭 사이 자그마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

내게 안겨진 추억은 언니가 없는 집
그러나 언니에겐 오글거리는 동생이 많은 집
우리는 그렇게 기억 저편 속으로
너와 나의 집을 따로 그리며
한 이불 속에서 다른 모양으로 살았다

내게 기억 될 그림이 없는 언니,
자투리 펄럭이는 치맛자락이라도 있다면
그 치맛자락을 낡은 담벼락에라도 그려보련만
한 집에 살았다는 것은 언니의 꿈
나는 빈 마당의 풀뿌리 하나도 언니로 남은 게 없다

맹호 껌이 생각나게 하는 남자를 만나서
밀짚으로 엮인 핸드백 속에 풍선을 불었던 언니,
그 남자가 언니를 데리러 왔던 밤에
우글거리는 그 남자의 친구들이
천장 붙게 춤추던 밤만 잘도 기억한다 나는

그녀가 두루마기 맡겨 첫 애 낳으러 왔던 친정집
아궁이에 불 지펴야 더워지는 집
집 지을 때, 그녀가 밥해 날랐다던 초가집의 이엉을 바라보며
아들 셋에 겨우 핀 살림살이 몽땅 내다 버린 그 여자를 매만진다

아버지 外 1편

최해자

밤마다 아버지는
주판알 굴리며 한 뼘 한 뼘
꿈을 재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러운 소작농에서
농심 그득한 자작농이 되고 싶어
막걸리 한 잔을 아까워하며 살아도
하도나 먼 꿈

느그 아버지는
동네에서 제일가는 꼬꼽쟁이여

그러거나 말거나
누렇게 바랜 옥편 뒤적이며
산 아래 점마을에서
이고지고 겨울 들판을 건너 온
옹기장이 부부에게
이리 앉게 이리 앉게
허기를 살피고 몸 녹여 보내는 일
허다히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지바람

어머니 장에 가는 길
몰래 뒤 따르면
어머니는
어린 잎 돋은
낭창낭창한 마무가지 꺽어
혼줄 내며 따돌려 보냈지

나 지금 어머니 나이를
훌쩍 넘기고는
그때처럼 명지바람 불고
무궁화 가지 새잎 돋으면
어머니 엄하고 다솜한 눈빛
애만지는 봄 햇살 같아

당신의 형편을 알 수가 없어
한사코 애를 먹인 애물단지
너는 내 얼굴이야
음전한 여자이어야 해
이제야 들려오는 소리
불혹의 어머니 카랑카랑한 그 목소리

학생문단 | 소설

김설옥

김흥숙

박미진

신나영

小說

슈게이징

김설옥

밤은 보이지 않는 소리들을 품고 있었다. 로얄 타운 뒷담으로 통하는 길목 어귀에 덩그러니 앉아 있던 검은 고양이가 볕안간 귀를 쫑긋 세우더니 어둠 속으로 후다닥 사라졌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몸을 숨긴 채 그것을 보고 있던 정혜가 얼른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큰 길 쪽에서 자동차 달리는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되풀이할 뿐 별다른 기척은 없었다. 차 소리는 쐐쐐 날카롭게 몰아치는 눈바람에 묻혀 얼핏 파도 소리 같기도 하고, 긴 터널 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서 재차 시간을 확인했다. 움직이기에 딱 적당한 시간이었다. 지금이야, 바로 지금. 정적이 웅덩이처럼 고인 곳을 훌쩍 건너뛰며 정혜는 자신이 한 마리의 고양이 같다고 생각했다.

도둑고양이가 어디 있어?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지. 지니의 말이었다. 어디서 그럴싸한 문구를 찾아내는지 잊을 만하면 꼭 댓글을 달아서 기를 죽이고는 했다. 오후에도 누구와 다툰 이야기를 하던 끝에 고양이에게 아파트와 빌라가 무슨 차이가 있으며 고귀한 곳과 후진 곳, 안과 밖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며 갖은 너스레를 떨더니, 이따가 고양이처럼 그냥 통과하면 된다는 말씀,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가슴이 뛰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정혜는 엄연히 가택침입을 시도하는 중이었고, 목적지는 다름 아닌 케이의 집이었다. 건물 안으로 통하는 유리문 위에 '**CCTV 촬영 중**'이라는 팻말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CCTV가 연결된 경비실은 비어 있을 시간이었다. 그것은 고양이처럼 경계를 넘나드는 물체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리라. 정혜가 유리문을 열고 몸을 안으로 들여놓았다. 불 꺼진 건물 안은 동굴처럼 어두웠다. 너무 적막하기 때문인지 사람 사는 곳 같지가 않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 쪽으로 걸음을 돌렸다. 그것은 지니가 알려준 주의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 것, 형광등을 켜지 말 것. 사람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거라면 뭐든 일단 피하고 볼 것. 기타 등등. 소리를 죽이기 위해 발가락에 힘을 주고 앞쪽부터 천천히 땅에 붙였다가 조심스럽게 떼며 걸었다. 1111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자꾸 헛짚어졌다. 이윽고 잠금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가 싶더니 몸이 안으로 쑤욱 빨려 들어갔다. 정혜는 흠칫 뒤를 돌아보았다. 누가 등을 떠미는 것 같은 착각이 든 때문이었다. 휘유, 정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니의 능력이 새삼 놀라웠다. 어떻게 번호를 알았을까? 하여튼 고수라니까.

그녀로부터 아파트 위치를 비롯해 경비 몰래 단지 안에 진입하는 요령, 가정부와 매니저가 들르는 날짜와 시간대,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전수받던 날 정혜는 완전히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멤버들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비롯한 신상정보, 스케줄 같은 것들은 약간의 돈과 시간만 투자하면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는 굉장한 고급 정보였다.

언더그라운드를 박차고 메이저로 나온 슈게이징 그룹 '**불청객들**'에 대해 지니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장르 자체가 생소했다. 낮은 음으로 속울음을 참듯이 노래하는 케이에 대해 처음에는 꼴불견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발끝만 바라보며 쉰 소리를 내다 들어가 버리는, 튜닝도 리듬도 예측할 수 없는 팝. 어느 음악 잡지의 편집자가 신발(슈)만 보고(게이징) 노래하는 불친절한 무대매너를 두고 비아냥대던 표현이 그대로 이름이 된 장르. 하지만 그 억제된 슬픔 속에 마술이

있었다. 불청객들의 리드보컬 케이의 그 훼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혈관을 통해 무언가 몽롱한 것이 계속 주입되고 있는 듯이 불쾌한 매력을 수줍게 감추고 있는 모습, 그것이 케이의 내부를 향해 하루살이 떼처럼 모여드는 오다쿠를 만들었다.

정혜는 현관에 오도카니 선 채 어둠이 깔린 집 안을 잠시 응시했다. 정면으로 보이는 발코니 유리 바깥에서 눈은 여전히 어지러운 선을 그으며 쏟아지고 있었다. 케이는 다음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차 외국에 나간 상태이고, 집안 살림을 맡아 하는 가사 도우미는 새벽 일찍 다녀갔다.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올 사람이 없다는 의미였다. 워낙 스케줄이 바쁜 그였지만 이렇게 하루 오롯이 집을 비우는 일은 흔치 않았다.

정혜는 유리에 이마를 대고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작은 분수대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둥글게 늘어선 단지 일대는 고요히 빛나는 밤의 항구 같았다. 분수대를 둘러싼 각 동을 중심으로 다시 1미터 높이의 벽돌담이 울타리처럼 둘러져 있었다. 유심히 보니 분수대 모양이 꽤 특이했다. 전기로 돌아가는 방식이었는데, 분명히 꺼져 있음에도 얼핏 작동되는 것처럼 보였다. 꼭대기에 장식된 고래 조각상 등판에서 눈 녹은 물이 떨어지면서 빚는 현상이었다. 이치대로 하자면 고래의 둥근 등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꼬리지느러미를 치켜 올린 형태로 조각하는 바람에 등과 꼬리 사이에 오목한 홈이 생기고 말았다. 그래서 눈이나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다가 저런 식으로 흘러내리곤 하는 것이다. 그녀는 조각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 물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지면 몰라도 저렇게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으니 좀 구차해 보였기 때문이다. 눈발과 부연 안개 속에서 늘씬한 은회색 건물들을 보좌삼아 우아하게 서 있는 분수대는, 그 자태와 어울리지 않게 궁색한 물방울 때문에 정치인이나 유명한 예술가를 어설프게 흉내 내는 코미디언처럼 우스꽝스러웠다.

지니에게 인증샷을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것이야말로 그녀의 취향에 딱 들어맞는 광경일 것이다.

지니는 멤버들에 대해서라면 뭐든지 꿰고 있는 '전설의 오다쿠'였다. 멤버들 뿐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왕성한 활동력, 특별한 인맥이나 남다른 재주 등으로 팬덤 내에 닉네임을 날린 네

임드 팬들의 관계도나 사생활 같은 조잡한 것부터 시작해서 바흐나 라흐마니노프, 디에고 리베라와 샤갈, 혹은 도스토예프스키, 나쓰메 소세키, 혹은 루쉰이나 체 게바라 따위의 있어 보이는 이름까지 분야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줄줄 꿰었다. 대다수의 팬들이 멤버들의 사적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수집하는 일을 천박하다고 여겼으며, 그 천박한 짓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행하는 '비공식 팬'들을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그런 비난에서도 지니는 예외였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우선 그녀는 자신에게 향해지는 비판을 거뜬히 무효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언변을 가졌고, 워낙 발이 넓어서 변호해 줄 인맥도 많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정혜 같은 애들이 같은 팬 사이에서도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멤버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집에 찾아가거나 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니는 집에 찾아가기는커녕 공개방송이나 콘서트, 심지어는 팬미팅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저들에게 그녀는 오직 모니터 속에만 존재했다.

지니를 실제로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인지 이런저런 소문도 많았다. 팬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컨트롤하기 위해 소속사에서 심어 놓은 직원이라는 말도 있었고, 유명한 정치인의 딸이라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는 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지니는 일련의 소문을 부정하며 자신은 외국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혜는 그녀의 말을 믿었다. 자신에게 집 주소와 모바일 넘버를 알려주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다알리아 스트리트, 브리스번, 큐엘디, 오스트랄리아 어쩌고 하는 알파벳 주소는 얼마든지 가짜로 지어낼 수 있었다. 직접 통화를 해 본 적이 없는 전화번호 역시 백퍼센트 믿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정혜는 지니가 굳이 그렇게까지 구차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아는 한 지니는 누구보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다.

정혜는 발코니에서 떨어져 거실을 한 번 쓱 둘러보고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토록 갖고 싶다던 케이의 부츠를 훔쳐내는데 성공하면 지니는 자신을 완벽하게 신용할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비밀을 알게 해줄 것이다.

거실은 침침했다. 하지만 섣불리 불을 켤 수는 없었다. 매시 정각마다 단지를 구석구석 돌며 순찰을 하는 경비는 이 집이 밤 동안 비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만약 발코니로 빛이 새어나가는 것을 발견하면 의심을 사게 될 것이 분명했다. 정혜는 휴대폰을 열어 주변을 비춰보았다. 케이의 가장 깊은 곳을 알고 있는 비밀스런 소품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2G 폴더폰에서 나오는 희미한 광선이 가죽 소파 한 귀퉁이를 비췄다가 바닥에 깔린 카펫으로 옮겨갔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빛이 너무 희미하다는 것이었다. 수명이 거의 다해서 하루에 서너 번은 배터리 충전을 해줘야 하는 고물 휴대폰이었다. 이럴 때 스마트 폰으로 플래시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했다면 좋았으리라. 하지만 정혜에게는 수십 만 원짜리 기계를 턱턱 살 만한 능력이 없었다.

- 아나, 네 애미 내다 팔아라.

정혜의 엄마는 뭔가를 사달라고 하면 항상 그렇게 말하곤 했다. 돈이 없다는 표현을 좀 사납게 에두른 말이었다.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일하면서 왜 늘 돈이 없는 건지, 그렇게 번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다만 돈 없는 엄마와 아빠가 싫었고 천하의 불효자식 같은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싫었고, 자신을 그렇게 낳아 놓은 엄마와 아빠가 다시 싫었다. 이따금 미안하거나 애잔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런 기분은 오래 가지 않았다. 좋을 때보다 싫을 때가 더 많았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그랬다. 정혜가 언제나 변함없이 좋아하는 건 오직 케이 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닫은 뒤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어차피 눈이 어둠에 적응이 되어서 아주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다. 정혜가 발코니 쪽에서 제일 가까운 방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잡아 비틀었다. 널찍한 방 한가운데 새하얀 이불보가 덮인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다. 일순 정혜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침대 위로 휙 몸을 던졌다. 케이가 자는 침대였다. 그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부들부들하고 좋은 냄새가 났다.

문득 지니가 짝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여자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 떠올랐다. 지니는 그것이 로망이라고 했다. 누군가 방에 숨어들어서 자신의 침이 말라 붙은 베개에 코를 박

은 채 야릇한 신음소리를 내다 가는 것. 그러면 자기는 집에 돌아와서 '좀 이상한 걸. 평소하곤 뭔가 달라'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베개에 머리를 대고 잠드는 것이.

- 이상해. 변태 같애.

- 동의. 하지만 알잖아.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은 이상하고 조금씩은 변태야.

- 음, 나도 동의.

- 당연하지.

정혜가 지니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케이의 베개를 살살이 뜯어보았다. 침 마른 자국 같은 건 없었다. 확실히 케이는 천사처럼 얌전하게 잘 것 같은 이미지였다. 그녀는 케이의 얼굴을 그려보려고 애쓰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문질렀다. 하지만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흥이 돋지 않았다.

- 방법이 틀렸다니까. 혼자 할 땐 곁다리는 생략하고 곧장 3루로 달려야지.

어디선가 지니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난 3루가 어딘지 모르겠는 걸. 정혜가 진저리를 치며 대자로 누웠다. 텅 빈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 무늬 없는 진갈색 벽지가 발라져 있었는데, 어둠 때문에 거의 검정색처럼 보였다.

자기 몸을 만지면서 흥분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녀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호기심에 몇 번 시도해보긴 했지만 손가락과 함께 기분만 찝찝해질 뿐 좋은 점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하기야 섹스도 별다를 건 없었다. 정혜는 고등학교 일학년 때 처음으로 남자와 잤다. 상대는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오빠였는데 내심 짝사랑하고 있었다. 방학을 맞아 그의 자취방에 놀러갔다가 같이 술을 마셨고, 머리가 어질어질 해서 잠깐 침대에 몸을 기댔더니 그가 슬금슬금 따라 누웠다. 안돼. 나 오늘 그 날이란 말야. 정혜가 말하자 오빠는 괜찮다고 했다. 약간 겁이 났지만 눈 딱 감고 해버리면 그와 사귈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친구들에게 경험담을 자랑하고 싶기도 해서 내버려 두었다. 남들은 첫 경험 때 죽도록 아팠다는데, 너무 취했기 때문인지 아픈 것도 몰랐다. 일을 치르고 나선 곧장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보

니 이불에 피가 흥건했다.

- 오빠, 일어나 봐. 어떡해. 나 피나.

정혜는 옆에서 잠들어 있는 오빠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가 부스스 일어나 이불을 들춰보더니 인상을 구겼다.

- 에이 씨발. 가지가지 하네.

피를 보니 뒤늦게 허벅지와 사타구니 사이가 욱신욱신 아려 왔다. 뱃속 내장이 당기고 저릿저릿한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괜히 서러운 기분이 들어서 훌쩍훌쩍 울었다.

- 울긴 왜 우냐? 생리해서 그런 건데. 병신.

그는 거친 손길로 이불을 걷어내며 윽박질렀다.

이후로도 다른 사람들과 몇 번 더 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컨디션에 따라 조금 더 아프거나 덜 아픈 정도의 차이였다. 지니는 정혜가 아직 제대로 된 섹스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정말 확실하게 하면 더 없이 좋은 게 섹스라고 했다.

- 한국 애들보다 여기 남자가 더 잘하는데. 놀러 올래? 시티 관광도 시켜 줄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그 제안을 받을 때마다 정혜는 지니가 백인 남자와 섹스하는 장면을 상상하곤 했다. 몸에 털이 숭숭 난 덩치 밑에 깔린 채 낑낑 신음하는 그녀의 모습을 그려보면 어째선지 가슴이 홧홧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정혜는 이따금 자신이 레즈비언은 아닐까 생각했다. 남자랑 할 때 아무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는 아닌가 하고. 하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은 다 남자였고, 섹스는 별로지만 키스하는 건 꽤 좋았다. 그런 걸 봐선 아마 지니의 말대로 제대로 된 섹스를 못했을 뿐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키스도 혼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정혜가 입맛을 쩝 다시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조금 더 누워있고 싶었지만 신발을 찾는 게 우선이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 방 안에는 침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언젠가 잡지에서 케이에게 약간의 결벽증이 있다는 인터뷰 기사를 읽었던 것 같다. 모든 기사가 에디터 취향의 닭살 돋는 문장으로 구성된 패션 잡지에서였다. 심플 이즈 베스트. 모던한 분위기를 좋아해요. 집에 가구도 거의 없죠. 웃음. 정혜는 인

터뷰를 읽으며 케이가 정말 그 대목에서 웃었을까 궁금해 했던 것이 떠올랐다.

어쨌든 인터뷰 내용 자체는 사실에 가까운 듯 했다. 케이의 집에는 가구는커녕 집안을 장식하기 위한 작은 액자나 화분 하나도 없었다. 다른 스타들이 흔히 그러듯이 자기 화보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두지도 않았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 팬들이 선물하는 편지와 인형 같은 것들을 귀찮아해서 다 버린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도 같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사실 케이가 여러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나 평소 태도로 추정컨대, 그렇게 실용성 없는 선물을 싫어하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였다. 불청객들 정규 앨범 2집 히든 트랙에 수록된 케이의 자작곡 <To be, or not to be>에 그런 가사도 있지 않았던가. 너는 쓸모없는 놈. 사용되지 못하는 놈. 그저 존재함으로써 존재하는 놈.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라면 이제 그만 사라져 버려. 사라져 버려. 사. 사. 사라져 버려.

그래서 정혜는 종이학이나 인형, 펜레터 따위는 결코 선물하지 않았다. 주로 선물하는 건 케이가 좋아하는 수입 초콜릿이나 목에 좋은 캔디 같은 것들이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먹어치울 수 있을 만큼 적은 양으로, 방송국이나 공연장 근처에 주차된 그의 밴 앞에서 기다렸다가 직접 전달했다. 정혜가 먹을거리를 내밀면 케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그것을 잠시 내려 보다가 아무 표정 없이 휙 낚아채 가곤 했다. 그가 선물을 받으면 정혜는 허리를 접으며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그러면 케이는 습관처럼 고개를 한 번 까딱하곤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 차에 올라탔다. 쉽사리 감동하지 않는 태도는 케이가 평소에 추구하던 음악과도 묘하게 어울려서, 서운하기는커녕 도리어 고맙게 생각됐다. 그 무심한 표정을 일 초라도 더 보려고 차창에 얼굴을 들이 대다가 매니저와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한심한 년들, 그 열정으로 부모님 생일상 한 번 차려 드려라. 매니저가 그렇게 욕을 하면 정혜는 무리를 지어 다니던 다른 팬들과 입을 모아 소리를 지르며 반박했다. 생일상 차려 줄 부모가 없는데 어쩔래. 우리 덕에 월급 받고 사는 주제에. 오빠 수발이나 똑바로 들어, 하면서. 정혜는 불청객들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침실 밖으로 나왔다. 쓸모없는 놈. 사용되지 못하는 놈. 보컬을

담당하는 케이가 드물게 작곡과 편곡, 드럼과 베이스 반주까지 완전히 혼자 맡아 만든 노래. 지직거리는 전자음을 많이 삽입하고 요즘 유행하는 후크 송 스타일을 접목시켜 같은 노랫말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불청객들의 노래 중에서도 정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었다. 사라져 버려. 사. 사. 사라져 버려. 흥이 오른 그녀의 발가락이 움찔거렸다.

드레스 룸은 현관 바로 옆에 있었다. 케이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셀프 카메라 사진에서 배경으로 자주 등장했던 바로 그 곳이었다. 다행히 밖으로 뚫린 창이 없었다. 문이 난 쪽을 제외하고 벽 세 개가 죄다 전신이 비치는 거울로 되어 있었다. 어두운 거울 속에 멀거니 서 있는 세 개의 인영을 발견하고 무서워진 정혜는 얼른 문 근처 벽을 더듬어 불을 켰다. 따뜻하고 노리끼리한 색감의, 화장실에서 주로 쓰는 백열등 빛이었다. 사람을 예뻐 보이게 하는 조명이었다. 거울 속 유달리 매끈해 보이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정혜는 케이가 이곳에서 주로 셀카를 찍는 이유를 짐작했다. 거울이 없는 쪽 벽에는 커다란 2층으로 된 커다란 행거가, 방 가운데 빈 공간엔 옷가게에서나 쓰는 고급 유리 선반에 가방과 모자, 선글라스 따위가 단정히 놓여 있었다. 전부 그가 즐겨 착용하는 것들이었다. 정혜는 낯익은 물건들을 괜히 한 번씩 쓸어 보았다. 그의 공항 파파라치 사진에서 봤던 알 없는 뿔테 안경을 집어 껴보기도 하고,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썼던 캡 모자도 써 보았다. 물건을 실컷 만져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벽의 거울은 모두 붙박이장의 문이었다. 그녀가 후다닥 달려들어 거울 문을 밀어 열었다. 그의 깔끔한 성격을 반증하듯 벽마다 색깔과 종류에 따라 나눈 옷이 들어차 있었다.

하얀 부츠를 찾아낸 장소는 셔츠 전용 옷장 바로 곁에 있는 벽걸이였다. 원목으로 된 열두 칸짜리 벽걸이에 칸마다 두 켤레씩 부츠가 들어차 있었다. 그 중 사슴가죽 소재의 하얀색 미드카프 부츠가 케이의 상징물이었다. 정혜는 손을 떨며 부츠를 꺼내 들었다.

무대 위에서 케이는 그 하얀 부츠를 신고 긴 속눈썹을 내리깐 채 노래했다. 그가 내뱉는 노랫말은 흡사 소음에 가까운 의미 불명의 전자음과 뒤섞여 서서히, 서서히 아래로 가라앉았다. 정혜는 그의 음성이 지닌 보이지 않는 무게가 온전히 배어 있는 부츠를 가만히 끌어안

았다.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다.

계획대로 부츠를 손에 넣으니 엄청난 대업이라도 이룬 것처럼 뿌듯했다. 한시라도 빨리 지니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다시 한 번 스마트폰이 아쉬운 순간이었다. 그것만 있었다면 곧장 인터넷에 접속해서 대화 요청을 했으리라. 어쩌면 무료 영상 통화 어플을 이용해 직접 부츠를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아쉬운 대로 사진을 찍어 두기 위해 휴대폰을 열었다. 카메라를 켜고 드레스 룸 여기저기를 꼼꼼히 촬영했다. 화질이 나빠서 걱정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컷이 나왔다. 노이즈가 점점이 박힌 사진은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예스런 맛이 있었다. 사진을 찍고 나니 때마침 정확히 자정이었다. 액정에 출력된 0자 세 개가 어쩐지 굉장히 좋은 징조처럼 느껴졌다. 정혜가 싱글벙글 웃으며 불을 끄고 방 밖으로 나왔다.

얼마 후면 부모님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었다. 그들은 정혜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리라. 그녀는 두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언제였는지 떠올리는 것조차 어려웠다. 엄마는 이른 오전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엔 이십 사 시간 분식집 주방 도우미를 했다. 명절이고 주말이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피곤해했다. 집에 오면 이를 빠득빠득 갈며 자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었다. 아빠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혜도 알지 못했다. 한 때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생산직 일을 했었는데, 재작년 정리해고를 당한 후부터는 공사장이나 공장 일용직을 떠도는 모양이었다. 신경질적이고 무뚝뚝한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다정한 성격이었다. 어쩌다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떡볶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군것질거리를 정혜의 손에 쥐어주며 말하곤 했었다. 우리 딸, 말상대 하나 없이 날마다 외롭지. 동생 하나 낳아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빠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정혜는 어깨를 으쓱하며 괜찮다고 답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동생이 갖고 싶었던 적도 없었고 부모님이 일을 줄이고 집에 있어줬으면 한 적도 없었다. 사실 정혜는 자신의 외로움을 즐기는 편이었다. 외롭다는 단어가 주는 서글프면서도 안락한 느낌이 그녀는 좋았다. 가능하면 오랫동안 외롭고 싶었고, 그렇게 고독하기를 꿈꾸는 자신이 특별한 사

람처럼 여겨졌다. 지니는 제대로 외롭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말 외로운 사람은 절대로 외로움을 좋아할 수 없다고.

- 너도 언젠가는 외롭다는 게 뭔지 확실히 알게 될 거야. 그럼 분명 지금 한 말을 후회할 걸. 그리고 외롭지 않을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대화창에 올라온 지니의 말을 보면서 정혜는 정말 외로움을 싫어한다면 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지 따지고 싶었다. 제대로 하는 섹스를 자랑했던 것처럼 지니는 제대로 된 외로움을 은근히 뽐내고 있었다. 지니가 정혜를 무시하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그 때만큼은 정말로 억울했다. 하지만 반박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자긍심을 존중해 주고 싶기 때문이었다. 다만 확실한 외로움에 대해서 오래토록 생각했다. 그녀는 외로움과 전쟁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과 맞붙어 승리할 자신도 없었다. 설령 외로움을 자신의 삶에서 내모는 데 성공할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았다. 따라서 정말 지니의 말처럼 언젠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불사하는 날이 온다면,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백기를 들고 죽어 버리겠노라고 다짐했다.

어둠이 내린 거실을 잠시 둘러보던 그녀가 소파로 다가가 엉덩이를 털썩 내려놓았다. 사위는 여전히 고요했다. 발코니 너머에서 쏟아지는 눈은 한층 더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었다. 바람이 제멋대로 불고 있는 모양이었다. 검은 도화지 위에 하얀 수채물감을 마구잡이로 흩뿌려 놓은 것 모양 하늘 꼴이 난잡했다.

갑자기 코끝이 간지러웠다. 앗취. 앗취. 아앗취. 정혜가 자기도 모르게 몇 차례 재채기를 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옆집 쪽에서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살며시 귀를 대보았다. 혹시 누가 초인종을 누르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걱정스러웠다. 주인 없는 집에 몰래 들어온 것만도 심각한 범죄인데, 물건까지 훔쳤다면 두말할 여지도 없었다. 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도 이어지는 소리는 없었다. 하기야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재채기 소리가 새어나갈 만큼 방음 처리를 형편없이 했을 리도 없고, 설령 들렸다 해도 도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

을 것이며, 도둑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찰을 부르지 벨을 누르지는 않을 터였다. 정혜가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긴장이 풀려선지 목이 말랐다. 발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며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정혜의 입이 떡 벌어졌다. 냉장고 안에는 다른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찬통이나 물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 식품과 음료수, 그가 좋아하는 과자나 초콜릿 같은 것들이 종류별로 열을 맞춰 늘어서 있었다. 자로 잰 듯 어찌나 정연하던지 살짝 소름이 돋았다. 참으로 케이의 냉장고다운 모양새였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건 케이에 대한 반역 같았다. 정혜는 다시 문을 닫았다. 마실 것을 눈앞에 두고도 그냥 돌아서려니 점점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 같았다. 차라리 빨리 집에 돌아가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머무르고 싶기도 했지만, 어차피 너무 오래 있는 것은 위험했다.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힌 그녀는 혹시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행적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정혜는 현관으로 다가가서 숨을 한 번 들이마신 다음,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복도에 나오니 벌써부터 추위가 느껴졌다. 최대한 신경 썼지만 밖이 워낙 조용해서 문 여는 소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잠시 멈춰선 채 눈만 깜빡이다가, 이번에는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문을 닫았다. 띠리리리링. 짧은 멜로디가 복도를 울렸다. 자동 도어락이 작동되는 소리였다. 순간 흠칫했지만, 조금 전 옆집 현관문이 열렸을 때 도어락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너무 긴장을 해서 실제보다 요란하게 들리는 것이리라. 정혜가 애써 가슴을 누르며 계단 쪽으로 서서히 걸음을 옮겼다. 건물 뒤쪽 비상구로 통하는 계단이었다.

계단은 자동 센서 전등도 창문도 없어서 집안보다 훨씬 더 어두웠다. 하지만 경비가 지키고 있는 로비를 거치지 않으려면 이 계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고 어설픈 빛에 의지하여 더듬더듬 층계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온 몸이 오돌오돌 떨렸다. 서늘한 온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했다. 올라올 땐 케이의 집에 들어갈 마음에 너무 들떠서 느끼지 못했는

데, 막상 십 일 층 계단을 들키지 않고 내려갈 생각을 하니 까마득했다. 몇 번이나 발을 잘못 디뎌 비명을 지를 뻔 했지만 겨우 참았다.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1층에 도착해서 층계 옆에 붙은 쪽문을 열었다. 바깥바람이 와락 끼쳤다. 드디어 밖이었다. 건물 옆쪽으로 돌아나가서 담 하나만 넘으면 끝이었다. 그녀는 몰아치는 눈발 속으로 사뿐 사뿐 걸어 들어갔다.

- 거기, 너!

예상하지 못했던 목소리에 온 몸에 피가 다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소리가 난 쪽을 흘끗 돌아봤다. 모자에 재킷까지 갖춰 입은 군청색 경비복과 허리춤에 찬 무전기 때문에 언뜻 경찰처럼 보였다. 하지만 기껏해야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모자 밑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한 것이 나이도 꽤 지긋한 듯했다.

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정혜는 진짜 경찰도 따돌려 본 적이 있었다. 연말마다 하는 가요 시상식 날이었다. 메이저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친 불청객들의 리더 윤과 섹시한 이미지로 이미 탑 스타였던 가수 리에의 스캔들 때문에 한참 시끄러울 무렵이었다. 윤이 먼저 수작을 걸었네, 리에가 여우처럼 꼬리를 쳤네 실랑이를 벌이다가, 누가 먼저인지 모르게 서로 밀쳐대기 시작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한 때 '빠돌이와 빠순이의 대격전' 이라는 별칭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바로 그 패싸움이었다. 정혜가 속한 불청객들의 팬은 모두 여자였지만 상대 쪽은 절반 이상이 남자였다. 정혜 패거리가 거의 일방적으로 코너에 몰리는 분위기 속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이 우르르 나타났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팬들은 우왕좌왕 하다가 허탈하게 붙들렸다. 그녀는 경찰을 따돌리는 데 성공한 얼마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잡힌 이들 대부분은 훈방조치 되었지만, 개중 주도자로 지목된 몇 명은 골머리 깨나 썩어야 했다. 만약 붙잡혔다면 정혜 역시 거기에 속했을 것이다.

그 날을 떠올리며 정혜가 호기롭게 돌아서 후다닥 달음박질했다. 눈 녹은 물이 촥촥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 야!

남자가 호루라기를 불며 따라 붙기 시작했다. 보기보다 몸이 잽쌌

다. 제발, 제발. 잡히면 안 돼. 정혜는 얼굴을 구기며 미친 듯이 뛰었다. 눈 때문에 길이 너무 미끄러웠다. 게다가 어수선하던 예전 패싸움 때와는 달리 일대일 경주였다. 결국 담을 코앞에 두고 다리에 힘이 풀려 콰당 미끄러지고 말았다. 정혜가 뒤를 바라보았다. 경비는 손 뻗으면 바로 잡힐 것 같은 거리에서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달리는 그의 얼굴에서 허연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아이, 씨발. 제발, 제발. 그녀는 후다닥 일어나서 담 위에 손을 얹었다. 몸에 힘을 주고 도움닫기를 하려는 순간 그가 정혜의 목덜미를 홱 낚아챘다.

- 너 뭐야?

그가 험악한 목소리로 물었다.

- 왜 도망갔어?

경비는 그녀의 목덜미를 움켜쥔 채 경비가 다그쳤다.

- 뭐야, 무슨 짓 했어?

아무 짓도 안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들어와 본 거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싹싹 빌어 보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짝짝 갈라졌다. 머리가 핑 돌았다. 정혜는 눈을 질끈 감았다.

- 여기서 무슨 짓 했어. 집 전화번호 대. 빨리.

경비는 정혜를 끈질기게 흔들며 물었다. 너 빠순이 맞지? 케이 찾아 왔지? 다 아니까 솔직하게 불어. 경비가 왁왁 고함을 질러대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기왕 이렇게 된 이상 얼굴에 철판 깔고 묵비권을 행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심장이 팔딱팔딱 빠른 속도로 뛰었다. 흡사 케이의 노래 속 드럼 반주 같았다. 쿵. 쿵. 쿠다다다 쿵. 쿵. 사라져버려. 쿵. 쿵. 사라져버려. 쿵. 쿵. 쿠다다다 쿵. 속이 울렁거리면서 난데없이 눈물이 핑 돌았다. 울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 정혜는 양 쪽 광대뼈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물었다.

앨범 발표 직후 케이의 자작곡은 표절시비에 휘말렸었다. 노래에 사회 비판 메시지를 담았다느니 새로운 시도라느니 잘난 척 하더니, 다 그렇지 뭐. 개나 소나 지가 서태진 줄 알지. 어차피 짝퉁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케이의 노래를 비웃었다. 너나 사라져 버려. 너나. 다행이라 해야 할지, 정식으로 활동한 곡이 아니라 기사가 뜨거

나 크게 회자되지는 않았다. 그래도 저들은 케이의 페이스 북에 찾아와 끈질기게 댓글을 달았다. 니가 돈 써서 기사 막았지. 자본주의의 노예가 아웃사이더를 표방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너나 사라져 버려. 물론, 케이는 그런 글은 본 척도 하지 않았다.

- 앗쭈, 이 발랑 까진 년 보게. 웃어?

경비가 팔을 들어 올리더니 그녀의 뺨을 갈겼다. 눈앞에 번개가 번쩍 치면서 확 열이 치밀어 올랐다. 정혜가 눈을 있는 대로 흡뜨고 그를 노려보았다.

- 뭘 봐. 네깟 게 눈알에 힘주면 내가 무서워 할 줄 알아.

그가 이번에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려쳤다. 정혜의 고개가 아래로 홱 고꾸라졌다. 흙탕물에 엉망이 된 신발 끝이 시야에 들어왔다.

- 요즘 것들은 통 안팎 구분을 못 한단 말이야. 우리 집에도 딱 너 같은 년이 있거든. 아무데서나 팔랑 팔랑… 집도 절도 없는 고양이 새끼들 같이.

경비는 빈정거리며 그녀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몸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앞뒤로 흔들렸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정혜는 고양이의 세계를 그런 식으로 비유하는 것이 흔한 일인가 생각했다. 더불어 경비원이 입주자의 현관 비밀번호를 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문득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아찔해졌다.

- 그만 때려. 개새끼야.

그리고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었다. 정혜는 모자 아래로 삐져나온 경비의 머리카락을 잡아채며 와락 달려들었다. 그의 모자가 공중에서 팽그르르 돌며 저 쪽으로 날아갔다. 졸지에 산발이 된 흰머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된 경비가 욕지거리를 하며 정혜의 팔을 붙들었다.

두 사람은 아무렇게나 뒤엉켜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발음이 다 뭉개져 무슨 의민지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 고성이 오갔다. 바닥에 고여 있던 물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때 아닌 난리에 B단지의 정적은 깨진 지 오래지만 밖을 내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옷과 얼굴에 흙탕물을 잔뜩 묻힌 채 거지꼴이 된 두 사람과 달리 로열 타운 건물은 얄미울 만큼 산뜻했다.

바람은 차고, 땅은 뜨거웠다.

‖ 소설 ‖

어떤 귀향

김홍숙

앞산너머 멀리 만년재에 뿌연 구름이 걷어지면서 내리던 가을비는 시원한 바람을 몰고 온다. 바람을 맞으면서도 내 눈은 뿌옇다 못해 청회색 빛을 하고 있는 아랫마을에 꽂혀 움직이지 않는다.

삼촌은 왜 그랬을까? 왜 굳이 조상 대대로 물려온 텃밭을 절토(切土)를 하려는 것일까? 과거에는 논을 부치는 것이 훨씬 소득이 많았지만 지금은 밭작물이 매우 큰 소득원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작금에, 속 시원한 의론도 없이 조부와 나의 유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문전옥답을 말이다.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지는 심정으로 300리 길을 달려 왔으나, 도무지 알 턱이 없는 전답은 예 그대로 나를 반긴다.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텃밭을 절토(切土)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흐려진 날씨 탓인가 애꿎은 눈가로 자꾸만 손이 올라간다. 헛것은 아니었다. 거기 누군가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만년재 아랫길 꼬부랑길은 40여 년 전 어린 소년이 타박타박 걸어가던 모습이 바로 엊그제이듯 가슴 저미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한학을 하신 조부께서 대청의 버팀줄을 쥐신 채 내려다보시며 하시는 말씀을 듣고 등을 돌려 길을 떠난다.

대문을 나서는 등 뒤로 아직 감기가 덜 나으셔서 쿨룩대는 잔기침 소리가 가슴 한편에 찡하게 남는다. 그즈음 꼬맹이인 나는 결코 작은 아이가 아니었다. 동네의 작은 심부름은 거의 내 발품을 팔게 하셨다. 위로 누이들이 몇 있었지만 부모님이나 조부께서는 아녀자가 나서는 것을 썩 달가와 하지 않으셨다. 농사에 필요한 도구며 내가 이동하기에 과하지 않다 싶으면 의례히 나를 부르셨다. 덕분에 나는 40여 호가 넘는 동네에 집집마다의 식구들과 누구네와 누구네가 친척인지 아닌지, 마을의 대소사하며 귀동냥으로 다 듣고 있었다. 조부께서 누구네 가서 농기구를 찾아오라 하시면 대답과 함께 꼬불꼬불한 작은 길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와서 미끄러지듯 이내 다녀오곤 했다. 그런 내가 신통하였는지 조부께서는 늘 심부름을 보내시고는 아무 염려도 하지 않으신 듯 심부름을 제대로 했는지 질문하셨다. 그리고는 그곳을 다녀온 길과 도중에 보고들은 것을 소상히 그림으로 그리면서 조부님 앞에서 설명을 해 드려야만 심부름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터덜거리며 가는 중에 눈에 띄는 황새라든가 논둑에서 일하시는 친구네 부모님이나 동네 아재나, 그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것까지도 소상히 기억해 두기로 했다.

심지어 그분들이 무엇을 심는지 김을 매고 있는지 거두는지 자세히 보아두면 보고 드릴 때 이야기 풀어 나가기가 아주 수월해 졌다.

오늘은 산중턱 작은 암자 뒤에 사는 도토리 아저씨 댁에 다녀오라고 하셨다.

아저씨께 갖다 드리고 오라는 작은 보퉁이를 허리에 잘 동여매고 걷기 시작했다. 절은 동네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동무들하고 그곳에서 참꽃을 꺾으러 몇 차례 가 본 기억이 있어서 내발은 저절로 달음질치기 시작했다. 입 속에서는 흥얼흥얼 음악시간에 배운 노래가 흘러 나왔다.

봄에는 싸리비 꽃잎을 쓸고
여름엔 싸리비 빗물을 쓸고
가을엔 싸리비 낙엽을 쓸고
겨울엔 싸리비 흰 눈을 쓸고

산자락 초입에는 찔레나무 넝쿨이 자잘한 촉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있다. 한겨울 동안 검붉은 녹색의 건강한 줄기 모습을 간직해 오더니 먼저 파릇한 잎새를 밀어 내고 있다. 언덕배기에는 이른 봄 가장 먼저 피는 노오란 산 동백나무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듯 환하게 피어 있다. 아직은 회갈색의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메마른 숲속에 환한 빛깔과 그윽한 향내를 뿌려준다. 그 나뭇잎을 씹어보면 생강냄새가 난다하여 생강나무라고도 했다. 동네 집집에는 하얀 오야꽃과 붉은 살구꽃이 꽃망울을 매달고 있었다.

좁은 길로 들어서자 절 입구에 있는 향나무 밑 옹달샘이 눈에 띄어 샘 입구의 돌다리에 올라서자 맑게 샘물을 쳐 둔 것이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깨끗이 퍼내고 새 물만 가득 받아둔 것 같았다.

"어?"

순간 기대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누군가 샘물이 나오는 구멍 앞에 미역줄거리를 놓아둔 것이 아닌가. 새벽예불을 드린 불자가 헌물한 것이리라.

그전에도 몇 번 보았으므로 염원하는 이의 정성을 보아 그냥 돌아섰다. 암자로 들어서는 길은 좁은 곳임에도 양옆으로 아주 여러 가지 꽃모를 심어두었다. 아직 피어있지 않아도 해마다 보는 곳이라 안 보아도 나는 다 보이는 듯하다. 빨강색의 샐비어 꽃이 가장 많이 필 것이고 봉숭아, 백일홍, 채송화 그리고 일찍 핀 꽃은 향기가 진한 작약과 모란꽃이다. 그리고 어린 내 눈에는 늘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눈덩이 같은 불두화와 철철이 피어날 꽃을 그려보며 오르는 길은 벌써 갈림길에 섰다.

오른쪽은 대웅전과 석당간이 있는 길이고 도토리 아저씨네는 왼쪽으로 이십 여분 더 걸었던 것 같다.

동네 사람들은 논이나 넓은 마당에 모판을 만들고 담배 모종이나

고추모를 심어서 애지중지 키우느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도토리 아저씨는 총각 때는 동네일을 도와주며 함께 살았는데 결혼한 여자가 문둥이라는 소문이 나서 산 입구에 움막을 짓고 아들 하나와 셋이서 살고 있다. 마침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듯 했고 그 아래에 있는 논가에는 어린 미나리 싹이 벌써 올라오고 있다.

나는 좀 쉬었다 갈 요량으로 논둑에 앉아 미나리를 몇 포기 손가락으로 캐 보았다. 붉은 줄기가 질기게 느껴지며 하얀 뿌리가 뽑혀졌다. 윗 쪽으로 쳐다보니 아! 온통 분홍빛 천지, 진달래 산이었다. 그 황홀감에 마냥서서 바라보다 '아참 심부름!' 하며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한다. 희안하다 잎도 나지 않았는데 벌써 꽃이 활짝 피다니, 비슷하게 생긴 철쭉은 잎이 푸르게 난 뒤 에야 커다란 꽃이 피었는데…… 호로록 호로로록 머리위로 날아가는 새는 샛노란 꾀꼬리였다.

"고옵다"

샛노란 빛깔이 큰누님의 저고리 빛깔 같다고 생각했다. 꼬로록 꼴꼴 물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자 나무로 성글게 만든 삽짝 문이 눈에 띄었다.

"이 집이구나 도오……"

아니야 어른인데 무어라고 부르지… 친구들과는 아저씨의 앞 머리칼이 없어서 어른들이 도토리처럼 벗겨졌다고 하며 그렇게 불렀지만 지금은 무어라 불러야 하나 난감했다.

그냥 부르자고 마음을 정한 뒤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삽짝 문을 세게 흔들었다. 아무도 없나? 잠시 기다리자 너저분하게 붙은 문종이 같은 것이 조금 흔들리더니 그것이 문이었는지 부스스 열리고 머리가 길지는 않으나 헝클어진 아저씨가 나오셨다. 그는 눈도 좋지 않은 듯 가늘게 떠 보이더니

"거, 누구여?, 으음 너는 저 아래… " 하시며 나를 알아보는 모양이었다.

나는 가까이 가서 허리춤의 물건을 끌러 드리며

"할아버지께서 다녀오라고 하시길래…" 했다.

"어른께서는 여전히… 미물만도 못한 저를 기억 하시는군요." 더듬더듬 간신히 말을 하시며 눈가로 손이 올라갔다.

나도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외딴 산속으로 쫓겨 들어온 아저씨, 아니 그전에 우리 집 머슴을 할 때 나와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지난날 아픈 기억을 생각하며 내가 가려고 멈칫거리자 그가

"도련님, 잠시만" 하더니 무엇인가 꺼내 건네주었다. 그것은 내가 아주 좋아하던 호디기(버들피리)였다. 나무하러 다니는 그를 따라가면 크고 작은 호디기를 많이 만들어 주어 나는 신나게 불며 온 산을 이리저리 내달렸었다.

"여전히 좋아하시는군요, 도련님."

그는 내가 입이 귀에 걸린 듯하자 덩달아 밝은 얼굴이 되었다. 그러나 이내 돌아가려고 하는 낌새를 보고는 아쉬운 모양으로 너덜거리는 그 삽짝 문을 열어주며 "어르신 안부를 여쭙더라고…" 했다. 발길은 내려오고 있으나 마음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었다. 정말 그의 부인은 문둥이일까 조부께서는 잘 낫지 않는 피부병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뒤돌아보면 아저씨가 우실 것 같아 나는 보지 않으려고 힘껏 달려 왔다. 오르는 길은 멀게 느껴졌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나는 이웃에 다녀오듯 금방 동네로 들어섰다. 조부께서는 봄볕을 쬐일 겸 대문께 에서 왔다갔다 집 앞을 거닐며 내다보시다 내가 눈에 뜨이자 기쁜 나머지

"옳다, 곧장 다녀왔구나, 그래 아저씨는 집에 계시든?"

하셨다.

나의 자초지종을 들으신 조부께서는 연신 그래, 그래, 불쌍한 사람, 하시며 안됐다는 표정을 하셨다. 나는 여느 때처럼 조부를 따라 사랑으로 들어가서 동네를 지나 윗마을과 꼬부라진 길을 지나며 본 봄꽃과 새들, 일하던 동네 사람들, 도토리 아저씨네 집 등을 그려서 조부께 드렸다.

집 앞의 텃논에 심은 보리가 제법 누렇게 익은 여름이 왔다. 차차

날이 더워지자 나는 친구들과 저수지 아래 봇도랑 물에 멱을 감는 횟수가 점점 늘어만 갔다. 오전에는 시원한 대청마루에 배를 깔고 누워서 여름방학 숙제를 하다가 스르르 잠이 오곤 했다. 그러다가도 조부의 부르심에 벌떡 일어나면 앞 마당가에 붉게 핀 백일홍이 눈에 띄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빛은 핏빛처럼 강렬했고 튼튼하게 뻗은 나뭇가지에 여러 송이가 겹으로 피어났다. 백일홍 뒤로는 붉은 칸나 꽃과 노란색 글라디올러스가 담장처럼 우뚝 서있다. 맨 앞줄에는 채송화 그 뒤로 분꽃이 해가 지는 오후만 되면 약속처럼 피어주었다. 그 꽃들은 여름부터 하얀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 까지 피었는데 어쩌면 우리 집에는 그 꽃들이 영원히 피어 있을 줄 알았다. 꽃들과 함께 꽃이 지고 씨앗이 여물 듯 나도 조금씩 자라고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다.

"들어 오너라."

낮잠이 아직 덜 깨어 대청에서 엎드린 채 엉덩이를 쳐들고 있는 나를 부르셨다.

"선선해지면 걷기가 좀 나을 거야, 서당골 넘어 너의 작은 고모네 좀 다녀와야겠다. 하루 묵어 내일 오도록 해라."

"예."

나는 조부께서 건네주시는 편지와 지폐 몇 장을 양주머니에 갈라 넣은 후 인사를 드리고 길을 나섰다.

내가 그때 초등학교 3 학년이었으니까 여남은 살이 되었나보다. 고모네 집은 아주 어려서 조부와도 함께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십리가 족히 된다고 하셨다.

해거름이기는 해도 낮에 받은 땅의 지열은 아직도 후끈후끈했다. 산길 옆으로 들어서자 차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길가에는 개망초 꽃이 하얗게 피어 흰 손을 흔들며 나를 배웅하는듯했다. 장마가 지고 나면 여지없이 나타나는 노란 원추리꽃이 길가에 무리지어 있어서, 마치 등불을 켜 들고 있는 착각이 들었다. 한 고개를 넘고 두 번째 고개를 오르려니, 작은 누나가 속삭이던 말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진다.

여우골에는 여우가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홀린다고 했다. 나는 주먹을 꼭 쥐고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들었다. 만약에 보인다면 나도 대항해야 할 것 같았다. 여우골 입구에는 길을 내느라고 산을 파헤쳐

서 산자락이 갈라져있는 모습이, 마치 무슨 짐승이 숨어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툭, 툭."

흠칫 놀라 발길이 멈춰졌다. '여울까?' 주위를 살피자 검은 청설모 녀석이 머리위에서 참나무 잎을 쪼아대고 있었다.

"너였구나."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발걸음에 힘이 가해졌다. 고모네는 두 고개를 넘고도 능선을 타고 한참 가고 나서야 삼태기처럼 쑥 들어간 동네에 있다.

몇 사람에게 물어보고서 찾아간 고모네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다. 마침 담배 잎을 따는 날이라 장정 일꾼들이 더워 못 견디겠다는 듯 웃통을 벗거나 바지를 둘둘 말아 올린 모습이 눈에 띄었다.

여자들은 담배 잎을 새끼줄에 꿰고 있다. 고모는 나를 보자 반가워 뛰어오면서도 웃음이 없는 얼굴을 나는 읽을 수 있었다. 곱기만 하던 고모의 눈가에 진 잔주름은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고달픈 삶을 사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 아주 좋은 오누이 였던 고모는 물을 이어온다든가 알밤을 주우러 가는 새벽에 장난을 거는 아버지와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잘 지냈다 한다. 늘 양보하고 그러려니 하고 사는 모습에서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담배일이 다 끝나고 냇가로 씻으러 가는데 따라갔다. 우리 동네의 봇도랑 물과는 다른, 맑고 깨끗한 물이었다. 고운 모래를 발로 뒤적이면 파랗고 노란 빛의 작은 조개가 나왔다. 정신없이 줍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백로의 침묵어린 모습에 나도 먼 미래를 생각해 보았다.

이다음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게 될까 하고, 그러다 산 윗 쪽에 집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무슨 집이 저럴까. 처음 보는데……."

"그건 집이 아니고 오래 전에 선비들이 글공부 하던 취묵당이라는 곳이야."

마을에서 외 따른 곳에 있는 그 집을 보자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가보고 싶었다.. 그 집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날이 저물었다며 고종사촌들이 나를 챙겨 어둑어둑해지는 길을 가고 있다. 참외를 따러간 고모가 옥수수가 벌써 익었다면서 소쿠리를 머리에 이고 내려오고 있다. 저녁을 마치고 마당에 멍석을 깐 다음 고모네 식구들이 모두 둘러앉아 모깃불을 놓고 옥수수를 먹었다. 나는 옥수수를 씹으면서 곱던 고모가 너무 정신없이 산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고모는 식구들에게 끊임없이 냉수며 필요한 물건을 갖다 주고 조금도 귀찮은 기색이 없었다. 나는 고모가 내가 볼까봐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했다. 졸음이 스르르 왔다.

"어린 사돈이 걸어오느라 피곤한가보다 자게 두어라."

사장어른의 말씀에도 못들은 척하고 멍석 한 쪽에서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고모가 불쌍하여 자꾸 눈물이 나려고 했다. 자는 척하며 내일 조부께 뭐라고 말씀드릴까 궁리를 하다 잠이 들었다.

추운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어느새 방에 들어와 있고 모두들 일어났는지 나만 누워있다. 부끄러움에 재빨리 이부자리를 개고 부엌으로 살그머니 가서 고모를 불렀다. 내가 일찍 가겠다는 내색을 하자 고모는 날도 더운데 그게 좋을 거라고 승낙했다.

돌아오는 길은 언제고 발걸음이 가볍다. 같은 길을 되짚어 가는데도 훨씬 가까운 느낌이 든다. 고모가 고갯마루까지 배웅을 와주었다.

"겨울 방학에 또 와야 해."

고모는 웃었다. 아니 웃을 일이 없는데 나를 위로하느라 일부러 그런 척 한다고 생각했다.

길 옆에 있는 묘에는 늦 고사리가 무성했다. 산길 사이로 오는 길옆에는 국수나무가 즐비하고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는 무궁화나무가 쭉 심어 있는데 보랏빛 무궁화가 선명한 모습이 아침이라 더욱 고와 보였다. 어디선가 따각따각 소리가 들렸다. 귀를 모으고 사방을 살펴보니 아주 키가 큰 미루나무가 밭둑에 서서 내는 소리였다. 미루나무는 입자루가 길어서 긴 끝에 잎이 서로 부딪치고 있다.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에 할 말을 잃고 서 있는데, 스르르 바람이 불어오자

일제히 모든 잎들은 부채질 하듯 펄럭이고 있다. 그때마다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따각따각 하고 있고 그것은 어떤 장엄한 의식을 치루는 것 같았다.

나도 한 사람의 제관이 된 느낌으로 한참을 바라보며 듣고 있었다. 살아가는 내게 어떤 큰 인물이 군자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가르침을 주는 분이 미리 환영으로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다. 큰 나무로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을 이끌어야 하리라. 그렇다면 진실로 소인이 아닌 군자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시던 조부의 말씀을 곱씹으며 걷다보니 어느새 우리 집에 다다랐다. 마당가의 꽃밭에 물을 대주고 꽃나무들을 목욕시키듯이 시원하게 물을 퍼서 뿌리시던 조부는 내가 나타나자 반겨주시며 대뜸

"고모가 웃더냐?"

하셨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을 얼른하고 아직 머리에 남아있는 미루나무에 대하여 빨리 그리고 싶어서 정신없이 도구들을 늘어놓았다.

"네가 아주 좋은 것을 만났구나."

조부께서는 덩달아 기분이 좋으신 듯 내 옆에서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흐뭇한 표정으로 그리기에 열중한 내 손끝만을 바라보고 계셨다. 고모네 집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그 많던 별들과 따각거리던 미루나무 소리를 꼭 조부님께 들려 드리고 싶어서 크고 힘 있게 그렸다. 미루나무는 나무로써만이 아니라 어떤 큰 사람을 만난 느낌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푸른 신록으로 내게 추억을 주던 여름이, 서늘한 가을바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누렇게 풍요로움의 계절 이 오고 있다. 나도 이제 고 학년이 되어 친구들 중에 부쩍 큰 키를 하고 있다. 그동안 마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겼다. 마을 앞에 넓게 다듬어진 신작로가 생기자 더위를 피하여 밤이면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낮에 하던 농삿일이나 마을의 대소사를 나누기도 했다. 나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예배당 거리에 사시는 아저씨의 재담에 밤이 이슥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머니께 꾸중을 들은 기억이 있다. 그 신작로는 동편과 서편 마을의 중간지점에 있어서 동네 소식을 다 알게 되고 위로는 저수지물이

흐르고 양 옆으로 훤하게 트여서 여간 시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일까 갑자기 산이 사라지고 길이 바뀌더니 마을에 커다란 슬픔이 생겼다.

젊은 청년들 몇몇이서 신작로가 에서 아예 자리를 펴고 잠을 청한 것 이었다. 밤이 이슥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거의 들어가고 잠든 청년들이 뒤척이고 있을 때 멀리 커다란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다 한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밤 짐승인줄 알고 마냥 달려 지나갔다고 한다. 다행이 길 가운데서 자던 사람은 천운으로 살아났지만 가장자리에서 자던 두 사람은 참혹한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 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았다 다 키운 자식을 잃은 부모님은 실성하여 밤낮 그곳에서 서성거리며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피폐 해져 갔고 살아남은 친구와 그 식구들은 괴로움에 더는 볼 수가 없어서 하나씩 고향을 떠나갔다

요 몇 년 전부터 동네의 양편을 이어주는 넓은 신작로를 내고 그 윗동네와의 사이에는 저수지를 만드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남포를 터뜨리는 소리에 모두들 자주 놀라곤 했다.

이제는 물을 채우는 일과 나무를 심고 길을 다듬는 일만 남았으니 나들이에도 괜찮겠다 하시던 조부께서는 이번에는 작은 아버지 댁에 다녀오라 하셨다.

나도 이제 열세 살이 되어 육학년이 되었으므로 이제 걸어서 가는 심부름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언젠가 사촌동생의 백일이 되었을 때 엄마와 함께 갔었는데, 다리가 아파서 몇 번이고 쉬어가던 기억이 있다. 조부께서 상세히 알려 주셨으므로 나는 그 약도를 들고 찾아가기로 했다.

"얘야 반드시 산 안쪽으로 걸어야 하느니라. 저수지 쪽은 아직 흙이 여물지 않아 위험하다, 명심해라."

"예, 반드시 산 안쪽으로 가겠습니다."

저수지를 안으로 끼고 두어 모롱이쯤 돌아 갈 때 흠칫 놀랐다.

불과 몇 년 전에 이웃마을의 아주머니가 남편과 다툰 후 아기를 업은 채 이곳에서 빠져 죽은 것을 바로 눈 아래 있는 산 다랑이 논둑과 저수지 둑 사이에 건져 두고는 가마니로 덮어 두었다. 그때 동네 친구들과 몰려가서 보았는데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무서워서

눈길을 줄 수가 없었다. 그때 등에 업힌 애기가 신었던 고운 꽃무늬의 꼬까신이 눈앞에 아른 거렸다. 물고기가 그 두 사람을 먹이로 알고 건드린 곳이 마마자국처럼 울룩불룩 하던 것도 바로 어제인 것처럼 떠올랐다. 문득 조부께서 안쪽으로 가라고 당부하시던 기억이 떠올라서 급히 산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산길에는 미백색의 왕고들빼기가 예쁘게 피어서 싱그런 바람에 한들거리고 조금 위쪽으로는 키가 훌쩍 큰 노란색 마타리 꽃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서당골 너머로 들어서자 오른쪽으로 누런 물결의 벼논이 환하게 나를 맞이하는 듯하다.

천수답이 이어지는 이곳은 농약소독을 하지 않았나보다. 천천히 걸어가는데도 메뚜기들은 잽싸게 벼 포기 사이로 숨바꼭질한다.

“에잇”

한 마리 잡아보려 하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살며시 손을 펴 보지만 또 헛손질이다.

녀석이 얼마나 빠른지 번번이 스치기만 한다.

논둑 옆 작은 도랑에는 물봉선과 여뀌, 그리고 복화실처럼 알록달록한 고마리 꽃이 곱게 단장을 하고 맞은 편 산 입구에는 내가 가을이면 가장 먼저 기다리는 꽃, 쑥부쟁이, 보랏빛 들국화가 훌쩍 큰 키로 나를 넘겨보고 있다.

저수지 발원지를 뒤로하고 나는 한적한 오솔길을 걷는다. 길섶 그늘을 빠져나온 차가운 바람이 훤하게 뚫려 있는 언덕 오솔길을 따라 스치듯 가벼이 불어온다.

들국화. 이 가을 들꽃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마음속 깊은 곳의 먼 기억이 있다.

노마. 내 어릴 적 소꿉친구. 그 애가 떠날 때 어린 내 가슴이 왜 그리도 아팠는지, 노마는 얼굴이 하얗고 계집애처럼 조용하고 키가 작은 아이였다. 언젠가부터 나는 들국화를 보면 노마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 애를 마음 한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고요한 숲길에서 나는 노마가 곁에 있는 양 노래를 불렀다.

꼬불꼬불 산에는 가을이 온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갈바람 타고
꼬불꼬불 산길 따라 마을로 간다.

가을꽃을 바라보며 시간이 훌쩍 지난 것도 잊었다. 마악 삼거리를 벗어나고 이제부터 나타나는 동네를 쳐다보니 좌측으로 가면 잿말이고 우측으로 가면 삼방리 작은 아버지 댁으로 가는 길이다.

삼방리는 조부의 말씀에 의하면, 옛날에 고려말 충신이던 배극렴이라는 분이 이곳에서 은거하였는데 근세조선 태조 임금께서 세 번이나 찾아와 정사를 의논하였다 하여 삼방리라고 하였다한다

바로 아래에 『반능』 이라는 마을이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시대의 이야기다. 요순(堯舜)의 정치에 비교되는 문화의 흥륭기(興隆期)인 세종대왕이 학문과 법령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던 때이다. 세종을 도와 오늘날의 한글인 훈민정음 창제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고려사(高麗史) 등을 편찬한 사람이며, 학문을 하는 사람 최고의 영예인 대제학과 최고의 벼슬인 영의정을 지낸 문성공(文成公) 학이재(學易齋) 정인지(鄭 麟趾)선생의 묘소가 있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반능이 되었다고 한다.

길 좌우로는 고추밭과 검은 비닐로 씌운 인삼밭이 군데군데 있고 유난히 푸른빛을 내는 곳은 가까이 가 보니까 가을 김장밭 이었다. 무우가 벌써 제법 굵어져서 몸이 희고 고운 모습이 한 잎 베어 물면 맛이 그만일 것 같아 침을 꿀꺽 삼켰다.

먼 곳의 산이 차츰 뿌옇게 되고 가을비가 후두둑 후두둑 주위에 찾아든다. 시원한 바람과 들꽃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의 역사를 기억한다. 어린 내 가슴에도 고향산천과 선조들에 대한 마음 저 밑바닥에서 무엇인지 모를 그 무엇이 자꾸만 깊어지는 것을 느낀다.

이번에는 방앗간을 하시는 작은 아버지께 언제쯤 날이 비는지 여쭈어 보라고 하셨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신 작은 아버지는 여름의 보리타작과 가을의 벼 타작을 근동 농사거리를 거의 다하셨다. 그 일을 하기위해 무거운 발동기를 끌고 다니느라고 매우 고생을 하셨다.

20리 안팎의 동네를 두루 다니며 집집마다 발동기를 끌고 다닐 때

길이 고르지 못해서 이동할 때 매우 번거로웠다. 타작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어두운 밤에도 타작하는 소리가 '탕탕탕' 하면서 온 동네를 다 흔드는 것만 같았다. 그 소리를 듣고 가 보았는데, 어찌나 시끄러운지 일을 하는 사람들도 큰소리로 말을 주고받으며, 등불을 들고 겨우 보이는 곳에서 남은 것을 일꾼들이 털고 있다.

작은 아버지는 농한기가 되면 면소재지에 있는 병원을 자주 가셔야 할 만큼 몸이 허약해 지셨는데도 추수 때가 되면 잠도 안 주무시고 일을 하셨다.

구렛나루에 검은 수염이 길게 나고 퀭한 눈을 하고 있을 숙부를 생각하며 해거름이 되어서야 삼방리 마을에 들어섰다.

새로 제방 시설을 한 둑에는 수많은 들꽃들이 가을 옷으로 단장하고 샛노란 돼지감자꽃(뚱딴지꽃)이 지천으로 피어서 나를 마중 나온 양 소슬 바람에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다.

길 옆 풀숲에서 자줏빛 의관을 하고 지조 있는 선비처럼 제자리를 지키던 억새를 만났다. 가을바람 넘어오면 발 뒷꿈치 들고 키를 높이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억새꽃, 자수정이 햇빛에 반짝거리듯, 올해도 어김없이 풀숲에서 젊은 날의 영화를 만끽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백발의 머리 날리면서 떠난다는 기별을 으악새 노래로 알려주던 억새꽃.

나도 모르게 조그만 내손에 수정알 같이 반짝거리며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억새꽃을 쥐어 보았다. 사위는 더없이 고요하고 맑은 바람맞으며 혼자 가는 심부름길이 차츰 꽃과 나무와 새들과 벗하는 마음에 더없이 즐거워졌다.

마을 위쪽에 있는 작은 아버지 댁을 멀리서 바라보는데 누군가 서 있는 느낌이다.

자세히 보니 그동안 부쩍 자란 마을입구의 소나무이다. 그런데 그중 한 그루는 솔잎은 거의 보이지 않고 솔방울만 아주 많이 달고 있다. 이상하다. 다른 나무들은 단풍이 들어서 푸른 잎과 노란 잎이 함께 매달려 있는데, 아무래도 내일 조부께 여쭈어 보아야 할 것 같다.

내가 어두운 마당에 들어서자 부엌에서 저녁을 짓느냐고 불을 때시던 작은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며 달려 나오셨다. 인사를 드리고 조

부의 말씀을 전하자

"그러잖아도 생각하고 있지, 오늘 아침에도 일 나서면서 작은 아버지 말씀이 '천상 일 시작하기 전 새벽에 두어 번 가야겠어, 그래도 날이 안 되면 타작일이 일찍 끝난 날 아무 때나 들어가고' 라고 하길래 어디 인편이래두 기별 전하려 했는데 마침 잘 왔다."

고 하셨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온 탓인지 어린 나를 손님 대하듯이 작은 아버지는 저물어야 오신다고 저녁을 차려 주셨다.

"이 깻잎 반찬은 집에서 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뭘, 찬이 있어야지 청국장이 짜지 않은가 몰러."

나는 시장한 터라 장에 비벼서 금방 먹고 상을 물렸다. 그리고는 작은 아버지를 기다릴 겸 등잔 밑에서 오늘 만난 들국화, 쑥부쟁이, 돼지감자꽃, 억새꽃을 그리고, 여름의 들판처럼 푸르던 김장밭 등을 잊지 않으려고 연필로 그리고 있다.

그러다가 저수지가의 작은 논에서 만난 메뚜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오래 전에 보았던 죽은 아가의 꼬까신 생각도 났다. 무서움에 이불을 뒤집어썼는데 그만 내처 잠이 들고 말았다.

두런거리는 소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작은 아버지는 벌써 타작일을 떠나려고 채비하느라 분주하다. 내가 발동기며 기계를 유심히 살펴보자

"한 번 타 보련?" 하셨다.

"저 이것 타고 집에 가면 안돼요?"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떼를 쓰고 싶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집 동네서 가까운 데다, 잘 됐네 타고 가자."

아직 어둠도 채 가시지 않은 터라, 작은 어머니는 염려하시지만 나는 신이 났다. 경운기의 짐칸에 올라서서 내려다보이는 마을과 들판, 그리고 곱게 단풍든 가을 산, 어제 만났던 꽃과 나무들을 한 번에 만나는 느낌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霜降)이 지나자 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돌아오는 길에도 아직 벼가 그대로 남은 곳은 띄엄띄엄 눈에 보이므로 조부께 논일을 먼저 말씀드렸다.

다행이 안심 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궁금한 것을 여쭈었다.

“할아버지 어제 가는 길에 소나무를 보았지요. 그중 한 그루는 솔방울만 매우 많이 달고 있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해요.”

“네가 필경 일찍 온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을 줄 알았다. 지금부터 잘 들어라. 그건 소나무에 큰 병이 난 것이란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자손을 많이 남겨두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처럼 온 힘을 다해서 열매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는 것이란다. 자식나무가 살게 하고 자신은 죽어서 또 다른 영양을 쏟아내어 숲에다 모든 것을 주고 떠나려고 채비를 하는 것이지, 이런 나무를 보면 나무를 진찰하고 처방을 해 주어야 살 수 있단다. 이처럼 나무들도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몸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란다. 소나무처럼 다른 곤충, 식물, 땅도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숲이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되며 잘 보호하고 가꾸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번 지나는 동안 누나들도 시집을 가고 나도 어른들이 이르시는 높은 학교인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동안 조부께서 방학 때마다 사자소학(四字小學), 추구(推句), 학어집(學語集), 명심보감(明心寶鑑) 등을 가르치시고는 읍내로 나가 살기를 한하던 내 어머니의 원을 들어 주셨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종손인 나는 두고 가라고 하신 것이다. 대가족이 살다가 졸지에 외톨이가 되어 어찌하나 염려 되었다. 조부님의 배려와 가르침으로 그동안 자연 속에 있는 많은 친구들, 나무와 새, 꽃과 다양한 식물들, 심부름 다니느라 사철 걷던 들길과 오솔길 또 꼬부랑길들, 물과 바람까지 나는 이미 친구가 되어 조금도 외로운 줄 모르고 잘 적응하고 있다.

봄이면 겨울동안 저장하고 있던 만물이 내놓는 새싹들과 친구가 되었다. 여름이면 한참 자라는 식물들 속에서 나도 함께 자랐다. 가을이면 온갖 실과를 찾아서 밤나무나 참나무 밑으로 가면 재미있는 일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겨울이면 추위에 견디도록 운동도 배워 주신다음 가까운 친척집을 안부 차 한 바퀴 돌아오셨다. 그 나들이 길에

는 나를 꼭 데리고 가셨다.

대설이 지나고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가 가까워 오자 겨울방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조부께서도 미리 준비 하신 듯 과제물을 내 앞에 내놓으셨다

내용을 열어 보고 조부께서 이제껏 하시던 심부름의 양상이 폭 넓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30리 안팎의 고개, 동네이름이 붙여진 연유, 나무이름과 유래, 등을 조사하여 내라고 하신다. 아무래도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부지런히 답사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 부담이 적을 것 같다.

우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먼저 찾기 위해서 군지(郡誌)를 찾아보았다.

우리 동네는 아주 오래 전부터 가래나무가 많다하여 가래울이라고 한다. 가래나무 추楸에 고을 동洞을 넣어서 추동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웃 중국에서는 가래나무를 황제의 관을 만드는 최고의 나무라고 했다. 지금도 이 나무 목재를 윌넛(walnut)이라 하여 고급가구를 만드는데 쓰인다고 한다. 열매는 그 나무의 자녀라 하여 '추자' 라 하고 익으면 맛이 고소한데 단단한 것이 호도와 비슷하다 고 한다. 그런데 마을 언덕이나 산 입구에는 호두나무는 남아 있으나, 가래나무는 보기가 어려운 점이 매우 아쉬웠다.

또한 마을 유래를 살펴보면 동쪽은 고양산, 서쪽은 만령산이 있고, 서편 마을에는 수령 1000년이 넘는 은행나무와 500년이 된 느티나무가 있었으니, 이 마을의 천년 역사를 증명해 준다. 1953년에 만년제(저수지)가 축조되었고 1850년대에는 김용복 선생이 만년산 아래에다 서당을 세웠고 1950년에는 심상직 선생이 만취정을 세워 모두 후학양성에 힘썼다. 한다.

1888년에는 김태용 선생이 세상을 뜨자, 그의 부인 평강 채씨는 남편을 따라 자결하여 순종해 죽으니, 1902년 나라에서 열녀 정문을 명하여 추앙 하였다.

또한 심참봉 댁의 관록과 김원성 선생의 학문과 홍경학선생의 효행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예로부터 김, 심, 이, 주, 지, 최, 홍씨 등이 대대로 살면서 마을의 안녕을 위하여 해마다 기원제를 고양산에다 올

린다고 한다.

이렇듯 선대인들이 예와 효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실천하여 인재도 배출하고 인보 상조의 풍속을 갖춘 순박한 문향이 내 고향이다..

군지의 내용을 읽어 나가면서 나는 고향에 이런 사연과 이토록 훌륭한 어른들이 계신 줄 까맣게 몰랐었다. 내 좁은 소견을 한탄하고 선인들에게 새삼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나도 모르게 무릎을 치며, 그랬구나 하고 외치곤 했다.

겨울날씨는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다. 주위가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오며 길가의 나무들을 바라본다. 나뭇잎들을 모두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을 남긴 채 추위에 움츠린 나무, 찬바람을 견디고 눈보라를 이기며 모진 생명을 부지하고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겨울나무들, 얼어붙어 앙상한 겉모습과는 달리 겨울이 깊어질수록 나무들의 표피는 더욱 튼튼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생기를 발산한다.

한 겨울에도 나무들이 꽃눈과 잎눈을 키워 나가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난다.

새봄의 왕성한 생장을 위한 준비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한 성장이요, 자람이다. 노란 고운 빛으로 수많은 잎새들을 물들였던 은행나무는 가을 찬비를 맞으며 며칠 사이에 모든 잎들이 땅위로 내려앉는다.

나무 밑둥부터 가지가 뻗어 나가며 윗부분까지 힘 있게 잔가지가 쳐진 모습을 보면 그 질서 정연함과 조금도 감추거나 가리우지 않은 모습이 어느 성자의 고해성사를 듣는 듯하다

가슴을 다 드러내고 갈비뼈까지 훤하게 보이는 은행나무의 투명한 영혼의 순결, 덕지덕지 붙여진 사욕의 흔적으로 바닥에 있는 나의 양심을 발견하며 부끄러움에 더 추위를 탄다

은행나무는 벗은 모습 그대로 겨울눈을 달고 있다. 티눈처럼 얼굴을 내밀고 있던 작은 겨울눈이 조금씩 자라며 잔가지들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은행나무의 희다 못해 푸른빛이 나는 가지를 보며 화양동 계곡의 은사시나무를 떠올린다. 사시나무와 은 백양 사이에서 출생한 은사시나무는 화양 구곡의 제 6곡이 되는 능운대에 많이 있다. 능운대陵雲臺

는 큰 바위가 시냇가에 우뚝 솟아 그 높이가 구름을 찌를듯하다 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가에 나무 끝이 까마득할 만큼 매우 큰 키를 하고 있다.

나무껍질은 푸르스름한 은빛이며 입자루가 길기 때문에 미풍에도 무수한 잎들의 은빛 떨림은 가히 장관을 이루고 있다. 나무껍질에는 다이어몬드형의 모양이 문양처럼 각인되어 은빛 향연을 더해준다.

30리 안팎의 고개를 찾아보니까 산의 지형이나 마을 이름을 그대로 고개 이름으로 붙여진 곳도 있고 생김새를 보고 짓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변의 고개 보다 높다고 하여 높은 고개 또는
고현 놀미에서 지문이로 넘나드는 한지가 많이 나던 지문이고개
영촌에서 충주시 이류면 쇠실마을로 넘나들던 잿말고개
능현 사람이 충주장을 보러 다니던 파소고개
능현 남쪽 산이 말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말미고개
풍림에서 두촌을 거쳐 괴산장을 보러 다니던 12고개 중 첫째인 아시고개
건야와 풍림사이의 장고개
향촌에서 소이면 중동리를 거쳐 음성장을 보러가던 용고개
경사가 심하고 반들반들해서 붙여진 참지름고개

내가 넘어 다닐 때는 힘들고 언제 저 고개를 다 넘어가나 하였지만 하나하나 이름을 적어 보니 매우 재미있었다.

걸어서 다니는 심부름이야 십 여 년을 해 왔으니까 어느 장소이건 찾아가기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과제물은 조부께서 나의 사람 됨됨이 즉 그릇을 알아 보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 적이 염려가 컸다. 종손에게 거는 기대가 무너질까봐 두려움도 적지 않았었다. 과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가에는 미루나무와 느티나무가 늠름한 모습으로 곧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만 같았다.

그 이후 나는 자연스럽게 마을의 생태적 환경이나 지명과 그 유래, 마을의 여러 조직, 세시와 놀이, 신앙, 구비전승 등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마을을 둘러 본 것 같다. 왜 나는 여태 그것을 몰랐을까? 여지껏 좁은 소견으로 혼자라는 마음으로 살아 온 것을 이제는 알 것 같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몸은 떠나 천리 밖에 머문다 해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마을 느티나무 아래에 서면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그렇게 나무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도 혼자가 아닌 것을.

나무처럼 먼저가신 선조들과 조부께서도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나의 든든한 버팀목 인 것을, 하물며 함께 살아가는 형제와 친척이야 더 말한들 …

이토록 큰마음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삼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강경하게 맞섰으니,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도 오로지 조부님의 준비성 있는 교육방침이 아니던가? 조부님의 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아서라도 나도 그 어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한다.

온 가문이 종손이라는 이름아래 나 하나 만의 특권을 누리는 사이 그 그늘에 가리워진 막내 삼촌의 자리는 없었구나, 이제라도 그의 자리를 내 주어야 할 것 같다.

긴 가뭄에 목말랐던 나뭇잎들은 오랫동안 목마른 만큼 더욱 화려하게 차려 입고 나의 귀향길을 배웅한다.

한림도서관

박미진

인적이 드문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낡아빠진 한림도서관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는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폐허가 된 한림도서관이 생각난 것은 수능성적을 비관하여 투신자살했다는 수험생의 신문기사를 보고 있을 때였다.

매년 이맘때면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하는 그런 소재의 뉴스거리였는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한림도서관에서의 생활이 떠올랐다.

한림도서관에는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느 도서관과 다를 바 없이 꿈을 이루기 위해 도서관에 다녔던 평범한 인간의 이야기다. 이미 십 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꿈을 이루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림도서관에 다니기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그때까지 내 인생은 그런대로 순탄한 편이었다. 순탄하게 법대에 입학했고, 순탄하게 대학생활을 했으며 순탄하게 졸업했다. 문제는 졸업 이후 마땅히 공부할 장소가 없게 되면서 발생했다.

본가가 부산이었는데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입학하면서 홀로 서울에서 지내게 되었다. 학교 다닐 때는 기숙사 생활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졸업한 후에는 주머니 사정상 싼 자취방을 찾아다니다 보니 놀이문화가 발달한 번화가에 집을 얻게 된 것이다. 번화가 특성상 밤낮으로 시끄러워 집에서 공부할 수가 없었다. 무리하게 집에서 공부를 강행한 결과, 이 년 동안 줄기차게 일차 시험에서 낙방했다.

고시생계의 '장수생' 길로 접어들까 두려움에 떨던 나는 용호 녀석을 보며 용기와 위안을 얻었다. 이 녀석은 삼수해서 겨우 법대에 들어가 겨우 졸업했고, 나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일차 시험에서 낙방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 녀석이 나의 사정을 알고 함께 자신의 집에서 공부하자고 제안했다. 그 덕에 나는 삼 년 동안 이 녀석의 집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으며 같은 시간에 잠을 잤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다음 해 사법고시에서 이 녀석만 합격했다. 나는 또 떨어진 것이다. 하아…. 나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던 존재가 사라졌다. 나는 용호 녀석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었다.

장이 뒤틀린 것 같았다. 아무리 오랜 시간 변기통에 앉아 있어도 똥은 나오지 않고 배만 아팠다.

"재용아 괜찮아? 변비약 사다 줘? 아닌가? 배탈약 사야 하나?"

무어라 중얼대는 용호 녀석의 말을 가볍게 흘려버리고 변기통에서 일어나 텅 빈 변기의 물을 내렸다. 요란한 소리를 내더니 회오리를 일으키며 헌 물은 사라지고, 새 물이 흘러나왔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나 또한 헌 물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부로 용호 녀석의 집을 나와 시끄러운 번화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멀지만 조용하고 한적한 한림도서관에 다니게 되었다.

변기통이 준 섬뜩한 교훈 때문에 늑장 부릴 새도 없이 도서관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왔다.

한림도서관은 증조할아버지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도서관이었다.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의 육체적 노동과 금전으로 지어진 사립도서관이었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구원의 손길이 닿지 않아,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독서실에 가까운 곳이었다.

도서관은 단층건물이었다. 맑은 공기를 들이키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도도 없이 바로 도서실이 나왔다. 실내 가장자리에는 벽지처럼 책꽂이가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는데, 책꽂이 안에는 고시생들이 챙겨 온 개인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도서실 중앙에는 열두 개의 커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 나름 도서관 분위기를 낸다고 그 위에 칸막이를 설치해두었다. 하지만 칸막이가 너무 낮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추운 날, 테이블 중앙에 난로가 하나밖에 없었고, 창문과 문틀 사이로 찬 기운이 새어 들어와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없는 듯했다.

중요한 건 칸막이와 추위가 아니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 차 앉을 자리가 없었다. 집도 먼데 내일부터 더 일찍 올 생각하니 눈물이 찔끔 나왔다.

사실 자리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고 익히 들어와서 알곤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자리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이 도서관이 지어질 당시부터 이곳에서 공부하면 시험에 붙는다는 미신 같은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 말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서관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다.

나는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이 절실히 필요했다.

꼭두새벽에 일어나 추위와 맞서 도서관으로 향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사람이 현관문 앞에 몰려 있어 깜짝 놀랐다. 이러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게 될까 봐 얼른 그 사람들 틈에 끼었다. 난 손을 호호 불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위를 쫓기 위해 발을 동동 굴리며 도서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 손에는 교육학, 지적재산권법, 세법개론, 역사, 환경영향평가론, 헌법, 경제학 등 다양한 책들이 쥐어져 있었다.

도서관 문 열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그 때문에 사람들 틈에 끼어 옴짝달싹할 수 없었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더는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다.

드디어 아홉 시가 되었고, 시간에 맞춰 대머리 아저씨가 문을 열었다. 그러자 몰려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안으로 들어갔다. 자리 경쟁에 익숙지 않았던 나는 사람들 틈에 이리저리 치이다가 결국엔 자리 경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심지어는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도 자리에 앉았다. 허무했다. 한 시간 일찍 와서 기다렸는데…. 미련을 안고 발길을 돌렸다.

"아씨."

그때 내 등 뒤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세법개론 책을 들고 있던 머리가 살짝 까진 남자였다. 얼핏 보기에도 나이가 많아 보였다.

형씨도 나처럼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모양이다. 난 동지를 만난 심정으로 말을 걸었다.

"형씨도 허탕인갑네예. 아따, 지는 온 몸이 쑤시네예. 형씨는 괜안습니꺼? 뭔 놈의 사람들이 인정머리 없이 달려드는지."

주머니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 물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 처음이냐?"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경쟁자가 또 늘었구만.(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그건 인정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생존 본능인 거야."

담배를 쪽 빨아들이더니 이내 후-하고 내뱉었다.

"줄 서 있다가도 자리가 보이면 달려드는 건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생존 본능이지."

나도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왔다. 공부할 시간을 쪼개어 거울 앞에 서서 옆 사람을 팔꿈치로 밀치고 들어가는 연습을 했다. 아침에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온 몸을 풀고 밥도 든든하게 먹고 왔다.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난 어제와 다름없이 사람들 틈에 끼어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정각 아홉 시가 되자 대머리 아저

씨가 나타나 문을 열었다.

경쟁은 시작되었다. 난 연습한 대로 옆 사람을 인정사정없이 밀치고 들어갔다. 밥을 든든하게 먹어서 그런지 힘이 넘쳐났다. 퍽-

"아이 씨."

내 팔꿈치에 제대로 맞은 누군가가 욕지거리를 내뱉었지만, 난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리를 향해 달렸다. 그 결과 난로와 가까이에 있는 명당자리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숨을 돌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숨 쉬는 시간도 아깝다는 듯이 책을 펼쳐 공부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자리 경쟁에서 승리한 후 지금까지 쭉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이제 자리 경쟁에 익숙해졌다고나 할까? 난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마다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공부, 공부, 공부에만 매달렸다. 식사도 십 분 만에 해치워버리고, 화장실도 가는 시간이 아까워 세 번 갈 거 참았다가 한 번 가곤 했다.

그들의 모습이 폐기처분이 되지 않으려는 과수원의 상품처럼 느껴졌다. 과수원이라는 사회에서 컨베이어벨트라는 잣대로 인생의 등급이 매겨지는 상품과 조금도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공부하다 보니 나 역시도 폐기처분이 되지 않기 위해 공부에만 매달리게 되었다. 사법고시를 이 개월 앞두었을 때는 나도 과수원의 상품으로 완벽 빙의 되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도서관 입구에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도 아껴가며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국민체조로 몸을 풀고 있었다.

도서관 문이 열림과 동시에 사람들을 밀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쉽게 밀려났다. 아마도 추위에 몸이 꽁꽁 얼어붙은 모양이었다. 그때 머리에 힘을 빡- 준 여자가 하이힐로 내 발등을 콱- 밟았다. 그 순간 얼어 있던 내 발등에 고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아아."

아픔에 발등을 부여잡고 문지르는 사이, 명당자리가 만석이 되었다. 발을 절름거리며 남은 자리를 향해 뛰어야 했다.

추운 입구 자리에 앉았을 때 비로소 내 발을 밟은 여자가 누군지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서른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한껏 멋을 내고 왔는데, 왁스를 떡칠한 머리는 추위에 얼어붙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었다. 무엇보다 여자가 뿌리고 온 향수 냄새가 도서관을 가득 메워 머리가 아팠다. 옷은 추위를 잊은 듯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가 어찌나 말랐는지 젓가락 두 짝처럼 보였다.

우예든 간에 이 여자의 만행을 눈감아 줄 수가 없따. 점심시간 때 가서 사과 받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괄 받으러 가지 않았다.

여자는 명당자리에 앉아 공부는 안 하고, 도서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A4용지에 무언가를 끼적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섬뜩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시험날짜가 다가오자 식욕이 없어졌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낙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밥 생각이 전혀 없고, 먹으면 소화를 시키지 못해 체하기 일쑤였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졌다. 공부하다가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이 낡은 도서관이 무너져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시로 했다.

가뜩이나 시험 때문에 심란해 죽겠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앉은 여자가 이래저래 눈에 거슬렸다. 하필이면 나와 마주 보고 있어 쳐다보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눈이 갔다.

그 여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자주 했다.

망원경으로 멀리 떨어져 앉은 사람들을 살펴보았고, 화장실을 가려고 나가는 남자마다 쫓아나가 무슨 공부하는지, 공부한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빨리 Ep어내기 위해 대충 얼버무리고 도서실로 들어왔다.

"사법고시, 육 년."

이 여자는 갈수록 주제넘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도서실을 돌아다니며 고시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피곤해서 잠깐 눈이라도 붙이면 달려와서 흔들어 깨웠다. 사람들의 신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여자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었다. 고개를 들고 보진 않았지만, 정수리에 눈이 달려 알 수 있었다. 아…. 부담스러브라.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다.

심란한 마음을 이끌고 벤치에 앉아 억지로 밥을 먹고 있을 때였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용호 녀석한테서 전화가 왔다.

"친구야, 나 2차 떨어졌다."

심란하던 마음에 안정이 찾아왔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용호 녀석의 집에서부터 아프던 배가 더는 아프지 않다는 거다.

그래도 여전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건 매한가지였다. 그때 내 앞으로 이상한 여자가 다가와 도시락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재용씨 맞죠? 저는 주희라고 해요. 한주희."

내 이름은 우찌 알았지?

"책에 적혀 있는 거 봤어요~ 요즘 밥을 통~ 못 드시네요.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잘 먹어야 하는데…."

내한테 와이라노? 아…. 부담스립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도시락 좀 드셔 보세요.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음식들로 싸왔어요."

……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갑다. 무섭다.

이 여자는 나에게 굉장히 살갑게 대했다. 매일 내 도시락을 싸왔으며 그것으로 모자라 담요, 핫팩, 발 난로, 전기방석까지 사다 주었다. 부담스러워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그 물건들을 내 자리에 갖다 두었다. 나는 여자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여자는 금세 잠이 든 건지 책상에 엎드려서는 불러도 꿈쩍하지를 않았다.

난 부담스럽지만, 그냥 받기로 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깨달게 되었다. 그 선물은 일종의 뇌물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는 뭐 그런 의미의….

여자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났다. 지우개를 찾아 책상 서랍을 뒤적이면 지우개를 갖다 주었고, 목이 말라 입맛을 다시면 물을 갖다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손수 연필까지 깎아주는 세심함을 보였다. 나도 모르는 사이 여자의 호의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여자의 친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여자와 아주 조금 가까워진 후로 여자의 가정사를 줄기차게 들어야 했다.

"전 동생만 다섯 딸린 소녀 가장이에요.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막노동 일을 하셨는데, 높은 곳에서 발을 헛디뎌 낙하사고로 그만 돌아가셨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왔다.

"그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취직해야 했죠. 학력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을 졸업한 후배들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거 있죠? 결정적으로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고졸이던 제가 일 순위로 정리해고 당했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취직도 안 되고…. 어린 동생들은 배고파서 손만 빨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꺼내기 어려운 말을 스스럼없이 잘도 해댔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부담스러웠다.

여자는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무언가를 원하는 눈빛.

"재용씨는 어떻게 자랐어요?"

난 여자에게 해줄 말이 없었다. 이 여자가 궁금해 하든 말았든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 않았다.

말을 돌리기 위해 왜 공부도 안 하면서 도서관에 다니는지 이유를 물었다.

여자는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꿈을 위해서 다니는 거에요."

내가 어리둥절해하자, "재용씨도, 그리고 한림도서관에 다니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꿈을 이루려고 다니는 거에요. 더는 묻지 마세요." 라며 웃어넘겼다. 나 또한 별로 궁금하지 않아 그러려니 하고 넘겨버렸다.

시험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차 사법고시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도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도서관의 거의 모든 사람의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다. 나 또한 예민해져 입안에 허연 물집이 무려 네 개나 생겼다.

정말 스트레스에 깔려 죽을 지경이었다. 난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더 공부해서 내년에 시험 쳐뿌까? 아이다. 언제까지 고시생으로 살끼고? 나이가 몇인디….

하…. 고마 고시 공부 때려차뿌고 귀농해서 농사나 짓고 살까? 그라믄 내 인생은 우찌 되는 기지? 낙오자가 될 뿐이긋제….

이 중요한 시기에 쓸데없는 고민을 하다가 늦잠을 자 버렸다.

아홉 시에 일어나 도서관에 자리가 없을 걸 알면서도 도서관으로 향했다. 왠지 오늘 도서관에 안 가면 고시 생활을 포기해버릴 것만 같아서였다.

내가 도서관에 도착한 건 아홉 시 반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오늘따라 도서관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보통 때면 조용히 공부에 열중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누가 싸우는지 아주 소란스러웠다.

도서관 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명당자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어떡해서든 공부에 집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여자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형씨를 노려보고 있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싸움의 시작은 여자와 형씨인 것 같은데, 그들을 말리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형씨의 편이 되어 여자를 몰아세우고 있는 듯했다.

형씨가 의자를 발로 차며 말했다.

"와~ 사람 열 받게 하네. 아줌씨, 아줌씨가 도서관 전세 냈어? 시험이 내일모렌데 자리 맡아주기가 어딨어! 좋은 말로 할 때 책상 좀 씁시다?"

얼핏 보아하니 이 여자가 자신의 자리로도 모자라 다른 사람의 자리까지 맡아주면서 이 사달이 난 것 같았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형씨의 편을 들어 한마디씩 내뱉었다.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밥이나 해!" …… "공부 방해하는 것도 유분수지! 도서관엔 왜 다니냐?" …… "미쳤으면 곱게 미쳐!" …… "내 말이! 망원경 들고 염탐하지를 않나. 진작에 쫓고 싶었다니깐." ……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쁜 놈들. 사람 무시하지 마! 너흰 성공밖에 관심 없지? 너네 같은 애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거라고? 사람들을 대변할 거라고? 웃기시네. 너희가 바로 나라를 말ㅇ…."

말을 하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아끌었다.

"내가 자리 맡아놨어요. 매일 오던 시간에 안 오길래…. 어서 앉아서 공부해요."

그 여자가 맡아 둔 자리는 명당 중의 명당자리였다. 하지만 조금도 달갑지 않았다.

결국엔 내 자리를 맡아주기 위해 이 사달이 난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과 전혀 다를 게 없다. 마치 나도 한통속이라는 듯이…. 싫다. 이런 시선… 난 여자의 팔을 뿌리쳤다. 여자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다.

"누가 자리 맡아 달라 했나예? 만다꼬 여 와가꼬 공부하는 사람들

방해합니꺼? 다시는 여 오지 마이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도서관에 오라 오지 말라 말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여자는 내가 도서관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 화를 내자 적잖이 상처받은 듯했다.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나를 쳐다보며 서 있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나도 저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며 욕하고 있을 것 같았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 공부했다. 형씨도 싸움의 발단이 된 그 자리에 궁둥이를 붙이고 앉았다. 여자는 유유히 내 앞을 지나 도서관을 빠져나갔다. 진한 향수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그녀가 나간 후에도 한동안 향수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그 후 여자는 도서관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해 시험에서 나는 보기 좋게 낙방했다. 한림도서관에서 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그중 형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아…. 우린 죽진 않았지만, 사형선고 받은 사람과 다름없었다.

나는 다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도서관엘 찾았다. 그날은 자리경쟁에서 이겨 명당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내가 앉은 자리는 그 여자가 항상 앉던 자리였다. 이 자리에 여자의 향수 냄새가 옅게 배어나는 것 같았다.

나는 책상 서랍에 넣어둔 지우개를 꺼내기 위해 손을 집어넣었다. 이리저리 손으로 더듬어보아도 잡히지 않았다. 난 항상 그러했듯이 여자에게 지우개를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아차…. 인자 여자는 안 오제.

지우개를 찾아 고개를 숙여 책상 서랍을 들여다보자, 서랍 깊숙한 곳에 동그란 내 지우개와 함께 구겨진 A4용지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 종이에는 여러 가지 낙서가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그 여자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종이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남자들에 대한 정보와 이런저런 푸념 섞인 글들이 적혀 있었다.

그 종이에는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

‘재용, 서른 초중반, 평범한 외모에 육 년째 사법고시에 도전 중. 육 년이면 올해는 붙겠지? 육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라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을 때도 책임감 있게 가족을 포용해줄 것 같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친절하다. 내 이야기를 군말 없이 들어준다. 좋은 사람 같다…. 내 꿈을 이뤄 줄 가능성 팔십 퍼센트.’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남자의 정보가 왜 필요했던 것일까?

분명 나이가 많아 취직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혼정보회사 직원이라든가, 보험회사 직원은 아니었다.

내 궁금증은 이런저런 푸념 섞인 글에서 비로소 해소되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능력 있는 남잘 만나고 싶다! …… 왜 사람들은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만나는 걸까? 능력 있는 남잘 만날 수 없다면 곧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남자를 만나자!!! …… 왜 사람들은 내 꿈이 터무니없다고 말하는 걸까? 남자들은 어려울 때 옆에서 지켜주면 감동 받는다던데… 꼭 꿈을 이루자!! 주희 파이팅!’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꿈을 위해서 다니는 거에요.” …… “재용씨도, 그리고 한림도서관에 다니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꿈을 이루려고 다니는 거에요. 더는 묻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서관에 다녔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도서관에 다녔다.

그 여자도 터무니없는 꿈을 끌어안고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도서관에 뛰어들었을까?

그렇다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도서관을 떠나게 된 그 여자를 낙오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 후에 두 번 더 시험에 낙방했다. 그리고 한림도서관을 떠나게 되었다.

내가 떠날 때쯤에 한림도서관을 떠나는 사람이 하나, 둘 늘었다. 한

림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시험에 붙는다던 소문이 터무니없는 소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번화가에 새로운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낙후된 상태에서 머물렀던 한림도서관은 그렇게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갔다.

나는 그 도서관을 한 번씩 찾아가곤 한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수험생 자살 기사라도 보면 말이다. 도서관은 십 년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다. 재작년 여름에 전국을 강타한 태풍이 한림도서관을 한바탕 휩쓸고 갔다. 곳곳의 유리창이 깨졌고, 건물 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도서관 이름의 '림' 자도 떨어져 버렸다. '한 도서관'이 된 그날부터 완벽한 폐허가 되었다. 그에 반해 번화가 도서관은 몰려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십 년 동안 두 번의 리모델링을 한 덕분이었는데, 내 눈에는 그저 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발악하는 것처럼 보였다.

건물마저도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이 어쩌면 당연하다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우습게 느껴졌다.

난 한림도서관을 떠나면서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낙오자도, 폐기처리 될 상품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생은 짧고 내가 할 일은 많다는 것을.

한림도서관 또한 언젠가는 새로운 건물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을….

학생문단 | 수필

노정숙

유시경

이천호

隨筆

치명적 사랑 外 1편

노정숙

그는 나의 우상이다.

갸름한 얼굴에 숱 많은 검은 머리, 동그란 안경 안에서 반짝이는 눈동자, 살짝 올라간 입가에 웃음기가 묻어있다. 그는 학문과 혁명, 우정과 사랑에 온몸을 던진다. 생각과 행동이 함께 나아가는 사람을 우러른다.

혁명이나 민주화에 대한 내 첫 경험은 중학교 때다. 입학식을 했는데 대학생들의 데모 때문에 바로 휴교를 했다. 늦잠을 자도 되며 종일 뒹굴거리며 책을 읽을 수 있으니 그 때가 마냥 좋았다. 길지는 않았지만 그런 때가 종종 있어서 내 숨통을 열어주었다. 그 후 내 20대는 데모에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최루탄 냄새 가득한 명동성당을 오르내리며 눈물 콧물 흘리며 지나왔다. 우울한 80년대를 어정쩡 거쳐서, 91년에 처음 이 책을 만났다.

보다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열정인 혁명이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권의 책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구호가 아닌 감성어로 시대의 변화를 알리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의식과 가치를 깨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사람아 아, 사람아!》는 중국현대사의 격변기인 문화대혁명을 겪은 지식인들이 정치적 이상과 신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보여

준다. 역사적 소용돌이에 대응하는 11명의 인물이 돌아가며 일인칭 화자가 되어 이야기를 한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시선, 방관자의 처지에서 서술한다. 삶이란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타인과 엮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점 전환으로 보여준다.

실패한 혁명은 무자비한 상처를 남긴다. 천안문 광장의 영웅들처럼 항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처절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2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는 연인들이 시련 끝에 결실을 맺는 애틋한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묻는다. 사랑의 대서사는 인간 통찰을 바탕으로 한다.

작가 '다이 호우잉' 은 문화대혁명 중에는 혁명 대열의 전사로 참가했다. 그곳에서 당시 검은 시인으로 비판받던 시인 원제와의 비극적 사랑이 싹튼다. 이로 인해 반혁명 분자로 몰려 고난을 받은 체험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그의 용감한 사랑에 나는 열광했다. 묵직한 이데올로기가 머리를 누르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사랑을 갈구하는 꽃바람이 피어난다.

혁명전선에서 사람의 피와 눈물의 흔적, 고통의 신음을 박진감 있게 그리며 인성의 복귀를 외친다. '사람아 아, 사람아' 라며 사회주의에서 배우지 못한 인간학을 부르짖는다. 중국 현대 휴머니즘 문학의 기수답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슴 절절히 스며든다. 누구나 마음속의 '자기' 와 대화한다. 고독한 사람일수록 마음속의 '자기' 가 많다. 그 둘이 힘을 합쳐 고독을 이겨나가는 것이란다. 인생이란 얻는 것과 잃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때로는 잃지 않으면 얻을 수도 없다. 그의 통찰에 섞인 자조가 나를 바라보는 듯 서늘하다.

'혁명이란 다른 누군가가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항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다' 고 교육받은 이들은 투쟁하는 삶이 살아있는 삶이라고 외친다. 그때 중국은 정치철학이 바로 종교가 되고 경전이었다. 그들은 그 경전에 맞추기 위해 투쟁하고 또 투쟁하며 살았다. 이런 사회에서 '인간, 그 외에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를 외치는 이 책은 금서였다. 그러나 어느 날 느닷없이 나온 백묘흑묘(白描黑描) 이론,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쥐만 많이 잡으면 된다는 것이다.

부자가 선(善)이 되는 사회가 되면서 그들이 투쟁하며 가꿔온 경전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것은 또 다른 혁명이다.

이념을 버리고 경제를 택한 공산국가, 이곳도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되었지만, 그 배후의 저력이 두렵다. 투쟁정신에 자유를 얹으면 강력한 힘이 나올 것이다. 요즘 중국은 잠에서 깬 사자다.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을 바라보며 위협의 조짐을 느낀다. 역사는 쉽사리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을 거치며 낡았던 것이 의연히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 시대를 앞서 간 휴머니스트의 외침은 역사의 거름이 되었다.

한 권의 책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 혁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으로서도 뛰어난 이 책은 나를 깨어있게 한다. 사람이 중심이지만 사랑 없는 사람은 허깨비다. 지금 내게 혁명은 나 자신에 대한 투쟁이다. 만사에 적당히 타협하려는 비겁함에 대한 저항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

‖ 수필 ‖

나를 받아 주세요

나 삼문 벼랑에 섰습니다.

내가 먼 곳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 사람 중에는 왜 하필 바쁜 시간에 부고(訃告)냐며 투덜대는 이도 있을 테고, 잠시 추억을 더듬으며 가슴이 저릴 사람도 어쩌다 있겠지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철든 후 내 생은 눈치보기의 연속이었지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어림없는 일이지요. 내가 떠나는 자리를 찾은 벗에게 두 번의 절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나처럼 슬쩍 웃고 있을 내 영정사진을 보며 혀를 차는 대신 함께 씨익 웃어주길 바랍니다. 축제 같은 이별식이면 더 좋겠습니다. 잔잔하게 읊조리는 연도나 성가가 들린다면 황송하면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병 없이 앓는 날이 길어지면 장롱이며 서랍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내보내야 하지요. 산 사람의 물건은 숨이 붙어 있지만, 죽은 자의 것은 주인이 먼 곳을 떠나는 순간 함께 숨을 놓지요. 책이며 옷가지며 쓸 만한 것은 서둘러 새 주인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오래 쓴 물건에도 혼이 깃든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새 주인과 정이 들 시간이 필요하지요. 말년에 어머니는 계절이 바뀌면 성급하게

없앤 물건들을 다시 장만해야 했지요. 그때는 필요한 것이래야 보온을 위한 옷가지 정도였지만요. 지나치게 깔끔했던 어머니의 뒤처리를 보며 눈 흘기던 게 어제일 같습니다.

우리집은 제사가 많아서인지 자주 시루떡을 했는데 네모반듯한 것은 모두 이웃에 나누어 주고 식구들은 귀퉁이 세모 조각만 먹었지요. 어머니 심부름으로 음식바구니를 들고 동네를 도는 일은 재미있었지요. 그러나 이런 어머니가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살림을 하게 되면 나만을 위해 살리라 다짐했지요.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인지는 나중에 알았지만요. 좋은 것은 다 나누어주던 어머니는 마지막 육신까지 가톨릭의과대학에 기증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은 정리할 것도 없었지요. 내게 남은 것은 어머니가 손수 짠 삼베 홋이불과 풀물 들인 명주 목도리가 고작입니다. 나 역시 딸에게 물려줄 게 변변찮아 눈 흘김 당할 건 뻔합니다.

받아주세요. 숨을 놓은 내 육신을 바칩니다. 살아서도 한가롭지 않은 내 삶은 죽어서도 분주할 것 같습니다. 많이 혹사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쓸 만한 두 눈을 굳어지기 전에 누군가에게 얼른 주겠습니다. 무방비로 열어두었던 두 귀는 지니고 가렵니다. 늘 열어 놓았지만 제 몫을 했는지는 자신 없습니다. 다만 순명을 다하는 귀의 자세를 깊이 새기기 위해서 곱게 거두어 가려합니다. 다 쓰지 못한 뇌는 그대로 반납합니다. 한 번도 명석한 적 없이 궁리만 무성했지요. 제대로 건져 올린 건 없지만 참으로 빡센 노동을 했습니다. 때때로 머리와 엇갈리는 의견에도 잘 버텨준 가슴이 대견합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서인지 어깨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자주 칭얼대던 오른쪽 어깨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내 등뼈는 일찍이 위엄을 버렸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쌓인 피로로 근육이 꼬인 적도 많았지요. 힘에 부친 맏며느리질을 오래하면서 저절로 비굴해졌습니다.

부실한 대로 기꺼운 머리를 겨우 얹고 있는 긴 목은 늘 기울어 있었지요. 마음씨 후한 선배는 내 자세를 보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겸손의 표징이라고 했지만 실은 가당찮은 얘기지요. 들끓는 속내를 생각하며 들키지 않았음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매스라고하나요 그 벼린 칼로 가슴을 열 때 조심하세요. 늘 대책없

이 두근대던 심장 동네에서 아우성이 들릴지도 모르니까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웅얼거림이 가득할 거예요. 그곳은 아직 연륜이 만들어 준 빗금을 새기지 못했거든요. 수많은 잡것들을 걸러내던 콩팥이며, 쉬지 않고 흐르던 대동맥이며 내동정맥은 오래된 고단함에서 비로소 해방될 것입니다.

포르말린에 잠겨 팅팅 불은 나의 몸은 몇 번 더 남은 할 일을 위해 대기할 것입니다. 끝으로 신참 의학도를 맞을 것입니다. 실습실 해부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 뼈와 내장이 무사히 해체되고 그들에게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사이사이에서 흘러나올 내 한숨과 눈물이 마지막 부끄러움을 씻어주길 꿈꿉니다.

저기, 삼문 너머 어머니의 모습이 환합니다.

‖ 수필 ‖ 2011년 10월호 [책과 인생] 발표

이카로스의 연인들

유시경

- 태양의 서커스 '바레카이(VAREKAI)'를 보고

유리병으로 된 커피 하나, 멜론주스 한 병 사들고 대형 천막극장인 '그랑 샤피또(Grand Chapiteau)'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가 사진을 먼저 찍자고 한다. 서커스 시작 시간이 한 시간여나 남았으니 객장을 돌아다니며 여흥을 즐기자는 것이다. 수십만 원대를 호가하는 무도회 가면과 티셔츠, 모자, 양산, 기타 잡화들. 우리는 '핸드메이드(Hand Made)'방식으로 만들었다는 장신구들을 눈여겨보았다. 태양을 들여놓은 듯 내부가 화려하다. 그곳은 천막이 아닌 하나의 왕국이요, 다른 세상이었다.

사람들. 추억하고 싶어서 온 그들과 추억이 싫어서 온 나는 같은 공간에 떠있다. 연인들, 노부부, 가족단위로 부유(浮游)한다. 같은 음료를 마시고 같은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추억을 즐기는 사람들이 기념품을 산다. 기억이란 어쩌면 좀 벌레처럼 의식을 파고드는 일, 추억이 싫은 나는 아무 것도 사지 않는다.

막이 오르기 전, 두 명의 광대가 돌아다닌다. 서커스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객석을 돌며 몸 개그를 펼친다. 타피 루즈

(Tapis Rouge, 최고급 특석)에 앉은 관객 한 명을 데려가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사람들은 금색 가발을 뒤집어쓰고 파란 원피스를 걸친 채 방황하는 객을 보며 웃는다. 한순간 처참하게 망가진 저 남자. 광대가 관객을 보고 웃는 모양, 관객이 관객을 보고 웃는 형국이다. 이십여 만원의 거금을 내고 코미디를 해야 하는 그를 보니 우습다가도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 아마도 약간은 사전작업이 있지 않았나 싶은 쓸데없는 생각도 든다.

어두운 무대 저편으로 초록색 아기 도마뱀 -카멜레온이었는지 이구아나였는지 확실치 않다.- 이 기어 나오기 시작한다. 원초적인 네 다리의 힘으로 처언천히, 언제 닥칠지도 모를 위기에 대비라도 하듯이 몸을 좌우로 뒤젖히며 눈을 희번덕거린다. '변신만이 사는 길' 이라고 말하듯 그들은 자유자재로 탈바꿈하며 묘기를 부린다. 오, 착시란 얼마나 뻔뻔스러우면서도 훌륭한 인간의 감각능력인가. 도마뱀의 옷을 입고 탈피한 배우를 보니 신기하게도 그가 두 발 달린 인간이라곤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조명이 켜지며 바레카이 숲의 발명가, 혹은 돌팔이 과학자(스카이워처, Skywatcher라 불림) 정도 되는 듯한 노인이 반라(半裸)로 등장한다. 숲 밖의 온갖 소음을 잡아 자연의 소리로 증류한다. 비행기 소리, 자동차 소리, 인간세계의 왁자지껄, 그 모든 잡음을 파리채로 잡고 손으로 끌어당겨 독특한 증류기에 여과한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힘껏 누른 다음 숲의 소리로 치환한다. 아하,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까지 분쇄하여 새롭게 탄생시키다니. 내면의 상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어떻게든 그 기억을 긁어내야 하는 법. 형형색색의 외투 안에서 자유롭게 떠도는 배우들의 울음을, 상처를, 사랑을 읽는다. 추억으로부터의 도피. 자글거리는 우리네 기억도 한순간 그렇게 미(美)로 뒤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올라가면 떨어지는가? 스스로 머무르지 못해 현실을 뒤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었다.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의 황폐로부터, 나는 지금껏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일로부터 탈출구를 발견했다" 며 말년의 고독을 수채화에 담았던 헤르만 헤세나, 죽을 때까지 세상을

속여야 했던 로맹 가리처럼 모든 예술가는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추억과 현실은 함께 갈 수 없는 것. 잊을 수 없는 것들을 잊기 위해 날개를 파닥이는 것처럼 가혹한 형벌이 또 어디 있으랴마는.

구원을 얻으려는 것처럼 조명을 따라가며 한 남자가 '느 므 끼떼 빠(Ne Me Quitte Pas, 나를 떠나지 마세요)'를 부른다.

슬픈 척 눈 흘기며 나를 떠나지 말라니! 이처럼 우아한 인간관계의 불신이라니. 비통한 노랫말을 그는 어찌 그리도 가볍게 뱉어낼 수 있더란 말인가.

전날 밤, 일찍 문을 닫고 종업원 세 명과 함께 노래방에 갔었다. 한 사람은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자세로 출입구에 바짝 붙어 서서 '슬픔의 심로'를 불러재꼈다. 나는 종횡무진 모니터 앞에서 애교를 부리며 -그들과 함께 가야 하니 별 수 있나.- "어둠이 내려앉은 쓸쓸한 이 거리에 바람마저 불어오면 난 정말 외로워요. 가로등 불빛 따라 어디론가 가고 싶어. 비마저 내린다면 난 정말 슬플 거야." 라며 훌쩍거리는 시늉을 하였다. 통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 배우의 몸짓처럼, 가수의 소리처럼 절절한 감정의 패러디라니.

오로지 "뻐꾹뻐꾹" 되뇌기만 하는 뻐꾸기시계처럼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 추억도 어설프게 만들어진 새의 심장처럼 녹슬고 고장 날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묻는다. 새들은 왜 페루에 가서 죽어? 지루하잖아, 상처가 많은 곳은. 그 여자가 바닷가로 쓸려온 이유는 무엇이었지? 추억하기 싫어서? 그래, 지겨웠으니까. 그곳엔 아무 것도 없었거든. 누구도 새들이 왜 페루에 날아가 죽는지 모른다. 어떠한 단서도 없었으므로, 아무도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기억이 쌓여간다. 카메라 앵글을 따라 한 바퀴 뒤돌아서면 지난날은 사라지고 매 순간마다 제자리로 되돌아와 있었다. 달마다 정산해야하는 카드대금처럼, 그 카드와 상생하며 구매욕을 부추기는 캐시백 포인트의 적립금처럼. 그렇게 기억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온다. 못된 기억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편두통 환자처럼 머리가 아프다. K병원에 근무하는 박은 언젠가 술자리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것이 부드럽게 다가온다고 말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 바싹 다가가 "댁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더 무섭지 않나요?" 라고 되묻고 말았지만. 기억의 통증, 그것은 바닷가의 모래톱처럼 사각거리는 거라서 온갖 기술로 중무장한 의사의 처방조차 잘 듣지 않을 때가 있다.

가령 어느 밤에 꾸었던 꿈 하나는 지독한 악몽이었다. 나는 제대로 시간을 먹고 있는데 내 남자는 그것을 뱉어내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는 과거로 달아나려 하고 나는 점점 쇠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꿈은 단박에 잊히질 않아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킨다.

바레카이에 떨어진 이카로스도 그들처럼 과거에 대한 기억을, 끈적이는 날개에 대한 기억을, 수치(羞恥)에 대한 기억을 잊고 싶어 했을까. 숲 속의 요정들이 엉키어 춤추는 동안 나는 엉뚱하게도 다른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물에 갇힌 이카로스, 추락의 고통을 잊지 못하는 그가 다시 비상의 나래를 펼칠 때 여기저기서 관객의 함성이 터져 나온다. 슬픈 매혹이다. "재미있니?" 곁에 앉은 어린아이에게 묻는다. 사내아이는 대답하지 않는다. 아이 엄마는 환호한다. 나도 함께 날아갈 듯 소리를 내질렀다. 육체가 말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많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막이 내린다. 태양을 쫓는 이카로스들, 어디든 떠날 준비가 되어있는 광대와 배우들이 제 소임을 다한 듯 무대에 나와 인사를 건넨다. 잘 가란 말 한마디 없이 웃으며 손 흔든다. 비어있는 곳으로 그들은 또 언젠가 짐을 싸고 천막을 걷어 떠날 테지만 나는 읽다 만 지문(地文), 그 그물 속으로 날개를 파닥이며 도약해야 한다.

불이 켜지고 관객은 일어난다. 한 무리의 새떼가 천막 밖으로 걸어나간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명제는 너무 식상하지 않는가.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새들처럼 페루에 가서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비극이란 때로 이 어릿광대의 몸짓처럼 우습기도 하지. 집으로 오는 길, 한산해진 전동차 출입문에 기대서서 이카로스의 연인이 되어 흔들린다. 자크 레니에의 여자가 되어 떠나간다.

페루에 머무르는 내내 태양을, 달을, 조명을 쫓던 배우들의 몸짓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떠나지 말라는 그의 노래를 뒤로 하고 나는 '집'이라는 기억 속으로 돌아와 섰다. 틀에 갇힌 삶은 여전히 분주하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아부재기를 치고 있다. 음악과 음향이 마주치는 소리. 순간 귓속에서 추억이, 꿈이, 현실이 충돌하기 시작한다. 날갯죽지를 이은 밀랍이 흘러내린다. 이 끈적이는 미로와 추억이 없는 곳에 대한 그리움의 부조화라니! 나는 잠시 귀를 막고 섰다. 어느새 요란한 집기들의 소리가 닫히고 연속 촬영된 필름만이 쏟아져 내린다. 한 편의 무성영화 같다. 모노드라마 같다. 서커스 같다.

유랑극단의 광대들처럼 여러 개의 언어로 노래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슬픈 노래는 다만 슬프게 불러주길. 나는 웃는다. 느 므 끼 떼 빠. 이카로스의 찢어진 날개처럼 이 세상에 다시 떨어진다. 이제 추억이 싫다고 날개를 새로 만들진 않으련다. 그물의 텅 빈 얼개처럼 황량한 곳, 세상의 끝인 저 태양은 절대로 우릴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

‖ 수필 ‖

백운대는 향기로운 흰 백합꽃 外 1편

이천호

우이동 버스종점에서 소귀 천 계곡으로 접어들어 도선사 경내를 통과해서 오르는 하루 재는 등산 초입부터 진땀을 빼게 한다. 만경대에서 내리는 계곡을 따라 오르다가 백운산장에서 한숨 돌리고 위문을 옆으로 지나 백운대에 오르는 발길은 숨이 차지만 기분이 상쾌하다.
백운대는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추운날도 더운 날도 한가할 때가 없다. 새벽녘 먼동이 트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웃는 얼굴들, 즐거움이 가득한 얼굴들이다. 가파른 올림 길에 숨이 차지만 어느 누구도 얼굴에 근심이나 걱정거리로 혹은 기분이 나빠서 얼굴을 찌푸린 이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활기찬 사람들, 삶에의 의욕이 가득한 사람들, 젊음이 톡톡 튀는 생기발랄함 속에 묻혀서 함께 백운대에 오른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멋진 일인가? 올라오느라고 다리가 아프고 땀을 흠뻑 흘린 후에야 느끼는 맛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백운대는 전체적인 형상이 우리들의 어머니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위문에서 인수봉기단부까지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어머니이다. 막바지 중간 못 미쳐, 철 계단 오르기 직전에는 오가는 사람들로 언제나 엉키고 붐비는데, 숨 헐떡이면서 가파른 철 계단을 올라서면 아래 윗 바위

사이를 옆으로 가는 길인데 이곳이 흡사 허리띠를 맨 형상으로 허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깃대가 서 있는 최정상은 정수리로서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통일된 조국의 번영을 기도 하고 있다. 그 밑 통일서원 비아래 한 발짝 내려서면 얼굴부분인데 그 곳에서 판을 벌리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다. 그곳에서 쇠줄을 잡고 내려서는 곳이 바로 가슴, 어머니의 가슴같이 따듯하고 정겹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라도 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그 품에 안겨 정수리에 햇살을 받고 저 밑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정경을 감상하면서 편안하게 앉아 쉬기에 안성맞춤이다. 어머니 품은 수백 명이 족히 앉아 쉴 수 있고 끼리끼리 교분도 쌓고 정을 나누는 장소이다. 사교의 장소로서, 또 배고픔을 해결하는 장소로, 하늘에 고마움을 표하는 장소로, 각자의 인생을 관조하는 장소로도 제격이다. 이곳은 기념사진, 북쪽으로 인수봉을 남쪽으로 만경대를 배경으로 또는 깃대 봉을 배경하여 유명 배우 폼으로 사진을 찍으면 기분이 나이스다. 어머니 품에 안겼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 활짝 웃는 표정으로 찰칵 찍으면 멋진 기념이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곳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로 북적인다. 젊은이들의 패기와 용기와 정열과 희망과 도전정신으로 뜨끈뜨끈하다. 젊은 기운이 펄펄 끓는 용광로라고 할 수 있다. 늙은이도 젊음 속으로 녹아들어 젊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운대에 오른 사람은 남녀노소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젊은이, 패기 있는 젊음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다. 나는 새 해 해마지를 백운대에서 하기를 좋아한다. 새해 첫 아침, 아무도 보지 않은 찬란한 새 해를, 이글이글 타오르는 아침 해를, 오직 나만의 태양을 이 백운대에서 맞고 싶은 것이다. 백운대에 올라 새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본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다. 몇 해 동안 친구들과 함께 한해를 보내는, 또는 새해를 맞는 행사를 이곳에서 해 왔다. 그 덕에 내가 한해 한해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 찬란한 태양을 내 품에 품어 뜨겁게 간직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학공부로 푸른 꿈을 가슴에 안고 있다는 게 여간한 행복인가?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백운대여. 어머니 품에서 새해를 시작한다.

백운대는 한 송이의 흰 백합꽃이라고 할 수 있다. 백합향기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구기터널입구에서부터 족두리 봉, 또 구파발까지를 밑뿌리로 하여 자라나 비봉능선과 북한산능선을 백합의 꽃대로 하고, 의상 능선, 보현 능선, 칼바위 능선, 진달래 능선, 원효 능선, 상장 능선 등의 무성한 잎이 있어 튼튼한 백합 한 포기, 그 위에 백운대, 백합꽃을 피운 것이다. 백운대 정상깃대봉은 암술로서 먼 미래를 향하는 희망의 표상이요, 매일 북적이면서 울긋불긋 화려한 꽃가루의 역할을 하는 등산 인들은 새 희망을, 새 기운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만하면 아침햇살 받으면서 피어난 백합꽃, 얼마나 아름다운가? 향기가 풀풀 날리는. 서울시내 곳곳에 그 향기를 뿜어주어 시민들이 매일을 신나고 즐겁게 생활하도록 해주는 백합화, 백운대의 향기 속에서 나는 내일을 꿈꾼다.

백운백합이 아침이슬로 목욕재계하여 곱게 단장하고는 달덩이 같은 얼굴로 아침 햇살을 듬뿍 받고 새로 태어나니 찬란하구나! 등산인 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니 그렇게 반갑고 고마울 수가 없다. 새 몸으로 하늘의 기운을 내려 받아 이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아니 전 서울시민에게 전하는 것이다. 백운백합꽃을 피워낸 북한산은 서울시민의 놀이터요 시울시민의 사교장이며 사랑을 두텁게 하는 장소인 동시에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공간이다.

백운대는 젊은이들이 호연지기를 기르는 장소로서 더 없이 좋은 장소이다. 인수봉에서 록 크라이밍으로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미래에 세계로 뻗어나갈 대한의 굳센 기상을 본다. 골짜기마다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 서울시민의 생명수가 되고 온갖 물고기를 길러내며, 새 기운의 원천이 되어 주는 것이다. 백운대를 품은 북한산은 서울의 허파라고 할 수 있다. 북한산이 있어 서울의 공기가 맑고 서울시민이 언제나 새 희망으로 생활하도록 만들어 준다. 아름다운 백합화, 향기로운 백운대여.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여.

수수밭과 충주호수 길

가을의 수수밭은 아름답다. 붉은 수수 이삭을 머리에 이고 가지런히 정열하고 있는 수수밭은 참으로 아름답다. 깊어 가는 가을 들판에 누렇게 익어가는 다른 곡식에 비해서 수수밭은 붉기 때문인지 다른 작물에 비해서 특히 그 기품 있음이 눈에 확 들어온다.

나는 수수밭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선 떠오르는 게 수수팥떡이다. 수수팥떡은 애기 백일잔치나 돌잔치에는 빠지지 않고 해먹는 것으로 애기가 무병장수하도록 액 막음을 하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이 수수팥떡은 갓난 애기에게 횡액이나 잡귀가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기위한 예방적 차원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보릿고개가 높고 높아 넘기 힘겹던 시절에는 어린아이들의 사망 율이 높았다. 먹는 것이 부실하니 엄마의 젖도 부족했고 또 엄마의 젖이 영양도 시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아용 의약품 또한 별것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갖은 질병으로 어린 아이가 생명을 잃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그 불안한 심정을 수수팥떡의 힘을 빌어 달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풍속은 애기가 태어났을 때에 대문 앞에 금줄을 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것인데 금줄은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에 비해서 수수팥떡은 사람이외의 다른 못된 것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 이었는데 그러면 왜 하필 수수로 만든 떡이 그 역할을 했을까? 생각건대 수수의 색깔이 붉어서 일 것이며 그 붉은 색이 귀신이나 횡액의 접근을 막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때에는 관습적으로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고 모든 집안 식구들이 팥죽을 먹음으로써 횡액을 방지하고자 하는 풍속이 있었다. 붉은 수수에 붉은 팥고물로 만든 수수팥떡이야말로 잡귀를 쫓아내는 데에 특별히 효험이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 두메산골 이고 그곳에서 그런 토속적인 음식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으므로 지금도 그 맛에 자꾸 구미가 당기는 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수수팥떡이고 팥죽이고 간에 별로 즐겨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입맛을 실감하게 된다. 기왕에 수수음식이야기가 나왔으니 수수개기에 관한 얘기를 해야겠다. 그것은 수수가 완숙하기 전에 풋수수를 찢어서 풀죽처럼 만들어 먹는 음식으로 일종의 수수범벅이라고 할 수 있다. 수수범벅에다 동부나 팥을 곁들여 쑤면 그 맛이 가히 하늘같은 맛이라고 할 만큼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음식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보릿고개를 넘던 그때의 일이므로 무엇인들 그런 맛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이 별식은 아마도 내 고향에만 있던 음식이거나 그 때가 시대적인 한계점이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멸종된 게 아닌가 싶다.

그 당시에는 수수를 어디서고 많이 재배하였는데 지금은 수수밭을 구경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단양이나 제천 그러니까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가까이로 가면 수수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수수가 비탈 밭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수수가 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색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옛날에는 수수가 익어 가면 수수이삭이 고개를 숙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의 수수종자는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올 곧게 서서 익어가니까 볼 맛이 더 나는 게 사실이다. 그 모습은 마치 군인들이 정렬하여 사열을 하는 것처럼 질서 정연 하다. 군것 질 거리가 귀해서 배가 고팠던 때이므로 수수를 수학하고 나면 수수깡을 씹어서 단물을 빨아먹었었는데 배가 불러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궁금한 아이들이 입맛을 다시는 데는 군것질거리

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산허리에 던져진 듯 삐딱하게 자리 잡은 비탈 밭에 서있는 수수가 가을이 깊어 감에 따라 산기슭의 단풍과 어우러진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장관이다. 수수밭 자체도 아름답고 그 주위의 산기슭의 단풍 또한 아름다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연출하는 가을의 풍경은 가히 넋을 잃고 바라보기에 아주 십상이다. 게다가 밭 주위의 밤나무라도 있을라지면 탐스럽게 쩍쩍 벌어진 밤송이며 밤알을 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이었다.

충주에서 충주호수를 끼고 단양을 향해서 한참을 가다보면 청풍민속마을에 닿는데 그 주위에는 수수 북구니(미)나 수수전병이 손님을 기다린다. 나는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코스모스가 핀 길을 따라 떠나곤 한다. 월악산의 영봉이며 금수산, 그리고 구단봉과 옥순봉 사인암을 감상하면서 충주호수에서 풍겨오는 향기에 취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다. 갈 때에는 수수북구니(미)를 먹을 생각에 행복하고 그것을 먹고 난 후에는 수수밭과 산을 가득 메운 단풍으로 치장한 산천을 감상하는 즐거움에 취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장회나루 쉼터에서 잠시 쉬면서 민물 매운탕으로 미각을 돋우고 나면 호반의 풍광에 취해 한 구비 한 구비를 돌 때마다 나타나는 기암괴석의 아름다움에 넋은 잃기도 하는 것이다. 옛 이퇴계선생께서 단양고을의 원님으로 재직 시에 그 분이 즐겼을 단양 팔경의 맛이 어떠하였을 가를 음미하면서 하루해를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충주 호수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하여 그곳을 찾는 나그네에게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충주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푸른 호수에 드리워진 아름다운 그림 속으로 마음을 빼앗겨 보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즐거움이다.

학생문단 | 동화

김린다
신나영
이명희
이원복

童話

주홍그림

김린다

"아, 심심해."

나 이주홍은 삼 학년이다. 운동장을 땀나도록 뛰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 학교에 안 간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선생님과 아빠는 혼내지도 않는다. 내가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무섭다고 도망치는 바람에 집에 꼭꼭 숨어야 했다. 집에서 온종일 읽던 책을 덮고, 의자 위에 올라섰다. 창문을 열어보니 주홍빛 하늘에 뭉게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사 오던 날, 아빠와 같이 마을 뒷산에 놀러 갔다. 한쪽 다리가 짧은 아빠는 나를 쫓아오다 약수터에서 주저앉았다.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약수터에서 기다릴 테니 조심히 올라갔다 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빠와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그 자리를 도망치듯 혼자 산에 올랐다. 높지 않은 봉우리지만 온몸이 땀범벅이 됐다. 산 정상에 서서 얼굴을 가렸던 마스크를 벗었다. 바람이 얼굴을 쓰다듬고 지나갔다. 바위틈에 모여 앉은 아이들이 보였다.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너 뭐야? 저리 가."

"처음 보는 애잖아. 제 얼굴 좀 봐."

나와 눈이 마주친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신호를 보내고는 산에서 내려갔다. 시골 아이들은 착하고, 서울 아이 좋아한다던데 모두 뻥이었다. 서울에 두고 온 친구들이 생각났다. 코가 맵더니 눈물이 쏙 나오는 걸 참았다. 아이들이 사라진 바위틈에 강아지가 보였다. 손을 뻗어 강아지를 만져봤다. 구름처럼 뭉실하니 부드러웠다. 강아지는 혀로 내 손을 핥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강아지를 품에 안아 들고 약수터로 내려갔다.

"아빠, 얘 이름은 구름이야."

"어서 내려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네. 어미가 주위에 있을 거야."

아빠는 강아지를 빼앗아 풀숲에 내려놓았다. 나는 강아지 곁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빠는 강아지를 만지는 것도 못하게 했다. 그때 풀숲에서 흰 개가 나타났다. 아빠와 나를 향해 윗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저 봐. 어미가 나타났잖아. 구름이는 산에서 엄마랑 살아야지."

아빠가 손을 잡아끄는 바람에 산에서 내려갔다. 이사 와서 처음 사귄 친구와 만나자 이별이었다. 집에서도 잘 보이는 뒷산에는 구름이가 산다.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때 바람이 불더니 달걀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휴, 아빠는 저 통 좀 갖다버리지."

창문 아래 있는 고무통에서 나는 냄새였다. 커다란 고무통은 우리 집 목욕탕이었다. 이사 오던 날 아빠는 통 앞에 내 이름을 써서 창가 골목에 세워두었다. 집마다 돌아다니며 떡을 돌리고, 나를 인사시켰다.

"안녕하세요, 앞집에 새로 이사 왔어요. 집에 헌 옷 있으면 주홍이 통에 넣어주세요. 깨끗이 빨아서 보육원에 보내려고요."

한 쪽 다리를 저는 아빠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나를 보고는 동네 사람들은 반가워하지 않았다. 헌 옷을 보육원에 보내는 건 엄마 담당이었다. 뭐든지 척척 고쳐내는 엄마는 헌 옷을 수선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냈다. 아빠는 엄마가 하던 일을 쭉 이어갈 모양이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동네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

사 온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고무통 안에는 헌 옷 대신 동네 쓰레기가 가득 모였다.

"너 점퍼 속에 뭘 숨긴 거야? 좀 보여줘."

골목 안으로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키 큰 아이들이 앞집 아이 뒤를 졸졸 쫓았다. 나는 커튼 뒤로 얼굴을 숨겼다. 앞집 아이는 이리저리 피해 보지만, 키 큰 아이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뚱뚱한 아이가 지퍼를 강제로 내렸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코를 잡고 소리쳤다.

"뭐야 이 더러운 냄새는?"

키 큰 아이들은 앞집 아이를 잡아 밀쳤다. 점퍼 안에서 강아지가 뛰어올랐다. 온몸이 시커멓게 때가 타고, 냄새가 지독했다. 앞집 아이는 눈물을 터트리며 집으로 갔다. 뚱뚱한 아이가 비비탄 총을 꺼내더니 하늘을 향해 쏘았다.

"똥개야, 어서 도망가! 안 그러면 다친다. 으흐흐."

강아지가 낑낑 되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저마다 배꼽을 잡고 웃었다. 나는 맨손을 움켜쥐고, 커튼을 젖혀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야! 너희 그만 못해!"

아이들은 내 목소리에 놀라 엉덩방아를 찍었다. 뚱뚱한 아이는 물웅덩이에 넘어져 바지를 버렸다. 쌤통이다. 나도 아이를 향해 배꼽을 잡고 웃어 보이고 싶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아이들은 귀신을 본 것처럼 소리치며 도망갔다.

"으악~ 괴물 몬스터다! 도망가자."

차라리 나에게 비비탄을 쏘지. 여자애한테 괴물 몬스터라니. 이제까지 멍게, 할머니, 옥떨메로 불렸던 별명 중 가장 듣기 싫었다. 힘껏 깨문 입술에서 피가 났다. 아이들이 사라진 골목에 소리쳤다.

"난 괴물 아니야!"

창문을 쾅 닫고 커튼을 쳤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아직도 마르지 않은 피딱지가 얼굴에 가득했다. 긴 옷으로 가린 팔다리를 걷으니 화상 자국처럼 군데군데 살이 짓물렀다. 장롱에서 검은 티셔츠를 꺼내서 거울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은 아토피라는 피부병에 대해 잘 몰랐다. 동네 어른들은 내가 서울에서 가지고 온 병을 자기 자식한테 옮길까 봐 나와 놀지

못하게 했다. 이사를 와서 내 얼굴은 더 부스러지고 뭉개졌다. 병원 의사선생님도, 교회 목사님도 이제는 어떤 약도 들지 않는다고 했다. 스트레스받지 말고, 기도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에 검은 공기를 피해 이사를 왔지만, 친구 하나 없는 시골은 더 싫다.

"다 바보 같아. 멍청이들. 나는 이주홍이란 말이야."

울지 않으려고 코를 잡고, 방에서 콩콩 뛰었다. 책을 집어 들고 한 장씩 찢었다. 그래도 아이들 눈빛이 떠올랐다. 눈물, 콧물이 콸콸 쏟아졌다. 그때 골목에서 아빠 발소리가 들렸다. 한쪽 다리가 짧아 걸음 소리만 들어도 아빠인 줄 알아맞혔다. 통장아줌마 목소리도 들렸다.

"주홍이 아빠. 요즘 동네 어르신들이 주홍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서울에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감? 그리고 저 고무통도 어디다 치우지."

다시 이사 가기를 바라는 아줌마 말에 아빠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옛날 같으면 욱해서 사람들과 싸웠겠지만, 싸움을 말릴 엄마가 없으니 참는 방법밖에 없다. 아빠는 조용히 골목을 돌아 집에 들어왔다.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자는 척했다. 퉁퉁 부은 눈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빠는 방문을 확 열더니 절뚝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주홍! 아빠가 라면 먹지 말랬잖아. 의사 선생님이 먹는 거 조심하라고 했지! 계집애 방이 이게 다 뭐야? 왜 책을 다 찢었어?"

아빠는 찢어진 책을 보고 목소리가 더 커졌다. 통장 아줌마한테 퍼부을 화가 나한테 쏟아졌다. 아빠는 덮고 있던 이불을 젖히며 소리쳤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아빠를 방 밖으로 밀었다.

"아빠가 뭘 알아! 그렇게 만날 잔소리만 할 거면 나가. 엄마가 죽은 것도 다 아빠 책임이야.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를 방에서 밀어내고, 문을 잠갔다. 문밖이 조용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쓴 채로 장롱 안에 들어갔다. 어릴 적에는 장롱 속에 숨어있으면 엄마가 찾아내서 몸이 부서지게 안아줬다. 이제는 이 깜깜한 곳에서 나를 꺼내줄 사람은 없다.

또 참기 힘든 밤이 왔다. 울면서 몸을 긁기 시작했다. 손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벌레가 온몸 구석구석을 기어 다녔다. 오늘따라 수천 마리가 온몸을 기어 다녔다. 긁다 피가 나서 몸에 이불을 칭칭 감고

간지러운 곳을 주먹으로 때렸다.

'낑, 낑, 낑…….'

그때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장롱에 나와서 벽에 귀를 갖다 댔다. 강아지 우는 소리가 분명했다. 창문을 열고 골목을 둘러보았다. 어두워서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다.

"아직도 밖에 있나 봐. 혹시 아까 다쳤나?"

옷장에서 모자 달린 점퍼를 꺼내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몰래 숨겨둔 과자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TV를 켜놓은 채 아빠가 잠에 곯아떨어졌다. 그 뒤를 살금살금 지나 현관 앞에 섰다. 학교 갈 때 신으려고 산 실내화를 손에 들고 현관 밖을 나섰다. 발바닥을 털어내고 실내화를 신고 골목으로 뛰어갔다.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꾹 참았다.

'멍 멍…….'

골목에는 강아지 우는 소리만 날 뿐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혹시나 해서 고무통을 발로 치니 강아지 소리가 더 커졌다. 꾹 닫힌 고무통 뚜껑을 열 수가 없었다. 골목에 뒹굴던 네모난 벽돌을 통 아래쪽을 받치고 반대편에서 힘껏 밀었다. 균형을 잃은 통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쓰레기와 강아지를 토해냈다.

"진짜 통 안에 강아지가 있었네."

벌벌 떨고 있는 강아지를 들어서 으스러지라 안았다. 강아지한테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참았다. 손에 잡히는 몸에 난 종기들이 내 살을 만지는 것 같았다. 강아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눈에 노란 반점이 보였다. 동산에서 봤던 구름이도 눈에 반점이 있었다.

"너 구름이 맞지!"

강아지는 구름이라고 말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구름이를 내려놓고, 열 발자국 뒤로 가서 이름을 불렀다. 구름이는 폴짝폴짝 나에게 달려왔다. 얼른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서 구름이 입에 넣어줬다. 과자를 잘도 받아먹었다. 오랜만에 터져 나온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다. 고무통에 버려진 우산을 주웠다. 녹슨 자동우산은 삐거덕거리며 활짝 펴졌다.

구름이를 점퍼 속에 집어넣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구름이를

집에 데리고 갈 수는 없었다. 아빠한테 쫓겨날 게 분명했다. 그렇다고 친구를 길바닥에 버릴 수도 없었다. 갑자기 산에서 봤던 구름이 어미가 생각났다.

"맞다. 산에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겠다.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구름이와 처음 만났던 산으로 뛰어갔다. 산 입구에 도착하니 약한 비가 그쳤다. 오늘따라 한 명도 지나가지 않았다. 입구에는 '입산금지' 라는 푯말이 걸려있고, 산 입구를 노란 테이프로 막아났다.

입산금지라는 뜻을 몰라 약수터까지만 구름이를 데려다 주기로 했다. 약수터까지는 구구단 중 가장 쉬운 이 단 한 번 외우면 도착할 거리였다. 눈을 질금 감고 노란 테이프를 넘었다. 삼단까지 외우고 나니 약수터에 도착했다. 약수터 불빛에 구름이가 얼굴을 내밀고 코를 킁킁거렸다.

"구름아, 집에 다 왔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너희 엄마가 올 거야."

우산을 바닥에 내려놓고, 구구단을 외웠다. 팔 단까지 외우는데 뒤에서 '꿔, 꿔!' 소리가 들렸다. 구름이도 '멍, 멍!' 짖었다. 돌아보니 멧돼지가 서 있었다. 동물원에서 보던 것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빨갛게 충혈된 눈과 벌름거리는 코를 보니 화가 무척 난 것 같았다. 입술을 뚫고 나온 이빨에 놀라 뒤로 넘어졌다. 구름이가 점퍼 밖으로 폴짝 뛰어올라 멧돼지 앞에서 섰다.

"안 돼! 구름아~"

멧돼지는 뒷발을 땅에 퉁퉁 튕겼다. 나는 무릎으로 기어서 우산을 집었다. 멧돼지가 구름이에게 달려드는 순간 자동 우산을 펼쳤다. 멧돼지가 자기 몸집보다 큰 우산에 놀랐는지 숲으로 도망갔다. 구름이를 안고 무작정 뛰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에도 온몸이 떨렸다. 정상에 올라와 바위틈으로 몸을 숨겼다.

"구름아, 집에 가고 싶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구름이가 몸을 바동거리더니 내 손에서 빠져나갔다. 구름이가 숲으로 사라졌다. 안개가 걷히더니 산 아랫마을이 보였다. 아빠에게 나쁜 말을 했던 게 떠올랐다. 아빠가 나를 잊어먹을까 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구름이도 사라지고 모두가 내 곁을 떠나기만 하는 것 같아 가슴

이 아팠다.

그때 숲에서 구름이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바위틈에서 나와서 숲을 헤치고 들어갔다. 큰 나무 아래에 구름이가 보였다. 그 옆에 어미는 구름이 몸에 난 종기를 열심히 핥다 쓰러졌다. 엄마가 쓰러졌을 때처럼 어미도 가쁜 숨을 헐떡였다.

"안 돼, 구름이 두고 죽으면 안 돼."

어미를 번쩍 들고 뛰었다. 엄마처럼 죽을까 봐 다시는 보지 못할까 봐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손이 덜덜 떨리는데도 어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털을 꽉 붙잡았다. 옷이 나뭇가지에 찢겨도, 실내화 밑창이 뚫어져서 빗물이 새어 들어와도 멈추지 않았다. 산 중턱까지 와서 점점 손발에 힘이 풀렸다. 어미는 점점 숨이 얇아졌다. 엄마가 쓰러졌을 때 119에 전화하는 법도 몰랐다. 밖으로 뛰쳐나가 옆집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앞집도, 윗집도, 아무도. 슈퍼마켓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야 엄마를 응급실로 옮겼다. 나는 엄마를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거의 다 왔으니 힘내. 조금만 힘내."

옷을 벗어 어미를 감싸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버려진 나무 박스가 보였다. 어미를 조심스럽게 들어서 박스 속에 눕혔다. 박스를 끌면서 산 입구까지 겨우 내려왔다.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도착한 것처럼 지쳤다. 박스 속에서 어미를 안아 들었다. 엄마가 응급실에서 끝까지 놓치 않고 잡고 있던 손처럼 차가웠다. 땅에 주저앉아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어미 몸을 주물렀다.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동네 사람들이 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빠와 함께 산 입구로 몰려왔다. 내가 사라지는 바람에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다. 아빠는 나를 보자 엉덩이를 세차게 때렸다.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더 세게 때려 어미가 살 수 있으면 몽둥이로 맞아도 안 아플 것 같았다. 통장 아줌마와 동네 아저씨들이 아빠를 말렸다.

"아빠, 구름이 엄마가 죽었어. 우리 엄마처럼."

죽은 어미를 아빠한테 내밀었다. 아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떨어트렸다. 동네 사람들도 눈물을 훔쳐냈다. 구름이만 꼬리를 흔들며

어미 곁을 맴돌았다. 아빠는 어미를 나무 상자에 넣어서 아저씨들과 함께 산에 묻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 돌을 높이 쌓았다. 아빠는 동네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머리를 숙였다.

"아이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무슨 감사야. 주홍이도 우리 자식인데 다음에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돕자고."

동네 사람들은 내 머리를 쓰다듬고, 아빠 어깨를 툭툭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아빠가 우리도 집에 가자며 나를 등에 업었다. 절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아빠는 내가 떨어질까 봐 손을 꼭 마주 잡았다. 어미가 묻힌 돌무덤을 쳐다보고 아빠 목을 꽉 안으며 귀에 속삭였다.

"아빠, 나 미워해도 구름이 미워하지 마."

아빠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구름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높이 높이 뛰어올랐다.

‖ 동화 ‖

고은이의 마음 길 여행

신나영

고은이는 지금 외할머니 댁에 가는 길입니다.
덜컹덜컹, 외갓집 가는 길은 늘 설레기만 합니다.
논 사잇길을 버스는 신나게 달립니다.
고은이 마음도 버스 따라 벌써 저만치 할머니 집 앞에 가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 왔어유~우."
외할머니 말투 따라 고은이도 말끝을 길게 끌어봅니다.
무척 재미있습니다.

"온냐, 에구 내 새끼……. 오니라 힘들었자~?"
"아니예요, 할머니."
버선발로 뛰어나온 외할머니의 작고 마른 몸에서 구수한 숭늉 같은 할머니 냄새가 납니다.
고은이는 할머니 젖가슴에 얼굴을 푹 파묻고 할머니 냄새를 마음껏 들이마십니다.

"아구 내 새끼, 원제 요로크롬 큰겨?"

정말 고은이가 크긴 컸나봅니다. 전엔 고은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었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고은이를 올려다보십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소원대로 밥 열심히 잘 먹었더니 이렇게 키가 크던데?"

"그랴~? 아구 고 놈 말하는 뽄새 좀 보소, 뉘길 닮아 요로크롬 말을 잘헌다냐! 허허허……."

"누군 누구……. 할머니 손녀니까 할머니 닮아 그렇지~ 하하하……."

손가락만한 멸치 넣어 끓인 할머니표 된장찌개에 무순과 고추장을 조금 넣고 쓱쓱 비벼 저녁을 한 그릇 다 먹고 나니 할머니가 이번엔 고구마를 쪄 오십니다.

겨우내 다락에서 배배 말라비틀어져 모양은 없지만, 달기는 설탕 뺨칠 만큼입니다.

고은이는 이 맛이 참 좋습니다.

과자도 사탕도 초콜릿도 없는 시골이지만, 할머니가 보물처럼 내어주시는 곶감, 고구마 말랭이, 감말랭이들은 고은이가 사는 도시에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입니다.

달다기보다는 달콤하고, 찐득찐득하기 보다는 쫀득쫀득한 그 맛이 고은이는 꼭 우리 할머니 같습니다.

"아가, 요것도 먹어봐~. 이 핼미가 맹근 단술이여."

고은이는 식혜도 한 사발 쭉 들이킵니다.

"할머니, 진~짜! 진짜! 맛있어. 나 이거 한 그릇 더 먹을래."

더 먹겠다는 말에 할머니 입이 함지박만큼 벌어집니다.

식혜 잘 먹는다고 저렇게 좋아하시는 할머니를 보니, 고은이는 문득 여기 시골에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할머니도 덜 외로우실 텐데…….'

지팡이보다 더 굽어진 할머니의 등을 보며 고은이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앞 집 개야 짖지마라~ 뒷 집 개도 짖지마라~ 우리 우리 금자~동아 자장 자장 은자동아……"

"할머니, 나 애기 아냐!"

"그려~ 그려~ 어여 자~"

부채 장단에 맞춰, 할머니의 자장가는 점점 더 구성지게 흘러갑니다.

고은이의 눈꺼풀도 가물가물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안 봐주면 누가 봐줘!"

날카로운 엄마 목소리에 슬며시 눈을 떴습니다.

"에구, 이것아 애기 깨것다. 조용히 못혀!"

"살지 말지 하는 판에 그깟 잠이 대수여?"

"조것 조, 조, 조뎅이 봐. 그러니께 박서방이 못살겠다고 하는 거 아녀!"

"뭐여? 아니, 엄니 내 엄니 맞는겨? 아구~ 아구~ 동네 사람들~! 지 딸년 패잡는 사위도 사윈지 어디 한 번 물어보드라고~오!"

"아니, 이 년이 왜 이렇게 패악을 떠 쌌는다냐? 고만 못혀! 고은이 깬다니께! 고 놈의 성질머리 못 고치면, 니 인생도 깔끄막길이여!"

"또 시작헌다, 저 험담! 왜? 아까 고은이한테도 그 말뽄새로 해보지 그랬어! 에구 에구 나만 구박딩이여, 나만 찬밥딩이란말여!!"

분을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뛰쳐나가버린 엄마를 두고 외할머니 혼자 말씀하십니다.

"말이 복을 짓고 말이 업(죄)을 짓는다는디……. 조것이 여적두 철이 안든겨……. 에구 내 팔자야~어 에구 내 팔자야~어."

담배 생각이 나셨는지 할머니도 주섬주섬 무언가를 챙겨 슬그머니 나가시고, 고은이 혼자 덜렁 방안에 남겨졌습니다.

눈만 뜬 채, 불도 안 켜진 방에 누워 고은이는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엄마가 갑자기 적지 않은 짐을 싸서 외갓집에 다녀오자고 했을 때, 고은이도 약간은 의심이 났었습니다.

"왜, 엄마? 할머니가 어디 아프셔?"

"아~니."

"그럼? 할머니 생신도 아니고 방학도 아니고 설도 추석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짐을 싸?"

엄마는 대꾸도 없이 짐만 부리나케 꾸리고는 고은이의 외투를 던져 줍니다.

"어여 따라나서기나 혀! 맨날 노래 부르던 할머니 집에 간다는데 무슨 사설이 그렇게 길어?"

무슨 선전포고 하듯이 말을 툭 내뱉고 엄마는 자기 먼저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섭니다.

"글쎄…… 가긴 가는데 왜 지금 가는지 말은 해줘야지!"

오는 내내 엄마는 별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외갓집에 오는 게 아니었더라면 고은이는 중간에 집에 돌아가자고 졸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와 외할머니의 대화 내용을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번 여행은 그저 다니러온 게 아닌 듯합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엄마랑 아빠 싸울 때보면 전에 없이 소리도 크고, 한 번 싸우면 한참동안 말없이 지내는 날도 많아지곤 했습니다.

고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에이! 뭐야? 그런 거였어? 이런 일을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고 왠지 모르게 너무 슬펐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같이 말이지요.

고은이는 할머니가 방에 들어오시면 '할머니 찌찌 만지고 자야지!' 하고 생각하다 살포시 잠이 들었습니다.

"고은아~ 고은아, 일어나렴."

누군가 고은이를 부드럽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작은 아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누구야, 너는?"

잠을 깨서 주위를 살펴보니, 할머니 집 안방이 아니었습니다.

"여긴 어디야? 그리고 너는?"

그 작은 아이는 씨-익 웃더니, 더럭 손을 내밉니다.

고은이는 그 손을 잡을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나는 네 마음 속의 작은 씨앗이야.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라게 되는 마음 속의 씨앗!"

"뭐? 마음 속의 씨앗?"

고은이는 '마음' 이라는 말도 '씨앗' 이라는 말도 모두 좋아합니다. 뭔가 따뜻하고 희망이 담긴 말들이니까요.

"좋아. 그런데 여긴 어디고 왜 난 여기 있지?"

"여긴 네 마음 속이고, 네가 왜 여기 있는지는 네가 찾아야해!"

"뭐? 내 마음 속이라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숲처럼 생긴 그 곳은 수많은 구불구불한 길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 여기 들어가기 싫어. 조금 무서워……."

마음 속 씨앗은 또 씨-익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렴. 네 마음이니까."

순간 고은이는 더 겁이 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널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고은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작은 아이는 성큼성큼 앞장서서 길을 갑니다.

그 아이를 따라 작은 길로 들어서니, 어두컴컴하게만 보였던 길들이 점점 환해집니다.

보랏빛 작은 들꽃도 피어있고, 작은 냇가에 작은 물고기들도 헤엄쳐 다닙니다.

"와! 물고기도 살잖아!"

"응. 여기는 '사랑해' 마을이야."

"그래? 그럼 다른 마을도 또 있어?"

"그럼~. 너도 여러 마음이잖아, 그 숫자만큼 여기 마을이 만들어져."

"그래? 그럼 되게 복잡하겠다!"

"하하… . 네가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서 네 마음 속에 사랑해

마을이 많이 만들어졌음 좋겠어!”

그때 바로 앞에, 커다란 나무 한복판에 작은 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너 혼자 가야돼.”

“뭐, 나 혼자? 싫어~ 무섭단 말이야~. 나 그만 돌아갈래.”

“어디로?”

“할머니 집!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줘, 응?”

“그건 나도 몰라. 아마 네 마음 속 어딘가에 할머니 집으로 가는 문이 있을 거야. 나는 이 곳 ’사랑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여길 떠나면 살 수 없어.”

“그럼, 정말 나 혼자 저 문을 지나야 된다는 말이야?”

‘어쩜 저기가 할머니 집으로 가는 문일지도 모르잖아?’ 라고 고은이는 속으로 생각해봅니다.

애써 용기를 내봐도 정말 두렵기만 합니다.

그때 마음 속 씨앗이 얘기를 해줍니다.

“걱정 마. 내가 알기로 너는 충분히 용기가 있는 아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 속 씨앗들이 자라, 이렇게 큰 ‘사랑해’ 마을을 만들었지. 힘을 내. 할머니 집을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 마음 속 씨앗은 키는 작았지만 아주 단단하고 튼튼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같이 가면 더 좋겠지만…….”

고은이는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시고는 문손잡이를 살살 돌렸습니다.

문을 열면 괴물이 쑥 하고 튀어나올 것 같아 소름이 돋습니다.

그때 문을 통해 더운 바람이 훅 불어나왔습니다.

그곳엔 불을 피우는 공장 같은 기계와 쇠 같은 것을 달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자기 일에 빠져 고은이가 가까이 가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어……. 길을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 할머니 집으로 가야하는데요……”

제일 턱수염이 덥수룩하고 굵은 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 덩치 큰 아

저씨가 고개를 들어 쳐다봤습니다. 순간 고은이의 심장이 딱- 하고 멎었지요. 그 아저씨 눈이 시뻘건 불덩이처럼 보였거든요.

"뭐.라.고! 이봐! 여기는 일 하는 사람들의 '열불나' 공장이야! 여긴 너무 시끄럽고 너무 덥고 너무 짜증나! 나도 내가 왜 짜증이 났는지 잘.몰.라! 그냥 사람들 소리가 나를 더 짜증나게 한.다.고-옷!! 그런데 뭐? 할머니 집-?!"

그 고함소리에 역시 괴물처럼 눈이 시뻘개진 아저씨, 아줌마들이 한꺼번에 고은이를 쳐다봅니다.

고은이는 와락 겁이 났고, 그대로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 무조건 달렸습니다. 눈물만 펑펑 솟았습니다.

정글처럼 수많은 길이 엉켜져있는 곳에 닿았을 때, 고은이는 그만 기운이 빠져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 마음 속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되는 거야! 난,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앙앙~.'

그때 어디선가 할머니 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따라가면 할머니 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겨 고은이는 벌떡 일어나 열심히 걸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길들은 모두 어느 마을들과 닿아있는 듯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마을들 중에는 아까 마음 속 씨앗이 말해준 '사랑해' 마을과 그 불구덩이 아저씨가 말한 '짜증나' 마을 같은 마을들이 섞여 있겠지요?

된장찌개 냄새가 사라지지 않도록 고은이는 열심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 냄새는 아주 작은 버섯같이 생긴 어느 작은 오두막집에서 피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고은이는 창문가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창문 안을 들여다보고 고은이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 했습니다.

세상에! 그 집안엔 고은이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어느 여자아이 밥상에 놓아주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집은 아니었지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고은이 할머니가 분명했어요.

할머니 집 문을 살짝 열었어요.

그러자 그 안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가…… 이거 하나만 묵어봐~. 뭐든 먹어야 혀~. 이 에미 애간장 좀 작작 태워불고. 어여 기운 차려야 핵교도 갈 것 아니여?"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그 작은 여자아이는 숟가락을 홱 내팽겨치고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또 된장찌개여? 엄니는 된장 못 먹고 죽은 귀신 붙었어? 만날 된장찌개여! 싫단 말시~! 시려~어!!"

할머니는 그 아이랑 실랑이 하느라 고은이가 들어오는 것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고은이예요. 할머니, 저 아시죠?"

할머니는 고은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고은이? 고은이가 뉘기여?"

고은이는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시는 할머니가 자기를 몰라보다니!

'아무리 마음 속 세상이라지만 이럴 순 없잖아!'

고은이는 그만 그 자리에 털석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뉘 집 가이내가 아침부터 울 집 와서 운다냐~ 썩 가질 못혀! 어여 니 집으루 가~아!!"

할머니는 소리치는 것도 모자라서 빗자루 몽댕이로 때릴 듯이 고은이를 내쫓았습니다.

쫓겨나는 고은이 등 뒤로 아까 그 여자 아이의 목소리가 날아와 꽂힙니다.

"나도 자처럼 저런 이~쁜 구두 사달란 말이여. 그때꺼정 밥도 안 먹고 핵교도 안 갈텨!"

문이 쾅 닫히면서, 안에선 날카로운 할머니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나왔습니다.

"그려~ 맘대로 혀! 인자 나도 더는 못 혀, 이년아! 지 년 하나 길르느라 애면글면 지 에미 똥줄 타는 것도 모르는 이 녀~언!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불드라고~오!"

안에서는 투닥 투닥 때리는 소리에 매를 피해 도망치며 질러대는 비명소리에 난리법석이었어요.

고은이는 울음을 그치고 그 광경을 창문 너머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고은이 마음 속이라는데 고은이는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마음 속 씨앗은 내 마음 속 씨앗들이 자라 마음속 마을을 만든다는데, 이 씨앗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은이는 마음 속 나라 구불텅 길만큼 구불구불 엉켜있는 생각을 도저히 풀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진짜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 건지, 고은이는 무섭고 다리 아프고 배도 고팠습니다.

할머니 표 된장찌개만 먹으면 저절로 기운이 솟아날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때 고은이 마음속에서 진짜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고은이는 할머니 오두막집으로 다시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저어…… 할머니, 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그 된장찌개 한 숟가락만 먹어도 돼요? 네? 대신 제 구두를 드릴게요!"

순간 할머니네 집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 저 구두 가질텨!"

"뭐… 먹든지 말든지 맘대로 혀!"

작은 여자아이에게 구두를 벗어주고, 할머니 표 된장찌개를 떠먹으니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아~! 맞아~! 우리 할머니 표 된장찌개~.'

고은이는 슬픈 것도 잊고 맛있게 밥 한 그릇을 뚝딱 다 먹었습니다.

정말 배가 불렀습니다.

그 여자아이도 고은이의 구두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젠 콧노래까지 흥얼거립니다.

"에구, 저것 좀 봐. 조것이 금새 흥얼거리네? 허허허……"

이 웃음소리는 고은이를 이뻐할 때의 할머니 웃음소리하고 닮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하고 많이 닮으셨어요."

고은이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늬 할머니? 늬 할머니는 워디 사는디?"

"여기서 조금 멀어요. 전 여기가 우리 할머니 집인줄 알았어요."

"야가 허기져서 헛소리를 해잡네? 배 채웠으믄 어여 늬 집 가야!"

"엄니, 나 이 신 신고 자 바래다주고 올껴."

"뭐? 자가 워디 사는 중 알고 데불다 줄껴, 응?"

"삽작까지만 간다니께. 치! 엄니는 암시렁도 못하게 혀!"

그 여자아이는 조금 헐거운 구두를 신고, 할머니 대답도 듣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고은이도 얼른 뒤따라 나왔습니다.

"나, 바래다 줄꺼야?"

"으~응. 말만 혀! 워디꺼정 가는 거여?"

"근데, 나 어디로 가야할 지 잘 몰라……."

"으~응, 그람 마을 입구꺼정 데불다줄틴께, 가자!"

작은 여자아이가 끄는 구두소리는 무척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그 구두 외에는 세상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는 듯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고은이는 얼른 그 아이를 뒤쫓으며 물었습니다.

"얘, 너는 그 구두가 그렇게 좋니? 남이 신던 건데도?"

여자아이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한 바퀴 뱅그르 돌더니 대답했습니다.

"말로 해서 뭐혀? 이 봐~ 이 빤짝빤짝하는 구두를 보드라고! 헤~."

'하긴…….'

고은이도 그 구두를 엄마에게 선물 받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고은아, 요기 뭐가 들었는지 알어?"

"뭔데?"

"니도 보면 사죽을 못쓸 것이다~!"

엄마는 헤- 웃으며 반짝반짝 윤이나는 빨강 리본 구두를 고은이 앞에 내놓았습니다.

고은이가 집으려하자 엄마 손이 더 먼저 그 구두를 채갔습니다.

"잠깐, 잠깐! 아, 그새 또 때가 타부렀네. 하- 내가 닦고 또 닦았는데."

"엄마! 이리 줘! 그거 내거라며."

"그랴~ 그랴~ 우리 고운 아가꺼여. 옛다!"

엄마는 그 구두를 호호 불어 소매로 쓱쓱 몇 번씩 문지르더니 고은이 앞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파리도 앉으며 미끄러질 만큼 짜르르하게 윤이 났습니다.

"어여 신어봐~. 그래 그렇게. 찍찍이는 이렇게 붙이고! 웜메! 참말로 이삐네, 내 새끼! 허허허..... ."

고은이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구두는 이쁘기도 했고, 맞춘 것처럼 고은이 발에 꼭 맞았습니다.

엄마는 그 구두를 보고 또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은이는 좋은 시상 만나서 이런 것도 신어보네 ……."

"왜? 엄마는 이런 구두 못 신어봤어?"

"응~ 엄마 어렸을 적엔 그런 구두 사달랬다간 늬 할머니헌티 등짝만 매우 맞았어. 사달라고 계속 때 부렸다간 안 쫓겨나면 다행이여~. 하하하…."

그때 엄마의 조금 슬픈 웃음소리가 귓가에 아직도 들리는 듯 합니다. 문득 진짜 엄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 난 여기서 어떻게든 내가 갈 길을 찾아볼게."

"그려? 응~! 그려."

그러더니 그 아이는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아 구두를 벗어 흙은 톨톨 털더니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가버립니다.

고은이는 혼자서 그 아이는 가는 모습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로 닿아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왼쪽 숲으로 난 길과 가운데 언덕으로 난 길 그리고 오른쪽 언덕을 돌아가는 길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지? 어디에 나가는 길이 있는 거야?'

'고은아, 아가~ 혹시 삽짝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으믄, 신작로 따라

쪽바로 와야 혀! 알았지?'

아주 어렸을 적 할머니가 길을 가르쳐주셨을 때 들었던 음성이 떠오릅니다.

'아니면, 다시 되돌아오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고은이는 앞으로 난 가파른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길은 점점 더 가팔라지더니 이글이글 떠오르는 태양빛에 눈이 부셔 눈을 뜨기 어렵기까지 했습니다.

'아얏!'

갑자기 고은이 몸에 뜨거운 기운이 전해져왔습니다.

"아얏! 앗 뜨거!!"

"야야… 뭔 아가가 고로크롬 질게 꿈을 꾼다냐. 가우 눌릴께베 이 할미가 계속 깨워도 도통 일어나지 않고……."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할머니 집 안방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에는 뜨거운 뚝배기 뚜껑도 들려 있었습니다.

"많이 뜨거웠냐? 디지 않았어?"

"아니,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고은이는 할머니 덕분에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온 게 너무 반가워서 할머니 목을 덥썩 끌어안고 할머니 볼에 쪽-하고 뽀뽀까지 했습니다.

"야가 야가… 왜 이런다냐… 호호… 그려 그려. 배고플틴디 언능 밥 묵자!"

방 안에는 할머니 표 된장 내음이 가득 차 있었고, 쇠다리가 붙은 작은 밥상엔 보글보글 계란찜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와~ 정말 진~짜 배고프다! 할머니도 드세요!"

할머니는 얼른 밥에 계란찜 푹 떠서 고은이 입에 넣어줍니다.

"쩝쩝… 응? 근데 할머니…… 쩝쩝… 엄마는?"

엄마라는 소리에 할머니는 픽- 콧방귀를 뀌시더니, 김치 찢던 손을 쓱쓱 바지춤에 닦으시고, 물그릇을 들고 마루로 나가시다 한 마디 던지셨습니다.

"에민지 된장인지 지 배알 틀렸다가 짐 꾸려서 혼자 풀쩍 가버렸다.

온다간다 말도 없이 새벽녘에…….”

엄마가 가버렸다는 말에 고은이가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날 깨우지도 않고 갔단 말이야? 우리 엄마 정말 너무 한다!’

엄마 걱정에 먹던 밥숟가락도 놓고 고은이는 다시 생각에 잠깁니다. 엄마가 화가 나서 갔다면, 금방 돌아올 건지… 그렇다면 왜 고은이 짐만 두고 간건지….

왠지 불안해서 마음이 이런 저런 생각이 마구 튀어 올라 마음이 더 불안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구수한 숭늉을 떠서 들어오셨습니다.

“아가~ 왜 안 먹었냐? 쬐금 더 먹지~. 걱정 말어. 오겄지. 지가 널 두고 어딜 갈꺼냐? 응?”

왠지 할머니도 자신은 없지만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 같아 고은이는 더욱 슬퍼졌습니다.

“할머니… 어제 엄마랑 또 싸웠어?”

“응? 으응… 싸우기는 뭐… 지 년이 멘날 이때꺼정 툭 하면 승질부리고 패악을 떠니께. 일이 요로크롬 안 돼냐? 그래서 내가 한 마디 했더니 팩 해갖고…….”

엄마는 한낮이 다 지나도 돌아오지도 않았고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뭐야! 나한테 전화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냐?’

서운하고 엄마가 원망스러웠지만, 고은이는 애써 엄마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이 생각 저 생각 떠올려봅니다.

‘좋아. 그런데 여긴 어디고 왜 난 여기 있지?’

‘여긴 네 마음 속이고, 네가 왜 여기 있는지는 네가 찾아야해!’

마음 속 씨앗이라던 그 아이의 말이 떠오릅니다.

‘네가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서 네 마음 속에 사랑해 마을이 많이 만들어졌음 좋겠어.’

불구덩이 눈을 가진 ‘짜증나’ 마을 대장간 아저씨 목소리도 생각났습니다.

‘여긴 너무 시끄럽고 너무 덥고 너무 짜증나! 나도 내가 왜 짜증이 났는지 잘.몰.라! 그냥 사람들 소리가 나를 더 짜증나게 한.다.고-!!’

꿈 속 할머니 집에서 있었던 작은 소동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할머니랑 어릴적 엄마는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랑 할머니는 가끔 싸우고 서로 전화도 하지 않고 지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늘 푸념처럼 혼자 말하곤 했습니다.

“아유- 나도 이젠 지겨워. 맨날 나한티만 그려! 나만 구박딩이여, 나만 찬밥딩이란 말이여!”

엄마는 할머니하고 싸워도 아빠하고 싸워도 늘 혼자 훌쩍거리며 울다 그치곤 했습니다.

설거지며 빨래며 청소며 집이 반짝 반짝 윤이 나도록 쓸고 닦는 동안 무슨 말인지 늘 들리지도 않게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밤늦도록 밥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집안일에만 매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일찍 저녁을 먹고, 할머니 팔베개를 베고 나란히 누워 고은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

“아녀. 왜… 잠이 안 오냐?”

눈을 가리고 있던 팔을 치우며, 할머니가 고은이를 쳐다보십니다.

“할머니, 엄마 돌아오겠지?”

“그람~ 지 년이 널 두고 워딜 간다냐… 그 불뚝심 가라앉고나믄 오겄지.”

“그럼. 엄마 돌아오면 ‘이 년 저 년’ 이렇게 욕하지 말고, 등짝도 때리지 말고, 나한테 하는 것처럼 말해줄 수 있어? 응~ 부탁이야~!”

“뭐? 뭐, 워짜? 허이구 참, 고 년. 지 엄니라고 역성 들기는… 야! 니는 니고 니 엄니는 니 엄미제 워째 니헌테 말하디끼 니 엄니헌티 말하란 말이여?”

“어려워? 그럼, 욕만 하지 말아줘, 응~ 제발~~.”

고은이는 할머니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간지럼을 태웁니다.

할머니는 싫지 않으신듯 허허… 웃으시며 한마지 던지십니다.

"니맨치 요로크롬 이쁜 짓만 했으믄 이쁨 안 받았겠냐? 고건 어렸을 적부텀 지 하고 잡은 대로만 하고 지 불뚝승질 나믄 며칠썩 말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안 했냐! 에구 내가 말로 다 하믄… 그 년은 철이 들어야혀…."

할머니는 아직도 속이 상하신지 옆으로 누워 팔베개를 하고 골똘히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고은이는 엄마도 할머니도 자기처럼 마음길 여행을 가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씨앗들이 자라 만들어지는 마음 속 마을도 구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엄마도 할머니도 조금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게 되지 않을까요?

물 댄 논에서 개구리들이 시끄럽게 울어댑니다.

할머니는 벌써 잠이 드셨는지 숨소리가 고르게 들립니다.

고은이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숨 막힐 듯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마음 속에 '불안해' 마을이 생길까봐, 즐겁고 행복한 생각을 떠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꼭 엄마가 내일이라도 금방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은이가 엄마랑 할머니를 화해시키면, 엄마가 마음을 풀고 아빠랑 화해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고은이는 살며시 일어나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엄마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난 엄마를 사랑해~! 엄마딸 고은이가 영원한 사랑을 보내며 밤에 썼습니당~^*^ 할머니 화 안나셨어, 빨리 돌아와 엄마!'

다시 자리에 누우니 졸음이 밀려옵니다.

고은이는 다시 마음 길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집니다.

이번엔 엄마랑 아빠를 화해시킬 수 있는 마음 길 여행을 말이지요.

‖ 동화 ‖

꼭두야 웃어봐

이명희

"어머, 낯선 애가 왔네."

"넌 이름이 뭐니?"

꼭두라고 말해주려다가 난 눈을 꼭 감아버렸어.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뭐야, 얜."

"너 계속 잘난 척 하면 재미없어."

녀석들은 눈알을 데룩데룩 굴리며 흩어졌어. 아무렴 어때.

여기는 내가 살던 곳과는 너무도 다른 곳이야. 쓰러져 가는 헛간, 마당 한쪽 구석에 쌓여진 짚 다발이며 사료포대, 흙 묻은 농기구들…….

녀석들은 그런 것쯤 아랑곳하지 않고 우르르우르르 몰려다니고 있었지. 꽁무니에 흙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말이야.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난 주위를 서성이며 돌아다녔어. 그런데 몇 바퀴를 돌아도 도무지 쉴만한 곳이 없지 뭐야. 횃대는 무섭고, 짚더미는 으슥하고, 헛간은 너무 지저분했어.

'어디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없을까?'

나도 모르게 불빛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어. 마루를 사뿐

사뿐 지나 방안으로 살짝 들어갔지. 할머니 방은 사랑이네 거실처럼 넓고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괜찮더라고.

내 딴엔 정중하게 부탁할 참이었지.

'할머니, 여기서 좀 자고 갈게요.' 라고. 하지만 그 부탁은 할 필요가 없게 됐어. 미처 말도 꺼내기 전에 할머니가 펄펄 날뛰기 시작했거든.

"아니, 아니, 이놈의 닭이 미쳤어? 당장 나가! 당장!"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지를 않나, 삿대질을 해대지 않나,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야지. 후다닥 후다닥- 방안을 몇 바퀴 돌고 나서야 겨우 방문을 빠져나왔어. 숨을 헐떡거리면서 생각했지.

'아니, 멀쩡하던 할머니가 왜 그러지? 갑자기 펄펄 날뛰며 고함을 지르다니, 할머니야말로 미친 게 분명해.'

"아무리 봐도 이상한 애야."

"쭈그리고 앉아있는 꼴 좀 봐. 웃기지 않니?"

힐끔힐끔, 쑤군쑤군……. 녀석들이 또 내 흉을 보고 있어.

그 가운데서도 꼬리가 새까만 수탉, 그 녀석이 더 그래.

깜장꼬리는 반질반질, 엉덩이는 투실투실 살찐 녀석이야.

"이건 비밀인데 쟤 말이야,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대."

깜장꼬리는 일부러 나 들으란 듯이 크게 쑤군거렸어.

"어머나, 어쩐지"

"그뿐인 줄 알아? 어제 밤엔 할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쫓겨났어."

"어머머! 웬 일이니? 거긴 왜 들어갔대?"

"그건 나도 모르지. 쟤한테 물어봐."

깜장꼬리의 말에 암탉들이 까르르 웃고 난리야.

머리만 맞대면 쑤군쑤군, 다들 그런 재미로 사는 것 같아.

딱 한 녀석, 아리만 빼고, 갈색 목털이 아름다운 아리는 이렇게 말했어.

"함부로 말하지 마. 아직 낯설어서 그래."

"자, 받아. 선물이야."

아리가 슬그머니 다가와 뭔가를 내밀었어.

맙소사, 꿈틀거리는 지렁이!

"으악! 징그러워. 저리! 저리 가져 가!"

나는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지.

"왜 그래?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난, 난 이런 거 못 먹어."

아리는 멋쩍은 듯, 지렁이를 물고 돌아섰지. 그 때였어. 깜장꼬리가 나를 빤히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어.

"흥! 아무튼 별종이야. 너, 닭 맞니?"

깜장꼬리의 말에 암탉들이 또 한바탕 까르르 웃어댔지.

'닭이지, 그럼 내가 강아지야?'

꽥 소리치려다가 말았어. 어쩌면 깜장꼬리 말대로 난 닭이 아닌지도 몰라.

내가 생각해봐도 난 녀석들하고 너무 다르거든.

"구구-구구-"

할머니가 길쭉한 모이통에 노란 좁쌀을 뿌려주고 있어.

"빨리 가자. 저건 하루 한 번밖에 못 먹는 거야."

아리가 내 날갯죽지를 툭 쳤어. 난 고개를 흔들었지.

지저분한 모이통에 머리를 처박고 먹을 순 없어.

문득 내가 살던 집이 떠올랐지. 주인집 딸 사랑이와 함께 뛰어다니던 넓은 거실, 창가에 놓인 알록달록한 먹이통, 그 안에 담겨있던 맛있는 먹이, 고소한 치즈 조각, 과자부스러기들…….

잊어버리려고 해도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에그, 저렇게 입이 까다로우니 만날 구석에서 비실거리지."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자 좁쌀을 쪼아 먹던 녀석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어.

"쟤는 뭐 먹고 산대?"

"저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냐?"

깜장꼬리가 나서며 코웃음을 픽 쳤어.

"굶어죽게 놔둬. 안 먹으면 저만 손해지 뭐, 바보 같은 놈."

아리가 내 눈치를 보며 다가왔어.

"꼭두야, 비실거린다는 말 듣기 싫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무거나 잘 먹어. 좁쌀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뭐? 지, 지렁이? 차라리 굶어죽는 게 나아!"

지렁이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소리를 꽥, 질렀지.

모이통에 머리를 처박고 있던 녀석들의 눈이 우리에게 쏠렸어.

'아차! 이게 아닌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 눈물을 글썽이며 아리가 소리쳤어.

"그래, 굶어 죽든 말든 네 맘대로 해!"

하루 종일 하늘만 멀뚱멀뚱 쳐다보았어.

내가 쫓겨나던 날, 그 날도 하늘이 저렇게 파랬었는데.....

잠꾸러기인 내가 모처럼 일찍 일어난 날이기도 했었지.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기지개를 켜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올 정도였으니까.

"꼬끼오!"

날개까지 탁탁 쳐가며 웃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해지더라고.

식구들이 몰려나오기 전까지는 좋았지.

"꼭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꼭두새벽에 왜 울고 그래?"

잠시 후, 이웃집 사람들도 몰려와 화를 냈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에요?"

"아파트에서 닭을 키운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여태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

사랑이 엄마는 굽실거리며 사과하기에 바빴어. 내가 울었다고?

사랑이까지 그랬어.

"꼭두, 울지 마. 네가 우니까 사람들이 못 키우게 하잖아."

"난 울지 않았어. 봐봐. 이렇게 웃었다고. 꼬옥끼요-"

그 때 다시 웃지 말았어야 했어.

이웃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나를 노려본 건 그렇다 쳐. 사랑이 엄마와 사랑이까지 귀를 막고 마치 괴물이라도 보듯 나를 쳐다보았지.

난 아직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나의 웃음소리에 귀까지 틀어막고 화를 내는 사람들! 내 웃음소리를 울음소리라고 우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이야. 생각해봐. 속상하거나 슬플 때 우는 거잖아. 난 그저 기분이 좋아서 웃었을 뿐이라고. 아무튼 난 내가 웃었다는 걸 거듭 증명해 보였지. 내가 웃을수록 사람들의 화를 북돋울 뿐이란 걸 깨달았

지만 그 땐 이미 쫓겨난 뒤였지. 하지만 그 때 내 기분이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두고 봐. 언젠가는 다시 웃고 말 거야. 목청껏 웃고 말거라고.

꼬르륵 꼬르륵- 뱃속에서 난리야.

녀석들은 오늘도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돌아왔어.

"오늘 먹이는 최고였어."

"난 싱싱한 애벌레를 다섯 마리나 먹었어."

"난 네 마리. 깜장꼬리만 아니면 더 먹을 수도 있었는데."

재잘재잘, 꼬꼬꼬꼬……. 어휴, 정말 시끄러워.

벌떡 일어나려다가 도로 주저앉았어. 머리가 핑 돌면서 다리가 막 후들거렸거든. 내일은 못 이기는 척 저 녀석들을 따라 가봐야겠어. 지렁이 사냥은 쉽지가 않았어. 오전 내 허탕을 쳤다니까.

"거긴 아니야. 이리와 봐."

아리의 목소리, 귀가 번쩍 띄는 것 같았어.

"그늘지고 축축한 곳을 파야지. 이렇게!"

잽싸게 놀리는 아리의 발끝에 꿈틀거리는 지렁이가 걸려나왔어.

"자, 선물. 지난번엔 미안했어."

아리가 지렁이 한 마리를 건네며 사과를 했어.

"아,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막 받으려는 순간,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바람에 놓쳐버렸지.

그런데 하필 그 때 깜장꼬리가 끼어들 줄이야.

"얜 지렁이 못 먹는다니까."

깜장꼬리는 내가 놓친 지렁이를 잽싸게 낚아채 가버렸어.

"겁쟁이, 이렇게 맛있는 걸 못 먹다니."

깜장꼬리는 눈 깜짝할 새 지렁이를 삼켜버리고 입맛을 다셨어. 어이가 없었지. 더 화가 난 건 그 살찐 궁둥이로 나를 밀치는 바람에 내가 나동그라졌다는 거야. 한참을 버둥거리다 일어났어. 그것도 아리가 보는 앞에서.

깜장꼬리와 녀석들이 나를 빙 둘러싸고 빈정거렸어.

"겁쟁이, 지렁이도 못 먹는 겁쟁이."

"아리는 저런 녀석이 뭐가 좋다고."

"그러게 말이야. 바보! 겁쟁이!"

순간 나는 내 웃음소리를 떠올렸어. 그래, 깜장꼬리와 녀석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거야. 그리고 보란 듯이 여길 떠나는 거지. 오늘부턴 사료든 지렁이든 가리지 않고 먹어야겠어. 지금으로선 웃기는커녕 울 수도 없으니까.

간밤엔 횃대에서 잠을 잤어. 짚더미 속에 웅크리고 잘 때보다 훨씬 몸이 가뿐한 거 있지. 지렁이 덕분인지도 몰라. 며칠 동안 신나게 거름더미를 파헤쳤거든.

지렁이 말이야. 느끼할 줄 알았는데 고소하고 달보드레한 게 맛이 꽤 괜찮더라고. 녀석들이 축축한 거름더미를 헤집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나는 횃대에서 사방을 둘러보았지.

깜장꼬리도, 녀석들도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어. 기지개를 켜다말고 날개를 활짝 펴서 탁탁 쳐댔어. 웃음이 저절로 터져 나왔지.

"꼬끼요오오-"

"꼬끼요오오-"

"깜짝이야! 꼬, 꼭두, 방금 너였어?"

횃대에서 홀쩍 뛰어내린 깜장꼬리가 더듬거리며 물었어.

"그래. 내가 웃었어. 왜 다시 한 번 들어볼래?"

나는 깜장꼬리 앞에 당당하게 가슴을 내밀었지.

그와 함께 여기저기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어머나, 웬일이야!"

"지렁이도 못 먹던 애가!"

"날마다 비실거리던 애가 세상에!"

쑤군거리는 녀석들 뒤로 할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오는 게 보였어.

또 한바탕 삿대질을 하겠지. 고래고래 고함도 지를 거야. 이제 쫓겨날 일만 남은 거지 뭐. 방에만 들어가도 펄펄 날뛰는데 오죽하겠어. 할머니는 내가 앉은 횃대 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췄어.

나는 목을 길게 빼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지. 사랑이네 집에서 쫓겨나던 날도 새벽하늘이 저렇게 파랬었는데!

슬프기는커녕 웃음이 킥 터져 나왔어. 이왕 쫓겨날 바엔 크게 한바

탕 웃고나 가야지.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날개를 높이 치켜들었어.

"꼬오끼요오오-"

"꼬오끼요오오-"

그런데 이게 웬 일이야?

할머니가 손을 들어 내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게 아니겠어?

"꼭두, 널 데려오길 잘 했어. 새벽 일찍 울어주는 수탉이 필요했거든. 그런데 저 녀석은 도무지 울 생각을 하지 않아. 쯧쯧."

할머니가 깜장꼬리를 바라보며 혀를 찼어. 풀이 푹 죽은 깜장꼬리는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눈알만 데룩거리고 있었지.

갈색 목털 아리가 짝짝짝 박수를 쳐주었어.

"꼭두! 정말 훌륭해. 다시 한 번만 웃어줄래."

"그럼, 누구 부탁인데 자, 들어봐."

나는 다시 목청을 가다듬었지. 흠, 흠!

꼬오끼요오!

꼬오끼요오!

새벽하늘이 파랗게 밝아오고 있었어.

승후와 구름우산

이원복

오늘은 햇살이 또르르 굴러 내릴 정도로 맑고 따갑습니다. 이렇게 쨍한 햇빛이 얼마만이냐며 할머니는 주름이 펴질 정도로 웃으시지만 승후 얼굴은 여전히 딴청을 부리고 있습니다.

"땅 속에 숨어 있는 감재한테는 7월 햇빛이 보약이고, 우리 강아지 한테는 핼미 찌찌가 보약이지."

그 다음에는 할머니의 단골 노랫가락입니다. "햇빛이 잔뜩 묻은 감재를 팔아서 우리 강아지, 우리 승후 옷이랑 바끄고, 운동화랑 바끄고…" 할머니는 승후 얼굴에 가득한 딴청을 모른체하며 어여 학교에 가라고 연신 물 묻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승후의 눈은 사팔이 도마뱀처럼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마루 밑에 숨어 있는 구름우산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오승후, 너 이놈 새깽이! 너 자꾸 핼미 속 썩이먼 그냥 콱! 다 떨어진 우산 그만 쳐다보고 어여 핵교애 가라마, 선생님 기다리신다. 아침 먹인지 인제 30분이 넘었어요."

승후는 할머니 눈에서 벗어난 척 살금살금 마루를 걸어 잽싸게 신발을 두 발에 꼬인 뒤 손으로 구름우산을 냅다 움켜쥐고 대문을 넘어 바람처럼 학교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바보 같은 흰둥이가 멋도 모르고 승후 앞에서 알짱거리다 운동화에 걷어 차여 할머니에게 "깨개갱" 거리며 이르는 것으로 승후네 아침은 비로소 조용해졌습니다.

"너 이놈 새깽이, 새깽이… 또 우산 들고 댐벼락에서 뛰어 내리믄 다리 몽생이를 댕겅 분질러 버린다."

승후는 하얀색 구름 우산을 품에 안고 부리나케 할머니 손에서 도망을 치다가 "톡" 하고 우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늘을 닮은 파란색 바탕에 하얀 구름이 점점이 박힌 구름우산이 "탁" 하고 몸을 부풀립니다. 할머니에게 미움을 받아 마루밑에서만 굴러서 그렇지 이래봬도 엄마가 주고 간 자동 우산입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저만치서 승후를 보고 계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승후는 때마침 언덕 위로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구름우산을 하늘 꼭대기까지 들어올렸습니다. 우산에 겹겹이 박혀 있던 구름들이 몽실몽실 커지더니 승후를 '두둥실' 하고 하늘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보이는 할머니네 동네는 걸어 다닐 때보다 훨씬 예뻐 보였습니다. 승후가 젤 좋아하는 개천이 흐르고, 게으르뱅이 소가 지나고, 할머니집 감자밭도 보였습니다. 저기 할머니도 걸어가십니다. 그나저나 오늘 할머니는 승후에게 우산을 뺏기시고 빨간 땡볕 아래서 감자들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 그리고 버스가 들어올 때마다 꼭 엄마가 내릴 것 같은 버스정류장도 발 아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읍내로 나가시던 여름이네 할머니가 구름 우산을 타고 둥둥 떠가는 승후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후 너 핵교 안가고 또 선생님 기다리게 하믄 내 할머니한테 일러서 다리 몽생이 분질러 놓게 헌다."

여름이 할머니께서 야단치는 소리에 놀랐는지 구름우산이 얼른 학교 쪽으로 향합니다. "에이, 오늘은 꼭 엄마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네 집이 싫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좋은 날이면 승후는 구름우산을 붙잡고 엄마에게 가고 싶어집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그렇지 할머니는 '할머니네 집'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할머니는 세끼 꼬박꼬박 할머니 집에서 먹고, 날마다 할머니 집에서 자면서 왜 우리집 아니고, 꼭 할머니 집이라고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욕을 하셨습니다.

"이 새깽이 꼭 즈이 엄마를 닮아서 염장을 뒤집어 놓거든… 솔직히 염장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이 말씀을 쓰실 때면 승후는 언제나 한 발자국 옆으로 숨어 있곤 합니다. 할머니는 손바닥이나 파리채, 심지어는 구름우산으로 승후의 등짝을 내려치곤 하시니까요.

"어, 어!" 등짝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갑자기 바람이 승후의 등짝을 사정없이 밀고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부리는 심술에 놀란 구름들이 우산 속으로 쏙하고 들어가 버려서 승후는 "으악" 소리도 제대로 못 지른 채 하늘 높은 곳에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필 승후가 떨어진 곳은 재수없게도 대명초등학교 최고의 말썽쟁이 날으는 돼지 황복남의 등허리였습니다.

"어이, 전학생? 오늘 학교를 조금 늦게 오시더니 제 정신이 아니신가? 지금 이 황복남이랑 한판 하자는 거야?"

'전학생?' 도대체 전학온 지 6개월이나 넘은 나를 맨날 전학생이라고 불러대는 너는 뭐하는 녀석이냐? 승후는 대명초등학교 최고의 말썽꾼 황복남이를 애써 모른척하며 교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승후를 그냥 두면 황복남을 어찌 황복남이라고 부를까요?

오늘도 황복남이는 변함없이 승후의 구름우산을 붙잡고 진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구, 계집애 같으셔! 여름이랑 친구하실래?" 승후의 이마에서 소금보다 짠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달라고 애원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꺼라고 사정을 하다가, 이번에는 내놓으라고 제법 화도 내봅니다. 하지만 황복남이는 끄떡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주에는 주번대장 명찰까지 가슴에 붙였으니 신이 나서 어쩔줄 모릅니다.

"전학생! 정신을 감자밭에 묻고 다니는 거지, 햇빛이 이렇게 뜨거운 날에 어째 우산을 들고 다니는 거야? 우리 엄마 양산이라도 가져다 줄까?"

안 되는데… 승후는 계속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황복남이는 우산을 펼쳐들고 정신 나간 강아지, 아니 말 그대로 날으는 돼지처럼 쉴 새 없이 폴짝거립니다. 저러다 잘못하면 구름우산이 망가질지도 모

릅니다. 우리 엄마가 주고 간 우산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기어이 날으는 돼지가 옆으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웃고, 구름우산은 한쪽이 다 찌그러지고, 승후의 조그만 두 주먹이 부르르 떨립니다.
구름우산은 엄마가 승후에게 주고 간 우산입니다. 승후가 엄마 치마꼬리를 껌딱지처럼 붙들고 늘어지자 생전 처음보는 아줌마처럼 있는 대로 화를 낸 뒤 서울로 가버린 것입니다. 엄마 생각날 때마다 펴보라고 구름우산 하나만 안겨준 채요. 승후도 벌써 5학년인데 모를 리가 없죠. 아빠가 없는 승후네는 엄마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승후는 아빠 얼굴을 사진 속에서만 봤습니다. 승후네 아빠는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버스에 치여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승후가 아주 어릴 때, 엄마 젖 먹을 때요. 그래서 승후는 엄마랑 살고 싶었지만 엄마는 남들보다 더 오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승후가 먹을 밥을 차려주질 못해서 할머니에게 새깽이를 맡기게 됐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늘 엄마에게 시골로 내려와서 함께 감자 농사를 짓자고 하시지만 봄에 감자를 심으면 늦여름이나 돈을 받을 수 있는 감자 농사로는 절대 승후를 키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염장'이 뒤집어 진다며 가슴을 치곤 하셨지요. 승후는 엄마 혼자서 서울가는 버스를 타려고 할 때 엄마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밥 차려 먹고, 설거지도 내가 다 해놓을 께요." 치마를 붙잡고 놓지 않는 승후에게 엄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바쁘잖아. 엄마가 밥을 해놓을 수가 있어야 네가 밥을 차려 먹지! 5학년이나 된 녀석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날 엄마는 버스 정류장에서 승후에게 구름우산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다가, 참다가 정말 엄마가 보고 싶으면 그때 이 구름우산을 타고 엄마한테 와! 알았지?" 그리고 엄마는 서울가는 버스를 타고 "붕" 하고 가버렸습니다. 엄마가 버스를 타고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승후는 이제 아주 아주 많이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복남이가 엄마가 두고간 그 구름우산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승후는 "꼴깍" 하고 침을 한번 삼킨 뒤 아직 땅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황복남의 배 위로 올라탔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

고, 햇빛은 뜨겁고, 승후는 어쩌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으는 돼지'를 이기기에는 오늘 아침 승후가 밥을 너무 조금 먹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밥에 감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고함소리와 함께 저만치서 선생님의 하얀 와이셔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승후?"

"…"

"너 선생님이 자꾸 우산 쓰고 담장 위에서 뛰어 내리지 말라고 했지?"

"저 우산 홀랑 접히면 너 발목 부러진다고 선생님이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요."

"왜 얌전한 놈이 자꾸 말을 안 들어? 황복남도 갑자기 제 어깨 위로 네가 뛰어 내리니까 화가 나서 널 때린 거 아냐? 손 높이 들라니까."

그래도 선생님께서 구름우산을 뺏지는 않으셨습니다. 불쌍한 구름우산…

"죄송합니다 선생님! 핼미 가슴이 말라 붙어서 먹을 게 없어 그런지 저놈이 자꾸 말썽을 피워대서… 아침에 선생님을 많이 기다리시게 한다 싶더니… 제가 집에 델구 가서 다리 몽생이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패서 선생님 속을 안 썩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할머니는 코가 땅에 닫도록 인사를 하고 또 합니다.

승후가 아주 조그맣게 "씨~" 하는 소리와 함께 입을 내밀자, 할머니의 손이 기어코 등짝에 "찰싹!" 하고 와 닿습니다. "뭐가 씨~래? 어른 앞에서 맨날 상스런 말을 쓰니 핼미한테 이꼴을 보이지. 할미 염장이 뒤집혀요, 홀딱 뒤집혀."

할머니는 한 쪽 손으로 계속 승후의 등짝을 내려치시면서 다른 한 손으로 치마를 걷어 승후 얼굴에 묻은 때꼬쟁 물을 닦아주십니다.

"힘들어서 못 쓰겠다. 니 애미한테 델구 가라구 해야지, 핼미 이러다 금방 무덤에 들어가겠다."

저만큼서 날으는 돼지 황복남이가 지나갑니다. 황복남이가 주먹을 들어보입니다. 승후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황복남이가 입으로 "죽어~" 하고 지나간 것을 말이죠. 승후는 할머니 손을 뿌리치고 황복남이에게 달려갑니다. 뒤에서는 승후를 부르는 할머니의 더운 목소리가 들리고 황복남이의 "어이쿠"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승후의 몸이 다시 하늘로 "훅" 하고 올라갔습니다. 구름우산이 황복남이의 주먹을 피할 수 있도록 바람이 잔뜩 부는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한쪽 살이 부러져서 힘들텐데도 구름우산은 승후를 데리고 버스를 따라갑니다. 다리를 건너고, 기차도 지나고, 논일을 하던 어른들이 손을 들어서 하늘에 '붕' 하고 떠 있는 승후를 가리킵니다.
"저 녀석 감자 핼미집 승후 아닌가? 뻘건 대낮에 우산 뒤집어 쓰고 저 뭐하는 짓이래?"
승후는 모르는 척 구름우산 손잡이를 더 꼭 잡고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한 버스를 눈으로 찾아봅니다. 땅에서는 그렇게도 빠르던 버스가 하늘 위에서 보니 게으름뱅이 얼룩소처럼 굼실굼실 기어가는 모습이 볼만합니다. 승후를 도와주기라도 하려는 듯 바람도 심술하나 부리지 않고 구름우산을 밀어줍니다. 이대로 가면 금방 엄마가 계시는 서울 집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승후의 입에서 저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높은 건물을 지나서 한강을 건너고 파란 버스가 다니는 구불구불 길을 따라 서울에 있는 승후네 집까지 왔습니다. 승후는 서둘러서 구름우산을 접고 집으로 들어가려다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 엄마를 찾아봅니다. 엄마는 집에서 열발자국 떨어진 마트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아!" 저기 엄마가 보입니다. 엄마는 마트 안에서 계산을 하다가, 마트 밖에서 무거운 감자를 옮기다가, 다시 대머리 아저씨가 시키는대로 과자나 우유를 진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말썽쟁이 승후가 옆에 없어서 편하고 행복한 가 봅니다. 물건을 사러 온 아줌마들이랑, 함께 일하는 아저씨랑 쉬지 않고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승후는 구름우산을 꼭 잡고 다시 할머니네 집으로 갈까 아니면 내려가서 엄마를 만날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어떤 아줌마가 막 엄마를 혼내고 있습니다. 비닐봉지를 꼭 쥔 손으로 연신 엄마에게 삿대질

을 하고, 엄마는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연신 고개만 굽신거립니다. 아줌마 얼굴이 꼭 황복남이를 닮았습니다. 돼지같이 '푸둥푸둥' 한 파마머리는 돼지꼬리처럼 똘똘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줌마 목소리가 "꾸엑 꾸엑" 하고 돼지 멱따는 소리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승후 엄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따라 하늘에서도 갑자기 "후드둑" 하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승후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엄마!" 하는 소리가 나오더니 그만 구름우산과 함께 "쿵 '하고 아래로 떨어지면서 돼지 아줌마의 등허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돼지 아줌마의 놀란 비명 소리와 승후네 엄마의 동그란 눈동자와 마트 있던 아저씨, 아줌마들의 고함 소리가 합쳐져서 골목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엄마가 분명히 승후의 등짝을 내리칠 줄 알았는데 말없이 승후를 쳐다보더니 승후를 안고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승후 때문에 속이 너무 상해서 눈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승후는 엄마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서울에 있는 승후네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됐습니다. 승후는 자는 척 실눈을 뜬 채 할머니와 엄마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안허다 애미야! 핼미 젖이 말라 붙어서 나올 게 없으니 지 엄마를 찾아온 걸 우짜겠나? 애미 손이랑 핼미 손이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맡겨 놓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디 애미가 일을 한, 두 개 하나? 마트에 남의 집 청소에, 내가 미안하지. 그래도 우리가 자슥 하나는 잘 길렀다."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제 편을 드는 바람에… 다들 승후 칭찬했어요. 버리려고 두고 온 낡은 우산까지 들고… 에미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승후, 이제 제가 데리고 있을께요. 어머니 힘 드셔서…"

"나, 힘들꺼 읎다. 그리구 당연히 기래야지, 기래야지. 강아지도 저 밥주는 놈 편드는 법인데… 애미가 넘들헌테 욕을 먹는데 모른척 하

믄 자식도 아니고, 사내도 아니지."

"그래도 어머니가 힘드셔서…"

"힘들꺼 읎다. 놔둬라. 이놈은 지금 땅속에 들어 있는 감재거든. 잘 크라고 흙을 단단히 덮어 놨으니 얼매나 숨이 답답하겠나? 그래서 밖으로 나오려고 자꾸 용을 쓰는 중이야. 잘 자라라고 핼미 손으로 꾹꾹 눌러줘야지. 그래야 햇빛 많이 먹고 얼렁 자라서 훌륭한 승후가 되지."

할머니 말씀에 어쩐지 승후는 가슴이 '쿡' 하고 아파왔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손만 아픈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승후는 구름우산을 타고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마다 불을 밝혀주기도 하고, 깜깜한 길을 더듬으며 집으로 가고 있는 날으는 돼지 황복남을 뒤에 놀래켜 주기도 했습니다. 감자밭에서 열심히 감자를 캐고 계신 할머니 뒤에서 몰래몰래 햇빛을 가려주기도 했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엄마 대신 우산 고리에 끼워 짐을 덜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승후는 구름우산을 꼭 안아주며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도 했습니다. 아마 구름우산은 승후 대신 또 황복남이처럼 말썽쟁이를 찾아가서 '두둥실'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승후는 이제 구름우산이 없어도 혼자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할머니와 엄마 손을 꼭 잡고 아침이 시작되는 파란 여름 하늘을 두둥실 날아오르는 승후의 멋진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제6회 사이버문학상

정예림

노정숙

심사평

당선소감

황은정

조윤진

심사평

당선소감

제6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이 막을 내렸다. 심사위원인 이경철 문학평론가, 유성호 문학평론가는 시 당선작으로 정예림의 <낙타의 별>외 4편을, 가작으로 노정숙의 <외할머니의 왼손>외 4편을 선정했다. 또한 임헌영 문학평론가, 방민호 문학평론가, 이명랑 소설가는 생활기록문 부문의 당선작으로 황은정의 <아빠의 청춘>, 가작으로는 조윤진의 <뱀살에서 용살로>를 뽑았다. 제6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은 시 응모자가 471명, 응모작품은 2,826편에 달했다. 생활기록문은 응모자가 336명, 응모작품은 672편에 달했다. 응모자 분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린다. 당선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아울러 당선자에게는 계간 문예 '시작' 과 월간 '한국산문'에 작품이 실릴 뿐 아니라 등단 작가로도 인정받는 특전이 주어지게 된다.

심사위원장 : 임헌영 문학평론가(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시 부문 심사위원 :
이경철(시인, 문학평론가), 유성호(문학평론가, 한양대 교수)

생활기록문 부문 심사위원 :
임헌영(문학평론가), 방민호(문학평론가), 이명랑(소설가)

[시 당선작 - 정예림 '낙타의 별'외 4편]
[시 가작 - 노정숙 '외할머니의 왼손'외 4편]

[생활기록문 당선작 - 황은정 '아빠의 청춘']
[생활기록문 가작 - 조윤진 '뱀살에서 용살로']

낙타의 별 外 4편

정예림

그의 혹에서는 모래바람 소리가 들린다

가람병원 8층 사막의 경유지에서
아버지는 투명한 비커 속
잠잠해지는 모래바람을 본다
오래전 물이 마른 웅덩이 일까
떼어내지 못한 담낭, 가뭄은 상처가 깊어서
소변을 보고 돌아누운 어깨가 흔들린다
하루 세 번 비커에 소변을 받고
사막의 모래 돌풍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릴 때
신기루같은 선잠에 드는 낙타
늘어진 목덜미에 손을 얹으면
흩어지며 무늬를 만드는 모래 알갱이
수많은 아버지들의 무덤, 그의 땅에서는
풍장된 낙타들의 뼈가 만져진다
지린내 퍼져가는 4인실 병동
먹다 남긴 복숭아 캔에 황사먼지가 내려앉는다
되돌아오기엔 너무 멀리 걸어나온 낙타 한 마리
비커 바닥에 담석 알갱이들이 샛별로 빛나기 시작한다

바람의 말줄임표

실밥을 뽑고 할아버지는
잘려나간 길들로부터 자유로워 졌다

한성병원 202호실, 모든 길을 꿰매어논 할아버지가 있다
병수발 들던 고모가 마중 나가 조용한 병실
가습기 연기가 야윈 얼굴을 스쳐지나간다
발톱부터 빠져나갔다, 무릎만 남아 균형 잃은 다리
창가로 들어온 햇살 한 줌 빈자리를 채운다
선산에서 다시 찾게 될
왼쪽다리, 할아버지 무릎에 실밥자국으로 남아 있다
살기 위해 다리를 버린 할아버지는
불사의 길은 알지 못했으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법은 알고 있었다
잠든 할아버지의 날숨에서 다리를 잘라먹은 단 내가 나고
링거액이 심박수처럼 떨어진다

달구지를 타고 두렁을 지나오던 날들
썩어버린 시절을 봉하는 마지막 바느질이었고
새로 시작될 바람같은 날들을 향한 말줄임표였다

실이 빠져나간 자리로 뭉특하게 남은 흉터
할아버지 왼쪽 무릎아래
햇볕이 새 터를 잡는다

말레이가비알

난간에 걸린 이름표에 김이 서린다
물 속에 오래 잠겨 있어도 부르트지 않는 몸
악어새가 오지 않는 대공원 파충류관
말레이가비알 악어 두 마리
입을 다물고 환영처럼 사라지는 서로의 몸을 본다
수조 벽에 긁혀 조금씩 마모되었을 꼬리
좁은 웅덩이가 그들에게는 유일한 천적이다
더 이상 얼굴을 늪 안으로 넣지 않고
늪을 부유하던 몸은
수조의 물 위를 떠다닌다
꼬리를 휘두르며 사냥하던 육식의 본능은
이제 사육사가 주는 고기를 받아 먹는 것

말레이가비알 악어를 찍던 남자
움직여 보라는 듯 난간을 발로 찬다
챙, 하고 진동하는 난간에도
다문 입을 열지 않는다
청각부터 굳어 가는지
떠날 준비를 하는지
말레이가비알, 말레이시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악어 두 마리
산 채로 박제가 되어간다
요철무늬 사이가 깊게 패인다

구세군

올해도 서울역 앞에는 산타가 온다
종소리에 맞춰 흔들리는 자선냄비
생의 밥그릇은 항상 저렇게 비어 있다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저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한다
한 번의 헛발질로 미끄러졌을까, 저 남자
아득한 시절로 돌아가는 차표는 영영 끊겼는지
비둘기처럼 모여든 사내들의
뜯어진 신발 틈으로 비져나온 맨발이 환하다
몇 번이나 담배를 구걸하다 체념대신
여러번 누빈 이불보를 덮고 누운 남자
종소리, 캐롤소리 듣는지
끊기지 않는 선율 따라 붉은 냄비가 흔들린다
마이크를 든 산타가 종착역을 알리는
역장처럼 목청을 높인다 또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개찰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동안
밤은 거대한 이불보를 펼친다
털어낸 솜이불에서 오래 묵은 먼지를
첫 눈발을 날리고 있다

처녀자리의 계절

할머니는 죽어서 처녀자리가 되었다
한별 아파트 202호
아버지가 옥매트 전선을 묶는다
삼촌과 인부가 자개장롱을 들어 옮기고
하나씩 비워지는 방
엄마는 노끈에 묶인 점성책을
통째로 들어 현관에 내놓는다
누렇게 변한 책 귀퉁이
곳곳이 접혀있다
오래된 책 냄새가 현관을 매운다

운세는 할머니의 유일한 취미
매일 아침 각자의 운세를 짚어보고
호통을 치던 할머니는 별이 되었다
움직이지 않던 별자리도 서쪽으로 이동하는 겨울
높아지는 하늘이 보인다
계절따라 별자리도 바뀐다고
점성을 좋아하던 할머니는
계절을 따라 가셨다

외할머니의 왼손 外 4편

노정숙

왼손으로 늘 바닥을 쓸고 앉는 외할머니
넓은 치마폭을 가지런히 모으면
그 한 자락을 손에 감고 난 드러누워
옛날이야길 듣는다
우렁각시를 시작으로
귀신과 원님이 너나들이 하고
맨손으로 호랑일 잡았다는 왕손 아제 펄펄 날고
맘씨 고운 친구 순덕이가
정신대에 끌려간 대목에 이르면
저고리 고름으로 코를 푸는 척하며
눈물을 훔치는 외할머니의 왼손
시주승의 홀쭉한 바랑에 됫박 쌀 담을 때도
내 상고머릴 쓰다듬을 때에도
왼손만을 재게 놀린다
동백기름 발라 쪽진머리 반드레 매만지고

사분사분 마실 갈 때면
어머니는 명주솜 넣어 누빈 천으로
어깨에 붙은 몽당팔을 감싸고
텅 빈 오른팔을 저고리 앞섶에 여며드린다
외할머니의 오른팔을
질겨빠진 피댓줄이 감아먹은 후부터
어머니 가슴엔 피멍이 들고
덜컹덜컹 왁자하던 외가의 정미소는
친친 거미줄을 쳤다

해오라비난초

그를 보고 깜짝 놀랐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한 나비, 아니 학이던가
긴 다리가 흙살에 갇힌 하얀 나비

날아보지 못하고 죽은 그의 제삿날
음복한 술이 과했는지 이내 몽롱하네
환하게 웃는 사진 속 그 사람
설핏 작은 눈이 커지네
조곤조곤 귀엣말 이어지고
내 머리 쓰다듬던 그 손길
목덜미를 간질이던 입김이 스물스물 피어나네
나는
훌훌 벗고
춤을 춘다 땀으로 얼룩진 초혼제
너울너울 날개 펴고 바짝 세운 머리 꽃술

못내
발을 뗄 수 없어도 덩실덩실
춤이야말로 몸시가 아니던가
기신기신 어깨춤에 올라
달보드레한 입술에 잠시 머물다가
난향 가득한 귓가에 이르네
잘 사시오, 그 매정한 인사가
닿을 듯한 이명 같은 먼 울림
피와 피가 수런거리고
살과 뼈가 뒤엉켜 이룬 마지막 기상
허공에 그리는 동그라미 커질수록 다가오는 이

순간, 격랑에 휩싸여
둥둥 춤추며 날아오르는 저, 순백의 꽃잎

누운 자에게 말 걸기

천불산 운주사 와불 옆에
이른 서리 푸르게 떨어지는 낙엽들
물들이지 못한 말 너무 많아
낮은 바람에 실랑이네

앉은 불(佛) 선 불(佛)
세상을 벗은 그들
잘난 탑(塔) 못난 탑(塔) 모두 모여
빌고 또 빌, 그 무엇이 아직도 남아
자리 털지 못하고 서성이는가

그윽한 눈길 한번 못 맞추고
머슴바위 늘인 목 서늘한데
칠층탑 위에 앉은 조롱새
웃는 듯 우는 듯 날 새워도
무심히 뜬구름만 보는 염불

천 년 누운 자리 등창 나
이제 물릴 만도 한데
뼈 속조차 한기 든 저문 날
서성이는 바람 베고
그 곁에 허리 감고 누워나 볼까

패싸움

상추 치커리 고추가 눈 부라리며 막말을 한다. 근대 아욱도 분기탱천 발길질 요란하다. 풀숲에 갇힌 쑥갓 쪽파는 머리채를 잡혔다. 이파리 절반은 벌레한테 내주고 겨우 손가락만큼 영근 총각무 씩씩대며 허연 팔을 걷어부쳤다. 하얀 손차양 아래 고개 내민 당귀는 우아 떨며 샐쭉거리고, 죄 푸른 것들 사이에 붉은 얼굴 백일홍까지 삿대질하고 나섰다.

구석진 자리에 멀거니 서있는 돼지감자, 시앗에게 안방까지 내 준 큰엄니처럼 주춤주춤 물러선다.

나 이렇게 도리천 아수라 속에서 자랐다.

백구두

아침부터 구두를 닦는다. 솔질을 하고 퇴퇴 침을 뱉어가며 헝겊을 야물게 잡고 광을 낸다. 하얀 구두코가 반짝반짝 빛난다. 날선 바지에 중절모 눌러 쓴 아버지 찡긋 웃으며 내게 동전 한 닢 건네준다. 한량 아버지 나서면 골목 끝으로 모든 빛이 따라 나간다. 이 골목에서 쓸개 빠진 놈은 네 놈 뿐이여 할머니 고함소리 자지러진다. 할머니만 이마에 옥양목 머리띠 질끈 동여매고 눕는다.

어머니 재바른 빗자루 소리가 나른한 마당에 다시 햇살을 쓸어 모은다. 며칠, 때론 몇 달 만에 돌아온 아버지 양복에 박하향 가득하다. 언제고 다시 떠날 백구두, 댓돌 위에서 멀뚱거리고 있다.

심사평
(시)

제6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시 부문에는, 모두 471명의 응모자가 2,826편의 작품을 보내주셨다. 그동안 위상이 한층 높아져 온 사이버문학상에 어느 때보다 좋은 작품들이 투고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작품들을 읽어가면서 심사위원들은 이 시편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경험을 자산으로 삼으면서, 오랜 습작 시간을 깊숙이 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가편으로 거론된 것들은, 최근 유행하는 비평 담론을 추수하지 않고, 스스로의 경험적 구체성에만 정성을 들인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느껴졌다. 그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신인다운 개성과 시인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 시편들에 호의를 가졌다. 그 결과 당선작으로는 정예림 씨의 시편을, 가작으로는 노정숙 씨의 시편을 선정하게 되었다.

정예림 씨의 「낙타의 별」 외 4편은, 삶의 중심을 투명하고도 절절하게 바라보는 짙은 페이소스가 남달라 보였다. 오랜 시간 축적해온 언어를 통해 신인으로서는 매우 안정된 시세계를 이루고 있었다. 구체성 있는 서사를 밑거름으로 삼으면서도, 그것을 짧은 호흡 속에 서정적으로 구성하는 만만찮은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별히 「낙타의 별」에서는, 병실에서 바라본 아버지의 영상과 삶을 낙타의 그것으로 비유하면서도, 그 안에 감각적 선명함과 함께 별로 빛나는 서정의 결기까지 보여줌으로써 삶의 형식을 바라보는 깊이와 너비를 동시에 보여주었

다. 전체적으로 응모작들이 균질적이고, 관찰과 고백의 투명성과 함께 그러한 시선을 미적으로 탈바꿈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였다. 심사위원들의 논의 끝에 당선작으로 뽑게 되었다.

노정숙 씨의 「외할머니의 왼손」 외 4편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 내질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세계를 이루고 있었다. 작품이 필요로 하는 어법과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들어앉아 있었다. 균질적 형상화 능력과 함께, 작품들 사이의 작은 편차가 시인으로서의 능력을 미덥게 하였다. 당선작 가운데 한 편인 「외할머니의 왼손」에서는, 외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담긴 내러티브를 씨줄로 삼고 외할머니의 왼손 이미지를 날줄로 삼아 삶의 슬프고도 고된 서사를 선명하게 담아내었다. 그럼으로써 삶에서 상처와 치유의 과정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이미지와 서사를 결속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 삶의 깊은 진실을 탐침하는 데 전심을 다해주기를 바라볼 만하다고 생각하였다. 심사위원들의 논의 끝에 가작으로 뽑게 되었다.

이 밖에도 구체성 있는 언어와 개성적 사유를 통해 자신만의 시적 성채를 구축한 시편들이 많았다. 당선작은 이 시편들보다 안정성과 가능성에서 점수를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다음 기회에 더 빛나는 성과가 있을 것을 기원해본다. 당선자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응모자 여러분의 힘찬 정진을 당부 드린다.

심사위원
이경철(시인, 문학평론가, 동국대 겸임교수)
유성호(문학평론가, 한양대 교수)

당선 소감

■ 당선 - 정예림

제게 문학은 한 없이 높은 산이었습니다. 열심히 오르다가도 정상은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체로 일상에서 겪었던 것을 시로 씁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다리에 남은 바람의 말줄임표와 아버지의 안에 있는 사막을 보면서 꼭 한 번 시로 써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야생성을 잃은 채 살아가는 말레이가비알 악어를 보면서 그들의 슬픔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의 또래들이 걱정하는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쳐주신 김유미 선생님과 윤한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작년 항상 저희에게 웃음으로 가르침을 주신 유한칠 선생님과 항상 못난 딸을 응원해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다 전하고 싶습니다. 높디 높은 문학의 산을 걸으면서 만난 27기 문창과 동기들, 물동이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없이 부족하고 더 배워야 할 저에게 이런 큰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기회는 저에게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나태하던 자신을 혼내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문학에 정진하라는 뜻의 상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산에 올라 야호를 외칠 수 있는 그 날까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노력하는 문학인이 되겠습니다.

■ 가작 - 노정숙

시가 좋아 시동네에서 어정거린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십 년쯤 지나면 그 분야에서 꾼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돌아보니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꾼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치열함이 문제였습니다. 시는 질투심 많은 연인과 같아, 몰두하여 바친 시간만큼만 야박한 눈길을 줍니다. 곡진한 마음이 아니면 희미한 미소조차 어림없습니다. 불같은 사랑을 전력투구로 퍼부어야 합니다.

때론 치열한 시 쓰기보다 시인들을 만나 밥정 나누기를 더 즐기기도 했습니다. 끈질기게 심각하지 못한 제 성정이 시작(詩作)의 치명적 결함이라는 것을 깨닫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를 만나며 가슴 덥히던 순간의 감동을 떨치지 못하고 짝사랑에 매달려 있습니다.

저를 닮아 야무지지 못한 제 분신들이 열린 세상에 나가서 눈총받이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 수상은 느슨한 제 시작에 박차를 가하라는 뜻으로 알고 정진하겠습니다. 늘 깨어서, 가슴 뛰는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시인회의와 서시 동인과 기쁨을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빠의 청춘

황은정

난 어렸을 때, 세상 아빠들이 우리 아빠처럼 늘 그렇게 바쁜 줄 알았다. 엄마 말을 빌리자면 '회사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튀어나갈, 남들이 알아주건 말건 회사에 충성 봉사하는 사람' 이 바로 우리 아빠였다.

우리 삼남매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아빠는 언제나 회사에 계셨다고 한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퇴원하는 날조차도 오지 못하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빠는 내가 '아빠' 는 항상 바쁘다- 라고 인식하기 훨씬 이전부터 가정보다 바깥일이 항상 최우선이었던 것이다.

난 어려서 기억나지 않지만, 남들이 마다하는 지방 지점장자리를 아빠가 매번 지원하시는 바람에 우리 집은 거의 일 년에 한 번 꼴로 이사를 다녔고, 오빠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전학을 무려 다섯번이나 다녔다고 한다.

한 살 터울인 언니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 얼굴 보는 게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힘들었다.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시고, 잠든 후에 퇴근하시고, 휴일도, 명절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다. 한 번은 이른 저녁 시간 딩동-하고 울리는 현관문 벨소리에 언니와 난 너무 기뻐서 현관 앞으로 쪼르륵 달려가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다녀오셨어요!

소릴 지르며 팔짝팔짝 제자리를 뛰었다. 하지만 현관문 밖에 서있던 사람은 외판원이었고, 서로 얼굴이 벌개져 저…저… 말까지 더듬었던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아빠에게 아침엔 다녀오세요, 저녁엔 다녀오셨어요-라고 인사하는 것도 내겐 소원 같은 일이었다. 언젠가 엄마가 아침에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셔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겼었는데, 아빠는 옆집 아줌마를 깨워 엄마를 부탁한다고 하고 부랴부랴 출근을 하셨다. 옆집 아줌마네 부부와 함께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간 사람은 초등학생이었던 나였다. 그날 학교는 결석했다.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말단 영업사원으로 시작한 아빠는 전무 자리까지 승진을 했다. 그리고 그 해, 아빠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관두셨다. 월급 잘 나오고, 보너스 나오고, 자녀들에게 장학금까지 지급해주던 회사를 관둔 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아빠의 퇴직금은 모조리 사업자금으로 들어갔고, 사업은 시작한 지 몇 년도 안 돼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엄마와 자식들에게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셨던 아빠는 은행과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잦아졌고, 나중에 빚 독촉 전화는 고스란히 엄마의 몫이 되어버렸다. 오빠와 언니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빠는 자식들이 어렵게 번 돈에는 절대로 손 내밀지 않으시겠다고 한사코 거절하셨다. 당신 손으로 직접 해결하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들은 굶기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셨다.

아빠가 사업을 접고, 다시 일을 시작하셨을 때, 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들은 아빠와 '대화'라는 것을 하기가 점점 더 어색해졌다.

사회생활을 해보니, 아빠가 그렇게 일에 매달리셨던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이해를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아빠와 살가운 사이가 되는 건 아니었다. 명예와 체면을 중요시 했던 아빠는 언제나 당신이 당당한 모습으로 비춰지길 바라셨고, 엄마는 항상 개도 안 물어 갈 거라고 하던 자존심이 대단하셨다. 그래서 난 항상 큰 소리 치시는 아빠의 모습에 익숙해졌고, 아빠와의 사이에 항상 무겁게 자리하고 있던 어색함도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너

무 잘 챙겨서 난 내 앞가림이나 잘하자… 그런 생각이었다.

몇 년 전, 아빠가 자꾸만 한 손으로 입을 가리시고 말씀을 하셨다. 얼굴을 마주 보지도 않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늘 각자의 일에 바빠 어쩌다 잠깐 필요한 얘기만 나누는 터라, 그냥 그러려니 했다. 언니의 상견례를 앞둔 어느 날 밤, 아빠가 방문을 열더니, 가위 있냐고 물으셨다. 그리고 몇 분 후,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거실을 지나치다가 아빠가 거울 앞에 앉아서 하얀색 도화지를 오리고 있는 걸 봤다. 뭐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가까이 가봤다. 내가 거실에 나온 것도 모른 채, 아빠는 도화지를 아랫니 크기만큼 오려내서 빠진 아랫니 자리에 연신 끼워보고 계셨다. 안 맞으면 다시 오려서 갖다 대보고, 또 오려내고… 치아가 나빠지셔서 아랫니 한 개가 빠진 걸 가족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행여나 그걸 들킬까봐 조심조심 가리고 계셨던 걸 상상도 못했다. 상견례 때, 언니가 아빠의 빠진 이를 창피해 할까봐 임시방편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나보다. '아, 뭐야…' 짜증이 솟으면서도, 가슴이 뻐근해지면서 시큰해졌다. 하지만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빨리 가위 줘-! 였다. 아빠가 깜짝 놀라 종이와 거울을 감추며 날 돌아봤는데, 그렇게 당황한 기색으로 무안해 하는 아빠의 표정은 처음 봤다. 내 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화장대에 주름방지, 피부탄력, 어쩌구 하면서 사다놓은 비싼 화장품이 눈에 들어왔다. 내 눈가에 생긴 잔주름만 보였구나…

며칠 후, 됐다고 손사래 치는 아빠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그런데 당장 아랫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아빠는 자식들이 모아서 드린 돈으로 틀니를 해 넣으셨다.

요새 아빠가 화장실에서 하시는 일은, 틀니를 빼서 손톱깎이로 조금씩 다듬는 일이다. 그것도 밤늦게 몰래… 아빠는 분명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틀니를 하고 시간이 오래 되면, 잇몸의 모양이 변해서 틀니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한다. 그래서 요새 내가 하는 일은 언젠가 아빠에게 새 틀니를 해드리려고 통장에 조금씩 저금을 하는 일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내 방 밖에서 아빠의 코고는 소리

가 들린다. 예전엔 그게 듣기 싫어서 방문을 꼭꼭 닫아 놓고는 했는데, 이젠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살짝 나가보곤 한다. 내가 어렸을 때 아빠도 잠든 나를 이렇게 한 번씩 바라봐주곤 했겠지…

뱀살에서 용살로

조윤진

길도 없는 숲과 모래 사막을 끊임없이 기어가는 뱀이 내 두 다리를 휘감고 있다. 어느새 일흔을 훌쩍 넘긴 어머니는 내 두 다리를 휘감고 있는 뱀을 바라보며 가습기의 세기를 강에 맞춰놓는다.

"너도 알제? 니 살은 용살이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데이. 내 말 알았들었제?"

아침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밥상 밖으로 비죽 삐져나와 있는 내 두 다리를 당신 쪽으로 잡아당긴다. 그러고는 내 두 다리를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쭈욱쭉 내려훑으며 바디 로션을 바르기 시작한다. 내 두 다리는 마치 뱀의 허물이 벗겨진 것처럼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 있다. 이런 살을 사람들은 "뱀살" 이라고 부르는데, 한겨울 건조한 날씨에는 하얀 각질이 더욱 심해져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어야만 한다.

아침마다 어머니는 내 두 다리를 뱀처럼 휘감고 있는 허연 각질에 보습제를 발라주며 몇 번이고 "알았제? 알았제?"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그러면 나는 어머니가 용살이라고 부르는 내 뱀살을 들여다보며 어머니가 눈치 채지 못하게 피식, 웃곤 한다. 내 뱀살을 용살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어머니 당신뿐이다. 용살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큰 일을 해야 하는데 간혹 그 뜻을

이루기도 전에 하늘로 가버릴 수가 있다면서 늘 내 걱정을 하는 사람도 세상천지에 어머니 당신뿐이다.

"그라고 아무한티도 니 살 보여주면 안 된데이. 용살은 하늘에서 내린 기라 넘헌테 보여주면 복 날아단다 안 하나? 무조건 조심, 또 조심. 알았제?"

아침마다 어머니는 각질이 허옇게 일어난 내 두 다리에 정성스레 보습제를 바르고는 마지막으로 또 몸조심을 강조한다. 그러면 나는 또 속으로 피식 웃는다. 어머니가 용살이라고 부르는 내 살은 그저 날이 건조하면 각질이 더욱 심해지는 뱀살일 뿐이며 그저 흔한 피부질환일 뿐인 것이다.

그 날도 어머니는 밥상 밑으로 삐져나온 내 다리를 보고는 일어나 가습기의 세기를 강에 맞췄고, 보습제를 가져와 바닥에 내려놓았다. 내 다리에 발라주려고 보습제의 뚜껑을 열며 갑자기 생각난 듯 올해의 토정비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야야, 아무 걱정 마라. 올해는 니가 크게 되도 억수로 크게 되는 해란다. 초목이 단비를 맞았으니 풍요롭고 향기가 가득허고, 초목은 곧 재물을 상징하니 내 것이 늘어나고 곡간이 넘치는 해라는디 무슨 걱정이 있겄냐? 고민 많던 일은 가을 오기 전에 싹 다 해결나고 재물이고 건강이고 죄다 좋다는데 뭘 더 바라겄냐. 그저 복 달아나지 않게끔, 용 되어서 승천하지 않게끔 몸조심만 하면 그것이 니 복 잡는 길이여. 내 말 알았제?"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이제 막 손바닥에 짜놓은 보습제를 내 다리에 바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 순간 어머니가 초목이 단비를 맞았으니 풍요롭고 향기가 가득하고, 초목은 곧 재물을 상징하니 내 것이 늘어나고 곡간이 넘치는 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내 신경을 건드렸다. 어머니는 그저 내게 좋은 말을 해준 것뿐인데,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어머니의 말이, 올해의 내 토정비결이 나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뭐가 초목이 단비를 맞아 풍요롭단 말이냐?

뭐가 곡간이 넘친다는 말이냐?

매일 시간에 쫓기며 바람을 가르고, 속도와 싸우는 하루 하루를 살

고 있는데 언제 내 초목엔 단비가 내리고 언제 내 곡간엔 곡식이 넘친다는 말이냐? 하루 하루 배달일로 겨우 끼니를 때우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언제 그런 날이 온단 말이냐?

"늦었어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다. 벌써 밤알 크기만큼의 보습제를 손바닥에 짜놓은 채 어머니는 일 하러 나가는 나를 그저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내가 문밖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저 몸조심해라. 알았제?"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러나 일하러 나와 오토바이를 타자마자 몸조심하라는 어머니의 말은 오토바이 뒤로 밀려나는 건물들처럼 빠르게 내 주위로 흩어졌다.

그래서였을까?

그 날, 유리를 실은 트럭이 골목에서 튀어나와 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을 때도,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어머니 당신이 발라주던 보습제였다. 그랬다. 다리에 박힌 유리조각들을 뽑아내고 다리를 꿰맨 뒤에 마취에서 깨어나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아침마다 어머니가 발라주던 보습제였고, 아침마다 어머니가 했던 "용살"이라는 말이었다.

"어휴, 80바늘도 넘게 꿰맸어요. 다리에 박힌 유리조각 빼내느라 아주 애먹었습니다. 그나마 살가죽이 두꺼워서 다행인줄 아세요. 살가죽이 조금만 연했어도 유리가 뼈까지 박혔을 거예요. 그러나저러나 여자 다리가 이렇게 되어서 어떡합니까? 나중에 성형이라도 하세요."

두 다리에 박힌 유리조각들을 뽑아내고 찢어진 부위를 꿰매고 나서 의사는 쯧쯧, 혀를 찼다. 두 다리 위로 마치 문신처럼 아로새겨져 있는 실자국을 내려다보며 인상을 썼다. 여자 다리가 이렇게 되어서 어떡하냐고.

그러나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 사이에도 나는 어머니의 보습제와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용살에 대해 생각했다. 어머니가 용살이라고 부른 내 다리의 피부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갈라 터진 피부 위로 얼기설기 실 자국이 나고 말았다.

이렇게 다치고 너덜너덜해진 살갗을 갖게 된 용도 과연 승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뱀살인 두 다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이고!"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병실 안으로 달려 들어 왔다. 어머니는 똑바로 들여다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얼기설기 꿰맨 실자국이 나 있는 내 두 다리를 보고는 흡, 눈물, 콧물을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짐을 꾸려온 가방에서 보습제를 꺼내는 것이었다. 이제는 허옇게 각질이 일어난 데다 꿰맨 자국까지 보기 싫게 나있는 내 두 다리에 보습제를 바르며 내 대답을 재촉했다.

"너도 알제? 니 살은 용살이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데이. 그나마 액땜을 했으니까 올 한 해는 멀쩡하지 않겠나? 니 내 말 알았들었제?"

나는 처음으로 피식, 웃지 않고 진지하게 "네!"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의 "알았제? 알았제?" 소리에 몇 번이고 "네" 를 외쳤다.
내 눈에는, 남들 눈에는 그저 허연 각질이 일어나고 갈라진 내 뱀살이, 그저 단순한 피부질환이 어머니의 눈에는 어찌 되었든 하늘에서 내려주신 용살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남들 눈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며 그저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배달꾼인 내가 어머니 당신의 눈에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용살을 갖고 태어나 언젠가는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성공할 큰 인물임을 이제는 나도 믿어야하기 때문이었다. 나를 믿는 것, 내 살이 뱀살이 아니라 용살임을 믿는 것, 그것이 어머니 당신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임을 보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당신이 아침마다 내 갈라지고 터진 두 다리에 발라주던 보습제는 어쩌면 어머니 당신이 이 세상에 심은 자식이라는 나무에 붙여놓은 부적은 아니었을까?

어쩌면 내 두 다리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행위가 어머니 당신에게는 새벽 기도와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일까?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가 내 트고 갈라진 두 다리에 발라준 보습제는 어머니 당신의 사랑처럼 뜨겁고, 피부 깊숙이 스며든 보습제는 오늘도 또 하루 동안 내 두 다리를 촉촉하게 감싸주는 것이다.

심사평
(생활기록문)

한국 문학에서 수필은 경수필적인 것이 중수필적인 것보다 양질면에서 뛰어나다. 중수필은 사색이 무거워져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 사변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데다 귀한 사변이기보다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자신의 생각을 나열해놓은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 경수필은 가벼움 속에 명상적인 것을 담는데 투명하고 명징한 수필이 많다.

이번 제6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생활기록문 부문에는 총 336명의 응모자가 672편의 작품을 보내왔다. 이 응모작들 역시 경수필이 중수필보다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았다. 응모작들 가운데 조옥상의 「고드름」, 조윤진의 「뱀살에서 용살로」, 황은정의 「아빠의 청춘」이 본심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황은정의 「아빠의 청춘」과 조윤진의 「뱀살에서 용살로」는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옥상의 「고드름」은 사물에 대한 깊은 사색을 담고 있다. 이 중 조옥상의 「고드름」은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문체가 돋보이는 작품이었으며, 조윤진의 「뱀살에서 용살로」는 화자와 어머니의 관계를 '뱀살'이라는 소재 속에 잘 용해시켰다. 황은정의 「아빠의 청춘」은 젊은 감각으로 대상을 감수성 있게 표현했다.

세 작품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뛰어났으나 심사위원들은 황은정의 「아빠의 청춘」을 당선작으로, 조윤진의 「뱀살에서 용살로」를 가작으로 선정했다. 아쉽게도 수상의 영예를 놓쳤지만 「고드름」을 쓰신 조옥상씨도 그 앞날이 기대되는 바 더욱 정진하기 바란다.

이번 제7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생활기록문에 응모된 작품들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에서 삶의 진실을 끌어올린 바, 그 진실성에 있어서는 한 편 한 편 모두 일등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수상자들 모두에게 이번 수상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그들의 깨달음이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다 나은 세계를 발견하게 하는 문학의 본질에까지 가닿게 되기를 바란다.

심사위원
임헌영, 방민호, 이명랑

당선 소감

■ 당선 - 황은정

유난히도 추웠던 올 겨울, 꽁꽁 싸매고 길을 걷다가 당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신은 얼떨떨하고 얼굴은 화끈해지고, 심장은 두 방망이질을 해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한 정거장을 지나서 내렸습니다. 당선 소감을 쓰는 지금도 백지에서 글자들이 춤이라도 추는 것처럼 마음이 떨립니다.

오직 그것만이 내 길이라고 꿈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좌절되었을 때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막막함에 작은 틈새를 열어 준 것이 '글' 이란 놈이었습니다. 말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글을 쓰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글' 이란 놈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글이랑 친구 삼아 10여 년을 어울리다 보니, 어떤 때는 실컷 싸우기도 하고, 며칠 토라져서 안 보고 있다가 슬며시 화해하자며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저와 놀아달라고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붙잡아 놓기고 하고… 그런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글에게 부끄럽지 않은 평생 친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철부지 막내딸 끝까지 믿어주신 부모님,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는 언니야랑 우리의 아지트 작업실 제공해준 오빠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칠 때 마다 용기 주는 친구들아 사랑한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가작 - 조윤진

제게 봄은 늘 겨울보다 혹독한 계절이었습니다. 눈이 녹고, 눈 녹은 자리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 되면 이상하게도 자주 눈물이 났습니다. 이 흐드러진 봄에 나만 외따로 떨어져 있는 듯 하여 이 봄이 외롭기만 했습니다. 당선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 다가올 2012년의 봄도 제게는 겨울보다 더 서러운 계절이었을 테지요.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모두 잠든 시간에 한 장의 백지를 앞에 놓고 이제 막 채워 넣을 한 줄의 문장을 위해 고뇌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 삶 속에 어떤 상처를 숨겨 두었든 대부분은 외롭고 슬프고……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외롭고 슬프고…… 그러나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들 중에 저도 한 명이고 싶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제게 다가올 봄보다 더 흐드러진 기쁨을 안겨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아프고 더 깊이 슬퍼하는 것으로 어떤 강한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큰 희망을 품겠습니다. 이제는 다가올 봄의 저 파릇파릇한 희망 속에 작으나마 제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SDU 디지털 문학 • 제6호 • 2013

발 행 인 오봉옥
편 집 장 유원희, 조익진
편집위원 임정빈, 김지혜, 표윤정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60
TEL. (02)2128-3097
http://writing.sdu.ac.kr

인쇄 2013년 2월
발행 2013년 2월
제작 삼호인쇄
주소 서울 강남 개포 1226
전화 02-589-0072

SDU
SEOUL DIGITAL UNIVERSITY
서울디지털대학교